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내 뜻대로 순종해주길 바라지 말라.
순종하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숲을 삼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0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0월 2일)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불교예술 한자리… 불교문화대전 개막 불교 음악, 미술, 출판, 문학 등을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불교문화주간 행사가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은 10월 19일 서울 종로 조계사 특설무대에서 '2022 불교문화대전' 개막식을 개최했으며,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오프닝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불교미술대전 오프닝 행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재순 작가의 '석조여래불'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 글= 신성민 기자, 사진= 박재완 기자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청신호'

조계종 총무원 TF구성 완료
대외협력, 기술방안 등 논의
경북 5개 본사 간담회 진행
내년 초 범국민위 구성 계획
정부부처 수장들 협조 약속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5cm의 기적'으로 잘 알려진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가 빠르게 탄력을 받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내 TFT가 구성 완료돼 본격적인 입불 방안 등에 대한 실무 논의가 시작됐다. 또한 문화재 정책 관련 정부 부처 수장들도 정책 지원을 잇달아 약속했다.

실무 TFT 활동 · 종도 여론 수렴

조계종 총무원 주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천년을 세우다'를 슬로건으로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사업이 제1 종책 과제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근 실무 TFT 구성이 확정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실무 TFT에는 김용구 기획차장을 팀장으로 윤승환 총무차장, 이상봉 문화차장, 황충기 문화사업단 사무차장, 임융창 홍보팀장, 신유철 문화재팀장, 김영미 백만원력팀장이 참여한다.

실무 TFT는 △마애불 바로 모시기 사업 관련 대외협력 △관련 기술문제 검토 △'천년을 세우다' 홍보자료 제작 · 배포 △마애불 대중 친견 및 순례 조직화 등을 논의 · 진행할 예정이다.

종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10월 20일에는 경북도 5개 본사 주지 스님들과 총무부장 호산 스님, 문화부장 탄원 스님 등이 간담회를 갖고,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사업 관련 의견들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탄원 스님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제안하신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사업은 종도와 사부대중, 국민들의 원력이 모아져야 하는 불사"라면서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 실무 방안들을 논의해 차근차근 불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조계종은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사업을 국민적인 캠페인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내년 초 '천년을 세우다'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이에 따라 관련 홍보사업과 국민 모금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문체부 장관 등 "정책적 지원" 약속

문화 · 문화재 정책 관련 정부부처 수장들이 잇달아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관련한 정책 지원을 약속한 점도 고무적이다. 열암곡 마애불이 발견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이처럼 입불(入佛)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18, 19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열암곡 마애불은 조선 중기에 지진으로 넘어졌다. 발견 당시 바닥 돌과 5cm 가량 떨어져 있었다. 옆 상호가 매우 아름다운데 불상이 일어선다면 석굴암 불상에 비견되는 아름다운 마애불일 것"이라며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어 국운창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불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히 강조했다.

이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국운융성의 계기라는 총무원장 스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마애불을 바로 세우는 데 문체부도 많은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 역시 "총무원장 스님의 취임사를 듣고 큰 숙제를 받았음을 알았다. 잘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방 이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최 청장은 열암곡 마애불 바로 세우기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최 청장은 "열암곡 마애불은 불교의 성보로 서 계실 때 그 의미와 아름다움이 빛을 발한다"면서 "문화재청은 경주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불상의 본래 위치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입불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 일정을 당기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비구니회관 개관 20돌 "지역사회 중심 공간" 발원

10월 18일, 기념 대법회 봉행
400여 비구니 스님 모여 축하
비구니승단 화합 구심점 되길

전국 6000여 비구니 스님의 총본산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관이 건립 스무돌을 맞았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10월 17일 전국비구니회관 3층 대법당 만불전에서 개관 2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기념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 400여 명은 비구니회관 건립을 위해 힘쓴 어른스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비구니회관이 더욱 발전, 지역사회 중심 공간이 되길 염원했다.

이날 기념법회는 조계종 어산어장 동환 스님의 신중청으로 막이 올랐다. 이어 비구니회관 건립과정과 역사를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며 지난 추억을 되새겼다. 이후 혜춘 스님 문도회와 광우 스님 문도회 대표스님들이 전국 비구니스님들을 대표해 1990년 간행된 전국비구니회 소식지 '비구니'의 통합 제작본을 부처님 전에 올리며 본격적인 법회의 시작을 알렸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회관 건립 20주년의 의미를 설명하며 기쁨을 표했다. 본각 스님은 "회장 취임 후 비구니회의 각종 자료를 전산화하며 이전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봤고, 그 과정에서 비구니회관이라는 대작불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었다"면서 "어른스님들과 전국 불자들의 큰 뜻이 담긴 비구니회관에 더욱 애착이 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관이 없었다면 비구니 스님들이 어디에 의지해 결속을 다질 수 있었을까 생각하며 감사함을 다시 한 번 느낀다"면서 "전국 비구니 스님들의 도움으로 이뤄낸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잘 가꾸고 보듬어 스님들의 수행도량이자 포교활동공간으로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장소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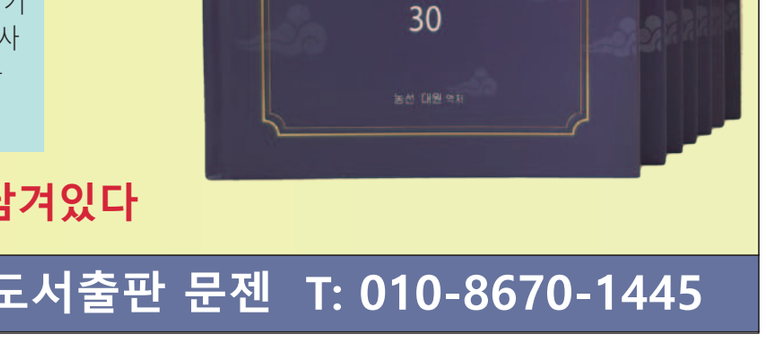
전국비구니회장 원로회의장 수현 스님은 부석부의장 일법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회관은 20년간 비구니스님들의 교육 터전이자, 수백 명 스님들의 모임 공간, 포교의 장이 돼왔다"면서 "앞으로도 이곳에서 비구니스님들이 일심단결해 부처님 재세 시 같이 화합하는 승가의 모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은 축사에서 "회관을 짓기 위해 애쓰고 원력을 기울인 어른스님 생각이 많이 나는 날"이라면서 "어른스님께서는 이 자리가 비구니스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화합의 장이 되길 바라셨다. 앞으로도 많은 사부대중들이 힐링하고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발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비구니회관 건립과 발전에 큰 공적을 쌓은 스님과 단체, 불자들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회장 본각 스님은 불사에 적극 동참한 혜춘 스님, 광우 스님, 대행 스님, 진관 스님, 상륜 스님, 정훈 스님, 법운 스님 문도회와 보문종회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이 비구니스님들 모임인 목련회, 청림회, 화엄회와 정덕 스님, 정성 스님, 명호근 불자에게 공로표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건립 초기부터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해온 윤미숙(덕명화), 김명희(원명화), 노말애(만월심) 불자에게는 20주년 감사패가 수여됐다.

후원금 전달도 이어졌다. 전국비구니회 서울지회(지회장 해성) 회원일동이 500만 원, 서울 정각사(주지 정목)가 1000만 원, 마하회(회장 현정) 회원 일동이 2023 샤카디타 세계대회 후원금 1000만 원, 무주 향산사 주지 성본 스님이 서울의료원 병원 포교 후원금 1000만 원, 김철종 전국비구니회 후원회장(새한그룹 회장)이 발전기금 3000만 원, 조계종 18대 중앙종회 비구니 종회의원스님들이 전국비구니회 운영후원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전국비구니회는 10월 17일 비구니회관 개관 2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회관이 지역사회 중심공간이 되길 발원했다.

7불로부터 역대 조사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주옥같은 법문집!

전등록 30권

전등록은 7불로부터 1조 가섭존자, 28조 달마대사, 33조 혜능대사 등 52세대 1,701인의 계보와 조사들의 깨달음의 골수를 말 밖의 말로 기록한 선종 최고의 공안집이다. 그러기에 지식이나 알음알이로는 선사들의 요지를 깨달아 들어갈 수 없으므로, 농선 대원선사가 선문염송30권, 화엄경81권을 완역한 혜안으로 각 조사마다 선리(禪理)의 토끼뿔을 더해 닦아 증득할 수 있도록 깨달음의 문을 열어 보였다.

역저 농선 대원선사
수덕사 만공선사의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의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이 시대 유일한 선교 양종의 대종장으로
화엄경81권 완간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들의 깨달음이 여기에 다 담겨있다

이 시대에 다시 만날 수 없는 전등록 30권 완역본 / 500부 한정판매 / 도서출판 문젠 T: 010-8670-1445

“은퇴출가로 인생 2막 열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 은퇴출가 사미 · 사미니 교육 개최

17~19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서
2019~2021년 은퇴출가자 참여해
은퇴출가제도 시행 이후 첫 교육
치문 · 예불 등 전문 강의 진행돼

공주=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치문(緇門)은 먹물 옷을 입은 사문을 의미합니다. 학인 때 배우는 〈치문경훈(緇門警訓)〉의 준말이기도 하죠.”

송광사승가대학장 연각 스님이 사미 · 사미니 스님들에게 ‘치문’에 대해 설명했다. 연각 스님의 강의에 사미 · 사미니 스님들은 한 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경청했고, 필기하기도 했다. 이날 모인 사미 · 사미니 스님은 조금은 특별했다. 모두 조계종에서 시행하고 있는 은퇴출가제도를 통해 출가한 학인 스님들이어서다.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직무대행 서봉)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22년도 은퇴출가 사미 · 사미니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교육에는 2019년~2021년에 수계한 사미 25명, 사미니 14명 등 총 39명의 스님이 참여했다. 특히 은퇴출가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미 · 사미니 스님 합동교육은 이번이 처음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특수출가제도인 은퇴출가제도는 사회에 헌신한 은퇴자들이 불교의 사문으로서 수행과 보살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51~65세 은퇴자들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출가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연 것이다.


조계종 교육원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22년도 은퇴출가 사미 · 사미니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은퇴출가자 교육에서는 교리 · 포교 · 참선 · 염불 전문가들의 강의가 진행된다. 교육은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의 ‘포교방법론’, 보문사 선원장 지범 스님의 ‘참선수행의 이해’, 통도사승가대학장 인해 스님의 ‘육조단경’, 조계종 어산어장 화암 스님의 ‘염불수행과 의례’, 해인사승가대학 교수 법장 스님의 ‘계율과 수행’, 조계종 교육국장 무일 스님의 ‘조계종단과 종법의 이해’ 등이 진행됐다.

은퇴출가 사미 · 사미니 스님들은 첫 합동교육에 만족감을 보이며, “은퇴출가가 새로운 삶을 열게 했다”고 입을 모았다. 호국지장사에서 선묵 혜자 스님을 은사로 은퇴출가한 사미 도신 스님은 본래 속가에서는 학교 교장으로 활동했다. 원래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은퇴출가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2년을 준비해 정년퇴임 다음날 출가했다. “출가 도반들을 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 행복하다”고 밝힌 도신 스님은 “출가 이후 세속의 무절제한 삶을 모두 내려놓고 몸과 정신이 모두 건강해졌다”며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인생의 마지막까지 정말 미래지향적 삶을 살고 싶다면 은퇴출가를 준비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불영사에서 일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사미니 여교 스님은 가족의 죽음으로 무상함을 느껴 출가를 하게 됐다. 여교 스님은 “불영사 승가대학에서 수학 중인데 대중생활에서 느끼는 점이 많다. 서로 화합하고 돕는 모습에서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낀다”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정진해 남은 생을 자리이타의 삶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원장 직무대행 서봉 스님은 “은퇴출가제도는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은퇴자에게 출가를 통해 수행과 보살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출가 문화의 확산을 통해 불법을 널리 홍포하기 위해 시작됐다”면서 “이번 은퇴출가 사미 · 사미니 교육을 통해 삼보에 대한 굳건한 신심으로 삶의 근본적 전환의 계기를 만들고 출가자로서 살아갈 발심과 서원을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정사 불법양도 추진문건 확인…추가피해 우려

권한 없는 불법계약 ‘논란’
법화종, “조속정리에 만전”

법화종 정상화의 마지막 보루였던 총본산 안정사가 법원 판결을 통해 종단 품으로 회수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안정사와 종단에서 아무런 권한 없는 자들이 다른 종단 승려에게 안정사를 불법적으로 양도하려 한 정황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안정사 주지 임명을 댓가로 5억원을 차용하고, 탈종과 입종절차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온 정황이 확인되면서,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인수인계확인서’ 등 각종 서류에 따르면 올 5월 16일 안정사 前주지 이재열(승헌) · 前총무원장 당선자 임채곤(거암)은 제3의 인물을 상대로 안정사를 인계 · 인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이재열(승헌)은 ‘확약서’를 통해 △2020년부터 진행돼 온 안정사 인수인계 과정을 원칙으로 할 것 △안정사 재산과 종무행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한편, △상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서명했다.

문제는 해당 문서가 작성된 시점이 올 5월 16일로, 이미 이재열(승헌)은 안정사와 관련한 일체 직위와 권한은 물론, 법화종 총무원으로부터 치탈도첩의 징계까지 확정돼 승적조차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다. 임채곤(거암) 역시 법원 판결에 의해 총무원장 당선 자체가 무효화됐으며, 총무원으로부터 치탈도첩의 징계가 확정된 시점이다.

안정사 인수인계 계약을 체결한 ‘제3의 인물’ 효범 스님에 대한 의혹도 거세다. 효범 스님은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의 상좌였지만 이미 수년전부터 여러 문제로 논란을 야기해 교구와 문중 내에서는 사실상 제명당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종정예경실측은 효범 스님에 대해 “어른 스님께서 한때나마 상좌의 연을 맺었기에 보듬어 안고자 하셨기에 교구 차원에서도 굳이 문제 삼지 않았지만, 최근 다른 종단까지 넘나들면서 황당한 행태를 벌인 사실을 인지하고 예경실과 교구본사 차원에서 어른 스님께 정식으로 이연절차를 밟으실 것을 요청드렸다”고 잘라 말했다.

‘안정사 인수인계 준비관련 작업 진행절차’에 따르면 효범 스님은 불사금 5억을 이재열 측에 지급하는 댓가로 안정사 주지 임명을 계획해 왔다.

양측은 △안정사 인수 후 종단 탈종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작업을 완벽히 수행 △(법화종)승려증 및 재적승 입종 △승려증 및 재적승 입종 후 주지 임명 시기는 2~3년으로 한다(상황에 따라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합의했다. 6월 3일에는 이재열(승헌)을 차용인으로 5억원에 대한 차용증도 추가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효범 스님은 “승적관계는 자세하게 모른다”며 “단순히 부처님 도량이 방치돼 있는 것이 안타까워 불사의 마음을 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법화종 총무원 관계자는 “약정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면 실현 불가능한 계약”이라며 “이미 약정서에 적시된 계획의 상당부분이 총무원과 법원에 의해 무산됐는데도 재차 확약서가 작성된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법적으로는 모든 정상화가 끝났고 잔불 정리만 남은 상황이기에, 안정사가 더 이상 이런 황당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속히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히 의도치 않게 내부문제로 다른 종단의 큰 어른스님이 거론된 점에 대해 종단 차원에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 조계종에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상황과 종단 입장을 전달하고 조사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사진 왼쪽부터 봉선사 마애불 입불기금 전달식, 은해사 인재육성 기금 전달식, 금보암 재호 스님의 승려복지기금 전달식.

불교증흥 염원하며 전국 사찰들 기금 전달

봉선사, 열암곡 마애불 세우기 2천만원
은해사, 선화여고 장학금 1억1900만원
금보암 재호 스님, 승보공양 2000만원

불교증흥의 새역사를 발원하며 조계종 총무원 제37대 집행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위해 전국 사찰들의 후원금이 속속 모이고 있다. 경주 열암곡 부처님 세우기, 불교 인재양성, 승보 공양 등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벗이 되는 사업들에 불자들의 염원이 담겨 훈훈함을 더한다.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초격)는 10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제37대 총무원 집행부 핵심사업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 기금 2000만 원과 자비나눔 기금 10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종단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세우기’가 원만 회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교구본사와 말사에서 기금을 모았다”면서 “총무원장 스님이 약속한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와 포교 중심의 종책 사업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종도들의 기대가 크다. 교구본사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가겠다”고 약속했다.

진우 스님은 “교구본사 차원에서 힘을 계속해서 보태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희망이 생긴다”면서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세우기 사업은 ‘천년을 세운다’는 취지와 의미를 담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천년 간 나라가 융창하고 불교가 중흥되길 바라는 희망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자양성을 위한 인재 육성 기금 기탁도 이어졌다.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덕조)는 10월 20일, 아름다운동행 이사장인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종립학교인 영천 선화여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억 1900만원을 지정기탁하며 지역 인재 육성을 강조했다.

후학스님들을 위한 노스님의 기금 기탁도 눈길을 끈다. 직할교구 말사 서울 미타사 금보암에 주석 중인 재호 스님은 10월 20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승려복지기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금은 7살에 동진 출가해 평생 금보암에서 수행정진해온 재호 스님이 근검절약해 모은 용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세수 85세인 재호 스님은 “우리 종단 스님들이 노후와 병고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다른 어려운 곳에도 차례로 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뜻을 잘 받들어 승려복지에 잘 사용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마음청정 지구청정
Pure Mind. Pure Earth

『기후 환경 위기 극복 불자행동 캠페인』 “생활속 실천에 동참해 주세요”

비움 Simple Life
소욕지족少欲知足 운동
물질은 소박하게 마음은 풍요롭게
- 적게 소유하며 검소한 삶을 통해 마음의 풍요를 누리겠습니다.
  적게 구입하고, 오래쓰며, 윤리적 소비로 살기
- 자연과 이웃 덕분에 살아감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자연과 이웃의 은혜 알고, 감사와 고마움으로 베풀며살기
- 본래 내 것은 없음을 알고, 나누고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무소유와 나눔, 자비의 마음으로 돌봄과 배려의 삶을 살기
- 위가 아니라 옆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물질적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이웃과 협동하며 공동체로 살기

바꿈 Changing Life
수처작주隨處作主 운동
나를 바꿔 세상을 바꾼다
- 자신을 살피고 주변을 돌아보며 천천히 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고 욕심과 화를 다스리며 수행과 평화명상 생활화하기
- 쓰레기 제로의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발우공양, 일회용품 사용금지, 비닐 플라스틱 사용절제, 농어촌 쓰레기줍기
-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전기자동차사용하기
- 채식위주의 식사와 발우공양문화를 실천하겠습니다.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장려하며 소식하는 빈그릇운동 실천하기

살림 Saving Life
생명방생生命放生 운동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
- 동물을 보호하고 살리며, 생명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현대적 방생실천, 살처분반대, 동물권옹호, 미래세대권리 옹호하기
-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며 풍요로운 자연을 만들겠습니다.
  나이만큼 나무심기, 산감제도 부활, 사찰숲가꾸기
- 농업을 지키고 자립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농업자립지원, 텃밭가꾸기, 귀농귀촌장려, 농촌공동체만들기
- 개발보다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을 우선하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금지, 자연서식지 습지 보호, 생태파괴기업 투자철회

미래 For the Future
자업자득自業自得 운동
미래세대에게 피해 물려주지 않기
- 환경과 생태문제를 배우고 이웃과 더불어 실천합니다.
  종단, 교구별 환경위원회 설치, 환경교육실시, 조직만들고 실천하기
-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이루겠습니다.
  사찰과 불교시설 태양광 풍력등 재생가능에너지이용, 넷제로(Net-Zero)실천
- 지역적으로 실천하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역단체와 협력하고 지역순환사회만들기, 전지구적인 문제해결에 참여
- 가난한 이들과 난민, 미래세대를 위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고통받는 이웃과 난민지원, 공정무역, 미래세대를 위한 활동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천태종 대한불교진각종 대한불교관음종 한국불교태고종 불교총지종 대한불교대각종 대한불교보문종 재)대한불교원효종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대한불교총화종 대한불교삼론종 대한불교대승종 대한불교용화종 한국불교미륵종 사)대승불교본원종 사)대한불교원융종 한국불교여래종 보국불교염불종 사)대한불교조동종
사)대한불교법상종 재)한국불교법륜종 대한불교정토종 대한불교진언종 대한불교화엄종 대한불교법연종 대한불교미타종 대한불교일승종 대한불교법화종 한국대중불교불이종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Association of Korean Buddhist Orders

전통사찰 규제완화 등 개선방안 현실화

불교중흥 위한 새 집행부 과제

② 전통문화 보존정책 개선

문화재관람료 개정안 토대
세부근거 마련 및 협의추진
전통사찰 지목 현실화 과제
공원정책 · 사찰전기료 지원
산적한 숙원과제 해법 추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제37대 집행부는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불교계 숙원과제로 지적돼 온 각종 규제법령 및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약속했다. 국립공원 정책 전환 및 전통사찰 보수비용 자부담율 폐지, 복원 예산 확보, 사찰 경내지에 불가피하게 존속돼 온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상당부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각 당에서 불교 관련 공약으로 약속한 내용이지만,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전통문화 보존정책과 관련해 사회적 이목이 가장 집중된 사안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다. 지난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폄훼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만큼, 관련법 개정안은 무리 없이 통과돼 토대는 마련됐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 및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청래 의원이 입법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문화재 관리주체인 사찰의 부담을 덜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문화재 관람료 감면 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조항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 4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관람료 감면 및 지원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그러나 감면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및 세부근거에 대한 협의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이 정체된 상황이다. 이에 해당 법령에 근거해 문화재 감면에 따른 지원체계 및 방침을 도출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과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핵심과제로 보수시 자부담 철폐 가능성도 주목된다. 전통사찰 보수를 위한 예산의 20%가 명확한 근거 없이 자부담으로 책정됨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찰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통사찰 지목 정비 및 미등기 건축물의 양성화도 쟁점사항이다. 전통사찰 경내지가 실제 이용현실과 괴리된 경우가 많아 불사에 어려움이 크고 각종 세금 등에 대한 논란 및 불가피한 불법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사찰 경내지 지목 현실화 사업 계획' 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종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중복규제로 전통사찰을 옭죄는 공원정책 전환을 위한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 및 자연공원 내 전통사찰은 사찰림과 사찰지를 포함한 문화유산 뿐 아니라 문화경관 및 자연경관으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없이 각종 법령으로 중복규제에 고통 받아 왔다.

이와 관련 현재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산림보호법' 등이 소관위 심사를 통과해 계류 중이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경관의 보전 · 관리뿐 아니라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을 위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사가 사찰림을 안전하게 보호 · 관리하고, 그 가치를 유지 · 증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 · 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37대 집행부는 관련 법안 개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공원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종단 · 정부간 상설협의체 구성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 사찰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방안을 비롯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탑과 부도 전각 내 발견된 성보의 경우 무주물에서 제외), 장사 등에 관한 법률(문화재 보호구역 내 종교단체가 관리하는 봉안시설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통사찰의 공익성 고려해 용적율 완화 대상에 전통사찰 추가) 등에 따른 실질적 개선노력도 과제로 남았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취임공약을 통해 "전통사찰에 관한 각종 중복규제 철폐는 물론 국립공원의 획기적인 정책변화와 문화재구역 입장료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불교가 민족문화유산의 수호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제37대 집행부가 불교계 오랜 숙원과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BBS불교방송 8대 이사장에 덕문 스님

10월 18일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BBS불교방송 제8대 이사장으로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사진>이 선임됐다.

재단법인 불교방송은 10월 18일 다보원 법당에서 제116차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덕문 스님을 선출했다.

덕문 스님은 "불교방송이 가야할 길을 명확하게 지켜봤던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불교가 더욱 발전해야하는 계기를 불교방송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선을 다해서 책임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덕문 스님은 종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5년 수계했다. 1989년 통도사 선원을 시작으로 7안거를 성만했으며 총무원 호법부장, 조계종 직영사찰 보문사 · 선본사 재산관리인, 조계종 중앙박물관장, 동화사 주지, 동국대 감사, 13 · 14 · 15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과 화엄사 주지를 비롯해 사단법인 굿월드자선은행 대표, 정광학원 이사장, 동국대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노위는 10월 17일 서울시립승화원에서 무연고사망자 합동 추모기도제를 봉행했다.

사노위, 무연고 사망 · 산재까지 대사회행보

10월 17일 합동 추모기도제 봉행
SPC 산재 사고 관련 비판성명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사노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대사회 현안에 직접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노위는 10월 17일 파주 서울시립승화원 제1묘지 무연고사망자 추모의집에서 '1017 빈곤철폐의날,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기도제' 를 봉행했다.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날(10월 17일)을 맞아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 치러줄 사람마저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극락왕생 발원과 사회구조 변화의 과제를 알리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기도회에 앞서 지몽 스님은 먼저 공영장례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과 대해 강조했다. 스님은 "다양한 이유로 죽어서까지 차가운 창고 같은 건물 속에 있어야 하는 유골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면서 "무연고자 공영장례가 사회구성원 누구나 애도받고, 애도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이생에서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노위는 10월 18일에는 평택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근무 중 사고로 숨진 20대 노동자의 빈소를 찾아 애도하고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고인은 10월15일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계에 상반신이 끼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노동계가 정부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강화와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등 각계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사노위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성명서도 발표했다.

사노위는 성명서에서는 "제품 생산에 무오류, 무결점을 끊임없이 외치는 회사 방침에 앞서 노동자들의 육체 안전사고제로 정신을 으뜸으로 해야한다"면서 "모든 기업들이 이윤을 제일로 하는 경영자세를 완전히 걷어내지 않고서는 산재사고를 방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주=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3년 만에 열린 종교축제…종교간 화합 증진

한국종교지도자협, 10월 15일 개최
진우 스님, 공동대표의장 추대도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10월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2 종교문화축제를 개최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등 우리나라 7대 종교가 한자리에 모여 경계를 넘어선 문화 축제의 장을 통해 종교간 화합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는 10월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2 종교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축제는 종교 간 화합과 유대를 증진을 환기하며 '우리함께 다시!' 를 주제로 진행됐다.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김희중 대주교, 손진우 유교 성균관장, 박상종 천도교 교령, 김현성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대표회장 등 7대 종단 지도자 등 각 종교 대표자들을 비롯해 종교인과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시민 2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공동대표의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생명, 평화, 나눔, 사랑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고 있는 축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각 종교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고, 너와 내가 다름이 아닌 소중한 서로 간의 존재임을 깨달으며 행복을 찾는 풍성한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 면서 "우리 종교인은 국민들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한국의 모든 종교는 생활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겸손한 자세로 이 세상에 희망과 행복을 주는 역할을 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날 축제에선 종교 지도자들이 무대에 나와 '화합 세리머니' 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종교 지도자들은 '생명' '평화' '나눔' '사랑' 이라는 퍼즐을 한 글자씩 맞추며 희망 안에 하나 된 세상을 간절하게 발원했다.

한편 진우 스님은 행사에 앞서 진행된 종지협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공동대표의장으로 추대됐다.

임은호 기자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생전예수재 의식" 특강 안내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에서 임인년 11월 2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8주간 생전예수재 의식 특강을 합니다. 관심있는 스님들께서는 어렵게 준비한 특강에 많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개강일 : 11월 26일 (음 11월 3일) 토요일
■시 간 : 오후 3시 ~ 5시까지
■기 간 : 2개월 (매주 토요일)
■강 사 : 이기봉 스님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승교육사, 영산재보존회 연수원장)
■연락처 : 02)392-3234 옥천범음대학 교학처장 박장호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학장 조고담

월정사, 사찰 유튜브 최초 구독 4만명 달성

2020년 '오대산 월정사' 채널개설 후 2년만의 성과

유튜브 신행 스트리밍으로
팬데믹, 비대면 소통 일조
최근 사중 행사 콘텐츠화
온라인 축원 · 쇼츠 제작도
직접 참여 신도수 증가추세
1만 온라인회 구성, 시너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찰 유튜브 최초로 구독자 4만 명을 넘어선 유튜브 채널 오대산 월정사.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오대산 월정사'가 10월 사찰 유튜브 중 최초로 구독자 4만명을 넘어섰다. 월정사는 이를 바탕으로 온 · 오프라인 포교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월정사는 10월 17일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대산 월정사' (www.youtube.com/c/오대산 월정사) 채널 구독 4만명 달성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월정사는 채널 개설 초기부터 유튜브 스트리밍을 활용한 일일 신행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매일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사시불공과 금강경 기도, 명상프로그램 '불꽃 속에 피는 연꽃' 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시기에도 신도와의 활발한 소통을 형성했다.

또 사중에서 봉행되는 다양한 법회와 행사를 영상 콘텐츠화하고 온라인 축원 도입, 쇼츠 제작 등 유튜브 플랫폼에 적합한 전달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러한 월정사의 시도는 구독자 증가로 이어졌고, 기존 신도가 유튜브로 유입되던 구조는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사찰의 새 신도 유입으로 확장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종식 후 영상으로만 접하던 법회와 행사를 직접 보기 위한 신도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월정사는 현재 스님 1명과 재가자 3명으로 이뤄진 뉴미디어팀을 운영중이다. 사찰 차원에서는 이례적으로 교계 미디어의 뉴미디어팀과 맞먹는 수준이다. 주지 정념 스님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사중 스님들의 동참도 활발하다. 실시간 법회에서 뉴미디어팀이 댓글에 답해주고, 신행상담 등을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월정사 기획국장 월엄 스님은 "유튜브 채널이 무엇보다 산중 사찰의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 스님들도 흥이 나서 참여하고, 채널 운영 노하우를 배워 각자의 유튜브 채널 운영에도 나서고 있다"며 "이제는 실질적으로 사찰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홍보채널로 발돋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월정사는 향후 온라인 기도회원 1만 불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 기도법회, 그리고 명상프로그램에 동참하는 회원모임을 구성하고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행사에도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

이병섭 월정사 기획팀장은 "월정사 사중에서 기도 · 신행활동과 함께 전통문화 향유와 명상과 치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관심이 많고 그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월정사 유튜브 채널 활성화에 일조한 교무국장 자현 스님은 "비슷한 시기 만들어진 사찰 유튜브들이 채널 성장에 정체를 겪고 있는 와중에 지속적인 구독 및 시청자 상승세를 보이는 월정사 유튜브 채널은 모범적인 사찰 운영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현 스님은 개인 유튜브 채널 2개(자현 스님의 불교공부, 자현 스님의 쏘댕기기)를 운영하며, 22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스님 인플루언서다.

자현 스님은 "사찰, 특히 산중 사찰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모여야 몇천명 수준이지만, 온라인에서는 몇십만이 될 수 있다. 유튜브 채널 하나만 잘 키워내면 수말사 하나가 생긴 것 같은 포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불교계에서 모두가 뉴미디어라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적절한 대응, 그리고 방향설정, 꾸준한 투자 등으로 성과를 내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월정사 사례를 바탕으로 종단 차원의 뉴미디어 채널 활성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고성 옥천사, '찾아가는 마음약방 콘서트'

마가 스님, 취임식 대신 마련 눈길
10~12월 마지막 주 목, 경상대서



지난 8월부터 고성 옥천사 주지로 부임해 포교와 전법에 진력하는 마가 스님(자비명상 이사장)이 취임식 대신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화제가 되고 있다. 마가 스님은 10월~12월 마지막주 목요일 저녁 7시 경상국립대 대학본부 2층 대강당에서 '옥천사의 찾아가는 마음약방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마음약방 콘서트는 △10월 27일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의 '행복 알약 3종 세트' 법문과 불자가수 김무한 씨의 공연 △11월 24일에는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법문과 영화 '불효자' 상영, 붓다라마 최진규 씨의 공연 △12월 29일에는 해인사 상임포교사 광우 스님의 '나무아미타불! 노래하자' 법문과 비구니 가수 현진 스님의 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기존 법회의 틀에서 벗어나 마가 스님의 사회와 찬불가를 곁들인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과의 즉문즉답 시간도 이어진다.

고성 옥천사 주지 마가 스님은 "조계종 신임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포교와 전법은 이 시대 사부대중의 사명"이라며 "교구본사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께서도 임명장을 수여하시며 경남 서남권 포교를 활성화하고 불교계에 생기를 불어넣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 찾아가는 특별법회를 준비했다. 고성과 진주는 물론 영남 지역 불자 및 시민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마가 스님은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나누는 일은 우리 시대에 너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며 "옥천사가 마음약방의 총본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가 스님은 향후 창원과 고성에서도 마음약방 콘서트를, 옥천사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상설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마가 스님은 "그동안 지역 포교에 진력해온 옥천사는 앞으로도 마음약방 운영, 템플스테이, 청소년 명상캠프, 불교대학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과 초하루, 보름법회를 비롯한 다양한 법회로 불자들을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옥천사는 이와 함께 사찰의 대표적 유물인 옥샘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힐링캠프, 실직자를 위한 자기점검 명상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기획중이다. 특히 최근 화엄종주 여천당 무비 대강백으로부터 전법게를 받은 마가 스님은 11월부터 전법제자 10명과 함께 옥천사에서 〈보현행원품〉을 온오프라인으로 릴레이 강연도 진행한다. 한편 옥천사는 또 일제 강점기에 전개한 옥천사 스님들의 독립운동 선양사업도 적극 펼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태극기 그리기 대회, 애국가와 독립선언서 쓰고 외우기 대회를 곁들인 개산(676년 의상 대사 창건) 문화재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중앙신도회, 영호남 불교도래지서 행복바라미

백제불교최초도래지에서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펼쳐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주윤식)이 주최하고 2022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 행복바라미'가 10월 9일 영광 법성포 마라난타사(주지 청마)에서의 대축전을 시작으로 2022년 행사를 시작했다.

날마다좋은날은 10월 27일 조계사, 11월 13일 경북 구미 초전법륜지에서 '2022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을 이어간다.

이번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은 영호남 불교 뿌리를 찾고 성역화 하기 위한 첫발로 백제불교최초도래지와 신라불교최초도래지에서 문화축전을 개최하는 의미가 있다.

10월 9일 축전에서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행복바라미가 10주년을 맞아 코로나19로 지친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기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대축전을 펼친다"며 "영호남 불교 뿌리를 찾고 성역화하기위한 첫 발로 백제불교최초도래지를 찾았다"고 말했다.

중앙종회 부의장 만당스님(영광 불갑사 주지)은 축사에서 "행복바라미 축전의 문화공연과 나눔실천으로 위축된 마음을 날려버리고 나눔 축제로 축전을 이끌자"고 강조했다.

이날 법성포 해변 특설무대에서는 행복바라미 모금을 비롯하여 한두레마당예술단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노덕현 기자

4차 산업, 김원수 법사에게 '불교 역할' 듣는다

10월 29일 세종대 컨벤션홀서 특별강연
4차산업 시대 인간소외 해법 제시
불안과 위기 시대 지혜, 전략 모색



불교계 선지식인 '김원수' 법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 소외의 해법'을 주제로 특별강연한다. 백성욱박사 교육문화재단(이사장 김원수)은 10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대 컨벤션홀에서 김원수 법사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서 김원수 법사는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대량 실업과 양극화, 그리고 최근의 경제 문제 등 사회적 불안과 위기를 개인이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사회경제적 생활을 개척해나가기 위해서 佛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일상 언어로 실감 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강연은 약 2시간가량 진행되며 청중들을 대상으로 김원수 법사가 즉석에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참가비 무료. 김주일 기자

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대국민 공모전 시상식

10월 18일 개최… 사진 · 영상 · 일러스트 등 시상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아 진행된 대국민 공모전 대상에 김세웅(일러스트), 장성태(영상), 신다혜(사진), 성윤후(그림), 김도연(수필) 씨가 수상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이하 문화사업단)은 10월 18일 '템플스테이 20주년 대국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대상 수상자 시상식은 총무원장 접견실에서, 최우수상 등 수상자 시상식은 템플스테이정보센터 1층 홍보관에서 진행됐다.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아 열린 대국민 공모전에는 449점이 응모했으며, 심사를 거쳐 총 67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시상 직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템플스테이의 의미를 작품을 통해 표현해줘 감사하다. 템플스테이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만물은 나와 한몸”

‘관조스님 사진집 지상중계’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관조 스님의 유고 사진집 출간
앵글속으로 지혜의 법을 보다

1975년부터 30여년간 작업
총 20여만점 中 278점 엄선

대상과 바라본이 교감에 의지
사진 보는이 마음에 여운 남김

필터나 조명을 사용하지 않아
단순함과 담백함 가장 큰 묘미


①


②


③

① 2002년 해인사
② 1986년 운문사
③ 1995년 실상사
④ 2004년 다비식
⑤ 1994년 마곡사
⑥ 1994년 불갑사
⑦ 1994년 신흥사
⑧ 1994년 용문사 윤장대


④


⑤


⑥


⑦


⑧


1984년 성황당 모습.



사진집 〈관조〉
관조스님 문도회 엮음
불광 펴냄/15만원

사진집 〈觀照(관조)〉는 수행자이면서 사진가로 한국 불교사에 한 획을 그은 관조(觀照) 스님(1943~2006)이 1975년부터 30여 년간 찍어온 20여만 점 가운데 불교 관련 사진 278점을 엄선해 담은 유고 사진집이다. 〈관조〉는 20여 권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필름카메라로만 작업한 사진들로 이루어졌고, 주로 소재별로 나뉘었던 전작들과 달리 한국 불교의 모든 소재를 총망라했다.

관조 스님의 사진은 오로지 대상과 바라보는 사람의 교감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빛을 통과한 대상들은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프레임 속에서, 사진을 들여다보는 이의 마음으로 들어와 여운을 남긴다. 현란한 이미지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평범하고 꾸밈없는 차분한 응시’는 비범한 힘을 분출한다. 사진집 〈관조〉는 스님의 출가본사이자 평생을 주석한 부산 범어사 사진으로 시작한다. 속세와 탈속의 경계인 사찰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당간지주를 만나고, 곧이어 절집 전경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일주문과 천왕문을 지나면 열린 공간이 나타나고, 그곳에 어우러진 탑과 석등을 둘러본 후 대웅전을 포함한 각 전각을 살핀다.

그러고 나서 그 안의 불상, 탱화, 닫집, 문살, 수미단, 나한, 단청 등을 하나하나 보듬는다. 이어 수행자들의 일상 공간인 승방, 공양간 등의 사계절 모습을 들여다본 후, 다비식과 수계식을 비롯한 특별한 의식을 경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종, 부도, 탑비 등까지 두루 짚은 뒤에 다리를 건너 폐사지로 향하는 흐름이 〈관조〉가 인도하는 여정이다. 이 만행의 길에는 자연과 인간의 만화(萬化)가 숨쉰다. 종교를 넘어 수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준 큰스님들의 친근한 모습, 쉽게 볼 수 없거나 이제는 볼 수 없는 문화유산들의 소중한 모습들이 함께한다.

〈관조〉는 사찰이 자연과 어우러져 존재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사찰 속 전각과 탑 등의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그것들이 자연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자연과 하나되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진다.



관조 스님(1943~2006)은?

1943년 3월 19일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태어났다. 1960년 1월 15일 부산 범어사에서 지효 스님을 은사로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이후 1961년 4월 15일 범어사 금어선원에서 하안거를 시작으로 9안거를 성만하고, 1965년 7월 15일 합천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6년 해인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하고, 1971년 해인사 승가대학 제7대 강주로 취임해 후학을 양성했다. 1976년 부산 범어사 총무국장 소임 이후 일체의 공직을 맡지 않았다. 1978년부터 범어사에 주석하며 사진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30여 년간 전국 산사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는 운수납자의 길을 걸어왔다.

관조 스님 사진의 묘미는 필터나 조명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단순함과 담백함에 있다. 1980년 〈승가1〉을 시작으로 〈열반〉 〈자연〉 〈생, 멸, 그리고 윤회〉 〈님의 풍경〉 등 20여 권의 사진집을 출간했다. 그중 〈사찰 꽃살문〉은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서 한국의 아름다운 책 100선에 선정됐다. 〈아시안게임 경축사진전〉 〈한국일보 올림픽 문화행사 초청전시〉 등 10여 차례 전시회를 가졌다. 〈관조 스님 사찰 꽃살문 사진전〉(2003년)은 국립청주박물관 전시를 시작으로 광주 제주 춘천 부산 서울 등 ‘국립박물관 순회 전시’를 했으며, LA(1982년), 토론토(1991년), 시카고(1994년) 등 해외전시 외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다. 그리고 부산미전 금상(1978년), 동아미전 미술상(1979년), 현대사진 문화상(1988년)을 수상했다.

‘관조(觀照)’라는 법호대로 사진을 수행이자 포교의 방편으로 삼아온 사진작가 관조당 성국 스님은 지난 2006년 11월 20일 세수 64세, 법랍 47세로 범어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스님이 남긴 사진 필름은 20여만 점에 이르며 범어사 성보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중이다.

八戒 수지…청정 불자로 거듭나다

부산불교聯, 10월 16일~18일 범어사서 '2022 팔관회' 봉행

영유아 · 성인 등 모든 연령 동참
문헌에 따른 전통 수계 의식 재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보운)가 10월 16일 부터 18일까지 범어사 일주문 옆 광장 특설무대에서 '2022 팔관회'를 봉행했다.

팔관회는 신라 시대에 시작되어 고려시대까지 이어온 국가적 차원의 전통불교행사로, 처음에는 호국적인 성격에서 시작되었으나, 고려시대 들어서는 모든 백성들이 불교의 팔계(八戒)를 하루 낮과 밤 동안 엄격히 지키는 불교의식의 하나였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년 팔관회의 전통문화로서의 가치를 알리고 호국사상과 인간성 회복을 위한 운동으로 확장해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팔관회는 모든 연령을 총망라한 수계의식으로 눈길을 모았다. 부산불교연합회는 10월 16일 마정수기와 어린이를 위한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의 수계의식을 진행했다. 이번 마정수기는 지금까지의 팔관회 동안 처음으로 열린 것이며, 계를 받는 아이들과 부모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번 마정수기를 위해 회장 보운 스님은 자신의 가사를 소가사로 제작해 염주와 함께 영유아의 목에 직접 걸어주며 불자로 성장할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를 위한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수계법회에는 범어사 교무국장 해륜 스님, 삼광사 교무국장 덕중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사무부총장 대각 스님이 계를 설했으며, 선재동자는 어린이 팔계를 받고 청정하게 살아가는 불자를 서원했다.

성인을 위한 수계의식은 10월 18일 진행됐으며 내빈 70여 명이 현장에서 수계를 받았고 3000여 명의 수계자들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동참해 계를 받았다. 호국영령위령재와 함께 진행된 팔관재계 수계법회에서 수계자들은 전통 고려 복식을 입고 팔관회를 재현해 팔관회의 전통문화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대중에게 선보였다. 수계법회에서 전계대화상은 회장 보운 스님, 갈마아사리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교수아사리 상임부회장 마나 스님이 담당했으며, 백고좌 형태로 16증사가 계단을 증명했다. 이번 3화상 16증사는 모든 불교 종단의 스님들이 동참해 화합의 장으로 평가받았다.


부산불교연합회가 10월 16일 부터 18일까지 범어사 일주문 옆 광장 특설무대에서 '2022 팔관회'를 봉행했다.

10월 17일에는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호국기원법회를 봉행했으며,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법회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호국기원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고불문 낭독 △호국기원기도 봉독 △봉행사 △축사 △대회사 △축가 △사홍서원 순서로 진행됐으며 회장 보운 스님,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상임부회장 진광 정사를 비롯해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보운 스님은 "팔관회는 역사의 기록으로만 존재하고 있었으나 부산불교연합회가 유일하게 팔관회의 역사를 고증하고 재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수계법회로서의 여법한 의식을 계승함과 동시에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불교축제의 장으로서 팔관회를 계승하고 있다"며 "천년 만에 복원된 팔관회가 부산에서 다시 20년이 넘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앞으로도 팔관회의 가치를 전하고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계승 · 발전시켜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 피우는 데 힘써 나갈 것"이라 밝혔다.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은 "팔관회를 통해 어렵고 힘든 시기가 빨리 마감되어 국가의 번성과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 유치가 성사되기를 불교계가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나가야겠다"며 "더불어 소통의 마음을 통해 화합하고 사회와 이웃을 위한 자비의 정신을 실현할 때 팔관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팔관회는 신라 시대 진흥왕 12년부터 시작했다. 진흥왕은 전몰장병을 위해 팔관법회를 외사(外寺)에 베풀어 7일 동안 행했다는 내용이 〈삼국사기〉와 〈신라본기〉에 기록되어있다. 팔관회는 고려 시대까지 이어졌으며 국가비보를 위한 호국법회로 발전됐다. 이후 문헌에 따라 2000년 10월 28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제1회 팔관회가 진행됐으며, 이후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년 팔관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재현함으로써 호국사상과 인간성 회복운동을 펼치고 있다.

울주 태화선원, 제1회 태화국화문화축제



울주군 태화선원(주지 명본)이 10월 15일 경내에서 '제1회 태화국화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축제에는 태화선원 주지 명본 스님, 팔공산 갓바위 前 주지 법성 스님, 김미강 태화선원 신도회장, 청정화 백양회 회장, 김자이 자비회 회장, 신혜경 언양시니어 클럽 관장, 양은주 대안공방 원장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시예불 △주지 스님 인사말 △망깨 공연단 국악한마당 △치유의 소리(싱잉볼) 순으로 진행됐으며 천 아트 및 기와그림아트 등 특별전시도 이어졌다.

주지 명본 스님은 "가을을 맞아 산사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 볼거리와 공연을 마련했다"며 "좋은 가을 하늘 아래 국화 향기와 더불어 즐겁고 쉼이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 장안사 도로명 주소 '장안사로 108'로

환경수호 동참 지역민 염원으로
10월 11일, 도로명 주소변경 확정
11월 4~13일 장안사 국화축제


천년고찰 장안사 주소명이 '장안로 482'에서 '장안사로(長安寺路) 108'로 변경됐다. 사진은 장안사 전경.

천년고찰 장안사(주지 무관)의 도로명 주소가 '장안로 482'에서 '장안사로(長安寺路) 108'로 변경됐다.

장안사 주지 무관 스님은 10월 19일 장안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안사 도로명 주소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안사의 도로명 주소 변경은 장안읍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섰고, 10월 11일 도로명 주소변경이 확정됐다. 특히 변경된 주소에 사찰명과 함께 불교적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숫자 '108'이 들어 있어 그 의미가 또한 적지 않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은 지난해 2021년 6월 장안사 인근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사업 계획으로 몸살을 앓았다. 장안사 주지 무관 스님은 사업계획이 알려진 시점부터 단식도 불사하겠다는 다짐으로 기장군 산업폐기물 반대 장안읍 대책위원회와 함께 매립장 설치 사업 철회에 앞장섰다. 이후 2021년 10월 12일 산업폐기물 매립장 민간사업자는 사업 계획을 철회했고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사업 계획은 무산됐다. 이번 도로명 변경에 지역주민이 직접 나선 것은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사업 철회 성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발원이라고 할 수 있다.

무관 스님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장안사의 도로명 주소변경은 기장을 청정지역으로 수호하겠다는 기장 군민들의 의지가 담겼으며, 기장을 대표하는 천년고찰 장안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이미 부여된 도로명을 사찰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극히 힘든 일이다. 이번 도로명 변경을 위해 종교가 다른 지역주민들도 함께 뜻을 내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민들의 청정 환경 수호의 염원이 담긴 것으로 알고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사찰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안사는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경내 일원에서 '장안사 국화축제'를 개최한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농민을 위한 상생의 축제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동안 국화분재 작품 100여 점과 국화 화분 300여 개가 도량을 장엄하며 시민들을 맞을 예정이다. 개막식은 11월 4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주지 무관 스님을 비롯해 정종복 기장 군수 등 내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마음치유 여행 프로젝트

치유 순례길 '걷고, 묻고, 답하다'
힐링토크콘서트 '마음溫(온)' 개최
템플스테이 10월 8일~12월 진행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 템플스테이 사무국은 '쉼, 그리고 어루만짐' 마음치유여행을 주제로 새로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번 템플스테이 주제를 위해 통도사는 순례와 치유를 테마로 쉼을 제공하며, 사회 주요 명사들을 초대해 힐링토크콘서트 '마음溫(온)'을 개최한다.

△치유순례길 '걷고, 묻고, 답하다'

통도사 치유순례길 '걷고, 묻고, 답하다'는 무풍한송로를 직접 걷고 성보박물관 및 불교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또 산내 암자를 순례하며 암자마다 가지고 있는 숨은 이야기를 접하고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만끽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또 참가자들은 직접 차를 따고 덖고, 마시는 차밭 체험을 경험할 수 있으며 오감을 바르게 일깨우며 참 나를 찾아가는 오감 체험 명상 프로그램 및 산사 힐링 콘서트도 선보인다.

템플스테이 참가대상자는 전역자, 대학휴학생, 육아휴직자, 퇴직자, 코로나 의료진, 다문화가족(아동 포함), 봉사단체로 제한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8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1박 2일(토, 일)과 2박 3일(금, 토, 일) 중 선택할 수 있다.

△힐링토크 콘서트 '마음.溫(온)'

명사초청 힐링토크콘서트 '마음.溫(온)'은 종교계의 명사를 초청해 강의와 토크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힐링토크콘서트는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총 3회 운영될 예정이며 10월 19일 양산시문화예술회관에서 첫 콘서트가 진행됐다. 첫 콘서트에서는 문광 스님이 '힘 빼고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문광 스님은 2001년 해인사 원당암에서 출가해 현재 조계종 교육아사리이자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 연구교수에 재직 중이다. 힐링토크 콘서트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 비용은 무료이다.

예약은 홈페이지 (http://templestay.tongdosa.or.kr)에서 가능하다. 055-384-7085.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광사, 장학금 전달

10월 13일, 장학금 6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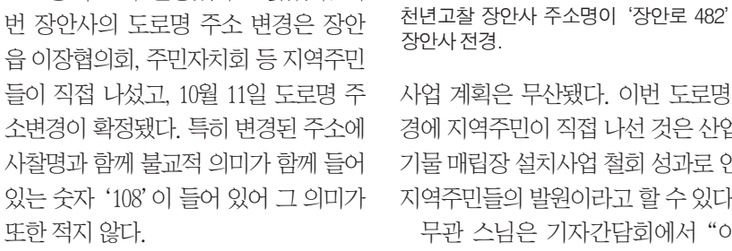


인재불사 도량 백양산 선광사(주지 성문)가 10월 13일 경내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선광사는 인근 대덕여고 학생 20명에게 장학금 6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전달식에는 주지 성문 스님, 장제원 국회의원, 이동형 대덕여고 교장, 윤숙희 사상구의회의장, 이종구 사상구의회 부회장, 심인택 사상구연합회 신도회장을 비롯해 사부대중 30여 명이 동참했다.

성문 스님은 "선광사를 창건한 지 21년이 되었다. 인재불사는 선광사 불사 전부터 시작해 올해 22년을 맞았다"며 "다이아몬드도 원석일 때는 가치가 없고 잘 다듬어야 가치가 있는 법이다. 여러분들은 아직 채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은 존재이다. 본인이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갈고 닦아 다이아몬드와 같은 1등 인재가 되시라"고 격려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녹색복지관 선포



녹색복지마을 구축 및 네트워크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류강렬)이 환경을 보호하는 녹색복지마을 구축을 위해 부산불교환경연대 및 지역 사회시민단체와 협약했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10월 14일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부산불교환경연대와 협약 및 현판전달식을 진행했다.

이어 부산진구청, 부산불교환경연대, 부산경실련,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산진구 등 지역 사회시민단체와 네트워크 협약 및 녹색복지관 선포식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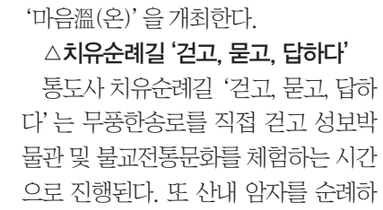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시민단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뜻을 모아 '녹색 복지 마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협약으로 의미가 있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류강렬 관장은 "우리 복지관의 녹색복지관 선포가 시작점이 되어 부산진구를 넘어 부산시 전체에 녹색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협력을 통해 신바람 나는 친환경 엔진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녹색복지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EM만들기 및 찾아가는 급식소, 재활용 활용 거리 등을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인종, 제5회 법계고시 회향법회 봉행

10월 15일, 총무원 낙은사 법당서



사단법인 대한불교해인종(종정 혜지 대종사, 이하 해인종)이 10월 15일 총무원 낙은사 법당에서 법계고시 회향대법회를 봉행했다.

해인종의 법계고시는 창종 3주년 되던 2002년에 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5회를 맞아 20년 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법계고시는 9월 14일 원서 마감 후 9월 15일 시험을 실시했으며, 연구보고서는 10월 5일 접수 마감 후 10월 14일 심사해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해인종은 특별심의를 통해 원경 대호 총무원장을 대종사로 추대했으며 법랍 30년 이상의 1급 종사에 대호 스님(약천정사 주지), 승공 스님(칠보사 주지, 비구니), 보원 스님(보원사 주지, 비구니) 3명과 2급 종덕 7명, 3급 대덕 4명, 4급 종덕 1명, 5급 대선 1명 등 총 16명의 승려에게 법계증서를 수여했다. 법사로는 1급 수혜사 2명, 2급 사혜사 1명, 3급 문혜사 1명이 품서되었다. 그리고 법봉 스님(사천 천황사주지)의 〈석가모니 일대기 연구〉 연구보고서가 장원으로 채택됐다.

종정 혜지 대종사는 법문으로 '관세음보살' 찬불가를 부르며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 원력을 찬탄하고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되겠다는 서원으로 정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사상구연합회 회장 성문 스님은 "오늘 품서 받으신 스님들께 축하를 드리며 중생에게 이익되는 보살행을 하시는 큰스님이 되시기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한편, 낙은사는 법당 불사에 기여한 김인출 지구건설 부사장, 이연수 금화불교미술원 대표(탱화), 박둘아 부산경찰청 불자에게 공덕패를 전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생명나눔 부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부산 불교계 최초로… "불필요한 연명치료는 비극"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가 부산 불교계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본부장 심산 스님은 10월 13일 홍법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는 연명치료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극"이라며 "생명의 존엄성은 삶과 죽음을 통해 배운다. 인생의 마지막을 존엄성을 간직한 채 맞이하는 건 생각해볼 문제"라고 의의를 전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가 임종을 맞이할 때 임종기간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시술(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에 대하여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심산 스님은 "제도의 필요성이 있지만 유교적 훈습에 익숙한 한국 사회에서는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홍보를 통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또 부산에 있는 불교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지정된 것은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불교의 사명을 생각할 때 무척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은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후 상담을 받아 내용을 숙지하고 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다. 단 철회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등록 후 확인은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 혹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8월 26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 전국 불교계 가운데서는 여성개발원과 울산 정토마을 관자재요양병원에 이어 3번째이며 부산 불교계에서는 최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모은중경〉 효사상 축제로 전해요”

전주 금선암 10월 16일 금선 보은문화제 개최

전주시 성금 1000만원 전달
효자효녀 5명에 효행상 시상
복지시설 등에도 후원금 전달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금선암은 10월 16일 완산생활체육공원서 금선 보은문화제를 개최했다.

전북무형문화재 270호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목각본을 보유하고 있는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이 효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제2회 금선 보은문화제’를 개최했다.

10월 16일 완산생활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이날 금선 보은문화제에는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 완주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금산사 종회의원 당선자 각진 스님, 익산 정각사 일행 스님 등 스님들과 우범기 전주시장, 완산지역 전북도의원과 전주시의원 등 지역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금선암과 금선암 자비공덕회 주관으로 〈불설부모은중경〉 가르침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2번째 열린 금선보은문화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민심을 부처님의 지혜로 치유하고 다시 희망이 꽃피는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보은문화제에서는 ‘전북무형문화재 63호 전주기접놀이’ 중 판놀이를 비롯해 효행상 시상, 후원금 전달, 이웃돕기 성금 전달, 문화공연, 전주 기접놀이 ‘얼쑤~ 끝판까지 놀자’ 등이 진행됐다.

보은문화제에 참석한 전주시 삼천동, 평화동 주민 500여 명은 금선암에서 마련한 다과와 푸짐한 음식, 신바람나는 노래와 춤으로 구성된 문화공연을 함께 즐기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날 금선암과 금선자비공덕회는 평소 부모님과 웃어른을 존경하고 효행을 실천하고 있는 임현선, 주현진, 한지연, 김경은, 경다혜 씨 등 5명에게 효행상을 시상했다.

부상으로 성인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의미하는 순금목걸이가 증정됐으며 청소년에게는 장학금 50만원이 수여됐다.

이어 성금 1000만원을 우범기 전주 시장에게 전달했으며 복지법인 정심원, 백련마을, 정각사 각복지센터, 전주기접놀이 보존회에 각각 2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은 “〈불설부모은중경〉 가르침을 토대로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길이 어떤 길인가 고민해 왔다. 효 문화가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으니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소박한 음식과 문화공연을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은 “우리는 늘 알게 모르게 주위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도 갖지 못한다”며 “자연, 이웃 등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란다.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생각을 느끼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문화공연에는 국악인 안선희 씨 등 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출연해 흥겨운 민요와 가야금 병창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가수 박인경의 가요 공연, 각설이 품바공연, 노래하는 스님 진성 스님 공연, 민요메들리가 이어졌다.

또 행사장 주변에는 쌍화차, 대추차 등 전통차 나눔, 마들렌쿠키, 팥빙수, 커피, 음료수 제공 부스가 마련됐으며 여영만 한의학 박사와 포교사단 건강바라밀 봉사팀의 엄지건강 봉사도 진행됐다.

김제 금산사 1423주년 개산대재 봉행

10월 15일 1000여 명 운집
도영 스님 “안심입명도량으로”


김제 금산사는 10월 15일 개산 1423주년을 맞아 10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백제 법왕 원년(599년) 백제 왕실의 자복사찰로 창건된 이래 역대 조사들의 중생구제 원력이 스며있는 김제 금산사가 개산 1423주년을 맞이했다.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는 10월 15일 금산사 개산 1423주년을 맞아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기념법회와 보살계 수계식, 모악산 숲속음악회, 만등점등법회, 창작소리극 ‘떴다, 물에가 풍’ 공연 등 다채로운 개산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봉행된 기념법회는 명종 5타를 시작으로 육법공양, 삼귀의례, 한글반야심경, 연혁보고, 대회사, 기념법어, 축사, 발원문 낭독, 보살계 수계식 순으로 진행됐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일심의 근본자리를 깨우쳐 부처의 참모습을 보고, 인류의 행복과 세계평화 그리고 국가와 민족과 사회를 위하여 일생동안 부단히 보살행을 실천하자”고 말했다.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은 법어를 통해 계빈국 국왕 설개두가 부처님화상에서 설법을 듣고 정사 건립 원을 세운 일화를 설한 후 “재물을 탐하고 이웃과 경쟁하고 성내고 좌절하는 중생놀음으로는 지렁이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과 같이 부질없는 짓”이라며 “능히 놓아버림으로써 법과 마음에도 매이지 않고 해탈할 수 있다”고 설했다.

남궁선 금산사 신도회장은 “부처님의 가피를 바라기 전에 먼저 실천하고 스스로 부처가 되어야 한다”며 “금산사 개산대재가 불교를 아름답게 장엄하는 즐거운 축제가 되기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 정성주 김제시장과 우범기 전주시장도 금산사 개산1423주년을 축하했다. 기념법회 후에는 도영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도법 스님을 갈마아사리, 평상 스님을 교수아사리로 모시고 보살계 수계법회가 진행됐다.

또 점심공양 후에는 미륵전 앞 특설무대에서 모악산 숲속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음악회에는 가수 남궁옥분, 소프라노 김지수, 가수 김용진, 국립창극단 김유정, 퓨전국악밴드 조선블루스가 출연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다. 또 심청전을 새롭게 해석한 창작소리극 ‘떴다 물에가 풍’ 공연과 만등점등법회를 끝으로 개산대재는 마무리 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창원 성주사, 산사문화음악제 눈길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는 10월 15일 불모산 성주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산사문화음악제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음악제에는 성주사 법안 스님, 한가람문화재단 원정 스님, 정인사 원행 스님, 불곡사 도홍 스님, 석봉암 월봉 스님, 구룡사 무성 스님, 천웅사 성우 스님, 반야사 혜명 스님, 미타사 선해 스님, 은하사 혜진 스님, 부산불교대학 범혜 스님, 고불사 정오 스님, 창원사암연합회 스님 등 스님들과 가톨릭 마산교구 백남해 신부, 박완수 경남도지사, 강기윤, 김영선 국회의원, 구준호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이순 성주사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법안 스님은 “음악제에서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그윽한 가을 정취 속에 심신을 치유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가장 큰 행복은 마음의 건강”이라며 “음악회에서 힐링의 기회를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거제 계룡사 천왕문 준공 및 보살계 수계법회



거제 계룡사는 10월 16일 거제 계룡사 천왕문 광장에서 천왕문 준공식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거제 계룡사(주지 선안)는 10월 16일 거제 계룡사 천왕문 광장에서 천왕문 준공식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계룡사 선암 스님, 봉국사 현근 스님, 도성사 도천 스님, 무상사 학릉 스님, 선광사 선룡 스님, 삼보사 석현 스님, 감은사 만경 스님, 윤성원 신도회장, 서일준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선암 스님은 인사말에서 “계룡사 천왕문 준공과 함께 보살계를 받아 그 인연으로 행복한 삶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증명법사 현근 스님은 “생명이 있는 대상에게 마음과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계를 잘 지키는 것”이라며 “생명이 내 마음을 담고 다니는 그릇임을 믿고 오계를 잘 지켜 지혜롭게 생활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윤성원 신도회장은 “계룡사 천왕문 준공은 불자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준공을 계기로 계룡사가 거제불교 한축이 되어 불교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가야 초기 불교 전래 규명에 박차”

가야문화진흥원 10월 15일 제7회 학술발표회 개최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도명)은 10월 15일 동명대 인도문화연구소(소장 장재진), (사)한국인도학회(회장 최종찬)와 공동으로 김해 가야대 대강당에서 제7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제7회 가야문화 원형탐색과 콘텐츠화 학술대회’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발표회는 가야사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는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장의 ‘가야의 건국설화와 건국정신’ 주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총 4가지 주제 발표와 논평이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의 ‘가야불교의 보살계에 관한 고찰’, 해인사 율학승가대학원장 금강 스님의 ‘가야불교와 가야산’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 스님은 “가야 문화 복원을 서원한지 어느덧 7년이 지났다. 가야 정신문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야 초기 불교 전래를 규명하는 학술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가야사를 자랑스러운 민족의 역사로 널리 알리고 식민사관에 맞서 가야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가야문화진흥원의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며 “김해시도 가야문화진흥원과 손잡고 가야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하했다.

최종찬 한국인도학회장은 “허왕후가 인도와 가교역할을 한 것처럼 가야사가 한반도 문화 형성의 중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유튜브불교대학, 16일 감포에 승보상 봉안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부설 유튜브 불교대학은 10월 16일 감포도량 세계명상센터에서 11층 공덕대탑 사경봉안 및 희망의 승보상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회주 우학) 부설 유튜브 불교대학은 10월 16일 감포도량 세계명상센터에서 11층 공덕대탑 사경봉안 및 희망의 승보상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회주 우학 스님은 “사경은 기쁜 마음과 편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편지를 쓰는 것”이라며 “1년에 두 번 부처님께 마음을 전하는 봉안법회를 매년 4월과 10월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승보상을 언급하며 “오늘날 스님들의 위신이 많이 떨어졌다. 예경하는 마음을 갖자는 의미에서 불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감포도량은 세계명상마을 설립을 목표로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포교를 위해 유튜브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13만명 불자가 가입해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제15회 복운축제’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은 10월 13일 개관 15주년을 맞이하여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제15회 복운축제’를 진행했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대원)은 10월 13일 개관 15주년을 맞이하여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제15회 복운축제’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사랑과 즐거움이 있는 다시 찾고 싶은 복지관’ 슬로건 하에 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 대표이사 경우스님, 지역사회 기관장 및 지역주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식전공연으로는 고창농악보존회의 ‘사자놀이’가 진행됐고 1부 기념식에는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흥덕면 ‘세대공감 나눔바자회’ 후원금 전달식, 15주년 기념 떡케익 컷팅식 등이 이어졌다.

한편,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은 △선운사복지재단 공로상에 이대주(운전원), 소미숙(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 등이 수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

안동시장애인복지관 유권자교육 실시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륜)은 10월 18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유권자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장애인 유권자 교육에서는 경상북도선거관리위 정영숙 강사가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권의 의미와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유권자로서 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 향후 장애인 권익옹호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방글라데시 불교, 10년째 끝나지 않는 아픔

2012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해킹 개정 오인으로 불교 겨냥
가해자 후속조치 10년째 요연
법원 미온적 태도 비판 들끓어

박영빈 객원기자


2012년 당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 훼손된 불상들. 사진출처=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방글라데시 남동부 콕스 바자르 지구의 라무마을에 사는 불교도들에 대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집단 테러를 가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 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와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심판에 큰 진전이 없었고, 방글라데시 불교계는 여전히 아픔을 겪고 있다. 10월 14일 'UCA 뉴스'와 '더 데일리 스타' 등 외신들은 방글라데시 불교의 아물지 않는 상처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2012년 9월 29일, 방글라데시의 이슬람 극단주의자 단체는 라무지구의 한 불교도 청년이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을 모욕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 후 극단주의자들이 지역 불교공동체에 대해 집단 테러와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더 데일리 스타'는 경찰 측의 조사를 인용해 "SNS에 공유되던 사진은 포토샵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교도 청년의 SNS 계정 역시 해킹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당시 테러로 라무지구에서만 19개 사찰이 방화 등으로 파손됐고, 26가구의 불교도 가정이 약탈과 폭행을 당했다. 치타공 지구에서도 불교사원과 힌두교 사원을 겨냥한 기물파손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방글라데시 정부는 파손된 건물과 가옥을 재건했고, 이듬해엔 방글라데시 총리 셰이크 하시나 와제드의 후원하에 여러 불교사원들이 중창됐다. 그러나 실제 중요한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심판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라무지구에서 당시 피해를 입었던 프라갸난다 스님은 "사건은 10년 전에 일어났지만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슬람교도들의 편을 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라무지구의 불교단체들은 지난 9월 29일, 테러피해 10주기를 추모하는 평화행진을 진행하고 정부에 정의를 요구했다. 프라갸난다 스님은 "우리에게 진전이 없다. 정의가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현재 재판을 맡고 있는 파리둘 알람 지방검사는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피해자의 많은 이웃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한 확증적인 증언들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법원에 따르면 해당 테러 건에 관하여 신원이 불분명한 1,500명 이상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해 총 19건의 형사사건이 신고 됐으며, 이중 378명이 기소됐다. 방글라데시 경찰은 이후 18건의 사건에서 1,020명을 기소했으나, 해결된 것은 현재 단 1건이다.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는 현재 방글라데시 사회에서도 비판받고 있다. 이미 라무지구 법원은 직무유기라는 지역사회의 청원을 받은 대법원의 권고로 재판부를 한차례 재구성한 바 있으나 여전히 많은 사건들이 법정에 계류되어 있다. 현지 언론들은 "지금 절차가 중단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무의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는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가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촉구했다.

국제불교연맹, 아미달마의 날 컨퍼런스 성료

인도 노이다서 모디 총리주도로
영상 시사회·연구소 발표회 열려


'아비달마의 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패널들이 '아비달마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국제불교연맹(IBC)이 '아비달마의 날'을 맞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11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국제불교연맹이 주최한 아비달마의 날 기념 컨퍼런스 개최 소식을 전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인도정부의 후원을 받아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국제불교연맹은 부처님께서 도리천으로 올라가 어머니 마야부인을 만나 가르침을 설한 후 자신이 인간세계로 돌아온 날을 '아비달마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남방과 북방에 따라 그 시기는 다르지만 부처님께서 천상에서 설하신 가르침이 아비달마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현재 국제적으로 아비달마의 날은 남방달력으로 7월 보름이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불교연맹과 인도 가우탐 붓다 대학교는 국제 아비달마의 날 행사를 조직했으며, 등과 꽃 공양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행사의 주빈인 미얀마 시타구 국제불교학교 총장 아신 나니사라 사야도 스님은 "국제불교연맹이 마련한 이 자리에서 아비달마 연구에 대한 지식을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면서 "아비달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과 사유이다"라고 아비달마 연찬과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리랑카 대표 중 한 명인 와스카두웨 마힌다완사 스님은 "오늘 우리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하는 인도정부의 지원 아래 우리는 인도에서 불교가 다시 부흥하는 것을 목격 할 수 있다"며 인도정부가 불교의 부흥을 위해 노력해 주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이날 주요행사로는 '아비달마의 중요성'에 대한 패널토론과 연구서 '인도 아비달마 연구의 최근 발전' 출간발표회가 있었다. 또한 국제불교연맹에서 진행 중인 룸비니 프로젝트에 대한 짧은 영상 시사회도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국제불교연맹은 국제기구 및 기관, 국가 및 지역 연합, 본말사를 포함한 320개의 사찰 및 불자 회원들이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부탄, 제 4회 국제 금강승불교 컨퍼런스 개최

10월 1~4일 '불교의 현대성' 주제
37개국서 300명 이상 참석 성황


팀푸에서 개최된 제 4회 국제 금강승불교 컨퍼런스에 참석한 참가자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티베트 불교문화권으로 불교 가르침을 전통문화의 중심에 두고 있는 불교국가 부탄에서 제4회 국제 금강승불교(金剛乘, Vajrayana Buddhism)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규제로 3년간 연기됐다가 열린 것이다. 10월 12일 국제불교뉴스 전문포털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부탄에서 열린 이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에 대해 보도했다.

부탄의 수도 팀푸에서 지난 10월 1일부터 4일간 열린 국제 금강승불교 컨퍼런스는 '불교의 현대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금강승 불교란 후기대승불교의 한 맥인 밀교의 다른 이름으로 힌두교나 다른 인도종교의 밀교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이름이다. 이 컨퍼런스는 부탄불교의 총본산인 슝 다창(Zhung Dratshang) 사원과 부탄학-GNH 센터(CBS)가 공동 주최했으며, 인도 국제불교연맹의 지원을 받았다.

CBS는 부탄정부로부터 부탄 고유의 개발사상인 국민총행복(GNH)과 관련된 연구 및 활동을 수행하고 조정하는 국립기관이다. GNH는 불교의 가르침과 전통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도 주목받는 사상이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부탄을 포함해 37개국에서 300여명 이상의 참석자들이 참석했다. 토의되고 발표된 내용은 주제 맞게 21세기 삶에서 금강승불교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다뤄지는 분야들 역시 사회, 환경,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상황들이 예시로 다뤄졌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AI와 디지털 기술, 생태와 환경에서 불교가 어떻게 사회적인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여성수행자와 관련된 주제들도 심도 깊게 다뤄졌다.

CBS의 다쇼 카르마 우라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의 중요성에 대해 "금강승불교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며 인간사회와 그 전개를 수행의 영감과 통찰력의 원천으로서 활용한다"며 금강승불교는 그 어떤 가르침들 보다 현대사회에 적합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날 여러 문제에 대해 불교는 그 고유의 방향과 관점을 제시하고, 그런만큼 다양한 분야와 방향에 복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며 불교가 결코 현대에 떨어진 가르침이 아니라고 전했다.

컨퍼런스를 공동주최하는 슝 다창 사원측도 "불교에서는 본질적으로 모든 법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지혜와 그것을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편의 수행을 가르친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것들을 세계화하고, 또 새로운 관점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라며 불교의 지혜로 코로나19의 위험한 시국을 넘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특별히 165m의 세계 최장 서예 기록을 보유자인 인도 출신의 서예가 잠양 도르제 차키샤르의 작품도 함께 전시됐다. 컨퍼런스 측은 "이번 전시를 통해 예술적인 활동도 불교수행의 일환으로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본성을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泰, 하안거 회향…천신·아수라 행렬 재현

10월 10일, 대중공양 등 봉행


재가신자들의 공양을 받는 스님들. 사진출처=파타야메일

지난 10월 12일 태국 지역 일간지 '파타야 메일'은 파타야의 하안거 회향법회 봉행 소식을 전했다. 파타야 지구의 불자들과 스님들은 하안거 해제를 기념하여 대중공양과 화려한 행렬로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10월 10일 태국 촌부리 주 왓 차이몽콜 사원의 부주지인 프라 흐루라차산 소폰 스님은 남파타야 사원에서 하안거 해제일인 '아욱 판사'와 부처님께서 도리천으로 올라가 어머니 마야부인을 만나 가르침을 설한 후 다시금 인도의 샹캬샤를 통해 중생들에게 돌아오신 날을 기념하는 '탁 밧 데보'의 법회와 행렬을 이끌었다.

이 두 날은 태국에서 전통적으로 재가신자들이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날로 여겨지며, 하안거 해제에 맞추어 동시에 기념한다. 태국에서는 이날 부처님께서 지상으로 돌아오실 때 천신과 아수라들의 시봉을 받으며 내려오셨다는 전설에 따라 각각 천신과 아수라로 분장한 불자들의 행렬을 봉행한다.

먼저 천신으로 분장한 불자들은 사찰에 모인 대중들의 번영와 축복을 기원하며 사람들의 머리 위로 쌀과 꽃을 뿌렸다. 아수라로 분장한 불자들은 보시금을 받아갔다. 마지막으로 하안거를 마치고 나온 대중스님들이 행렬을 뒤따랐다.

불자들은 스님들께 식사, 사탕, 과일, 향 등을 공양 올렸다. 스님들은 공양을 받은 후 법문을 하고 발우에 물을 담아 대중들에게 뿌리며 건강과 축복을 기원했다. 이날 동일한 행렬과 행사들이 41개 지역 사찰에서도 봉행됐다.

이날 올려진 공양물은 코코넛 잎으로 감싼 찰밥인 '카오 땀 룩 요니'라는 음식이다. 이는 부처님께서 인간계로 돌아오셨을 때 먼발치에 있던 불자들이 부처님의 발우 안에 공양물을 넣기 위해 밥을 둥글게 말아 던졌다는 것에서 유래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농선 대원 선사의
대방광불화엄경 81권
완역본 출간기념
할인 판매

수덕사 만공선사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혜안으로 전등록 30권과 선문염송 30권을 역해하고 1,463칙 전 공안에 착어를 하신 바 있는 불조정맥 제78대 농선 대원 선사께서 81권 화엄경과 화엄경의 이해를 돕는 각 품의 요점을 요약한 소책자까지 드디어 출간 완료하였습니다.

불교 경전의 정수에 해당하는 화엄경 81권 완역 출간을 기념하여 81권 세트 121만원을 할인된 금액으로 100만원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차후로는 지면을 통한 화엄경 추가 출간 계획이 없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문젠 010-3880-8980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19~10/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담마빠다:진리의말씀붓다의지혜(법구경)	화령 역주	운주사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무비스님이가려뽑은불교명구365(전2권/세트)	무비 지음	불광출판사
4	주경야선:가행정진으로재가자도성불할수있다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5	낡은옷을벗어라:법정스님미출간원고68편수록*법정스님원적10주기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6	입보살행론:지복에이르는보살의길+낭송CD	샨티데바/석혜능	부다가야
7	디가니까야(2)길게설하신경	각묵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8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	김원수 지음	청우당
9	불법의대들보마음챙김(붓다의고귀한길따라)	활성	고요한소리
10	반야심경무슨말을하고있나:산스크리트어본과8종의한역본	관정	알아차림

책세상

무애의 붓끝으로 깨달음 그림자 그리다



선화와 선시

선화 김양수/역 석지현

민족사 펴냄/2만6,800원



김양수 화백



〈석양〉22.2x15.5cm, 한지에 수묵담채화



〈강설〉19.2x13cm, 한지에 수묵담채화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국적 선화 지평 넓힌 김양수 화백과
선시 번역 대가인 석지현 스님의 만남

62편의 선화와 선시, 4장으로 나눠 편집
법련사 불일미술관서 수록된 선화 전시회

〈선화(禪畵)와 선시(禪詩)〉의 김양수 화백은 삶의 근원을 찾아 수행하며 깨달음의 세계를 그리는 선화가(禪畵家)로 유명하다. 김양수 화백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내가 그림 속에 앉아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새도 되었다가, 소나무도 되었다가 때론 거대한 산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그의 그림은 삶을 꿰뚫고 있다. 이런 그에게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마음자리를 좇아 여행할 기회가 주어졌다.

민족사 출판사가 3년 전 기획한 '선화와 선시의 만남' 이다. 선화와 선시라는 예술과 문학의 만남은 '선의 세계' 를 훨씬 더 편안하게 다가가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에는 김양수 화백과 석지현 스님과의 오랜 인연이 있었다.

두 분은 사랑방처럼 민족사에 자주 들러 차를 마시면서 '선화와 선시의 만남' 에 대해 이야기하며 의기투합, '선화와 선시의 만남' 을 기획해 이번에 3년 만에 출간하게 되었다. 석지현 스님의 선시 내용에 맞춰 김양수 화백이 그림을 그린 것이다. 석지현 스님은 196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된 이후, 70년대 문학에서 '선시' 라는 장르를 개척했으며, 특유의 감각적 시선과 자신만의 색채로 작품을 새롭게 읽어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전통 선시를 번역 해설한 작가 중 가장 빼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양수 화백은 책의 머리말을 통해 "잔잔한 물처럼 고요함 속에서 붓 끝에 혼을 모아 고승들의 울림을 따라 나섰지만 무명속에서 헤매기도 했다"며 "그 길 위에서 참회하며 눈물로 먹을 갈아 선사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인연이었다"고 고백했다.

진옥 스님(석천사)의 추천사를 보면 '선화' 의 개념을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진옥 스님은 "선화는 선화라는 프레임도 거부한다. 선화에 갇히면 이미 선화가 아닌 죽은 그림이다. 소재에도 있지 않다. 대상이나 기법에도 있지 않다. (중략) 마음의 그림이지만 그것마저 표현일 뿐인 것이 선화이다. 흑자는 마음대로 그리거나 제멋대로 하는 것에 선화라는 이름을 붙이나 양두구육에 불과하다. 선화는 깨친 사람이 나를 비우고 욕심을 버린 선의 상태에서 관찰된 대상의 마음 그림자를 그린 그림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선화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선의 세계, 곧 깨달음의 세계를 그린 것이다. 그런데 진옥 스님의 말에서도 엿볼 수 있듯 선화는 선화라는 프레임도 거부한다. 진옥 스님은 이 책에서 "깨친 사람이 나를 비우고 욕심을 버린 선의 상태에서 관찰된 대상의 마음 그림자를 그린 그림"이라고 하면서 선화가인 김양수 화백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책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선화를 통해 마음의 평온을 선사해 준 김화백의 내공이 선화 속에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김양수 화백은 이 책의 선화를 그리며 "제 그림이 기존 선화와 다르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색채도 화려하고 흔히 선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여백도 많이 주질 않았다"라며 "제가 생각하는 선화는 집안에 제 그림을 걸어놨을 때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수 있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고 설명했다. 또한 "흔히 선화라면 달마도도 그리는데 이번 책에서는 한점도 그려넣질 않았다"며 "지난번 통도사 전시에서는 달마도를 그렸는데 기존의 무섭고 근엄한 표정이 아닌 해학적이고 재밌는 달마도를 그렸더니 관람객들이 좋아했다"며 "한국의 서정성에는 해학이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선화에 대한 평소 소신을 피력했다.

선시는 선의 세계를 시로 표현한 것이다. 선이면서 선이 없는 것이 시요(禪而無禪便是詩) 시이면서 시가 없는 것이 선이다(詩而無詩禪儼然). 석지현 스님은 "선시란 언어를 거부하는 '선' 과 언어를 전제로 하는 '시' 의 이상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은 불립문자(不立文字)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언어에 뒤따르는 사고작용마저 선은 용납하지 않는다. 대신 선에서는 오직 자기 자신 속에서의 직관적인 깨달음만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깨달음의 희열을 담은 선시 번역을 위해선 이심전심(以心傳心)의 경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석지현 스님의 선시 번역과 해설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빼어나다는 찬사를 받는 것이라고 김양수 화백은 극찬한다.

이 책에는 62편의 선화와 선시가 주제와 내용에 따라 1장 공(空), 2장 무(無), 3장 무상(無常), 4장 무아(無我)로 나눠 편집돼 선화 한편당 선시 한 편이 담겨 있다. 먼저 석지현 스님이 전통 한문 선시 62편을 선정해 번역과 간단한 해설을 달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양수 화백이 전남 진도에 칩거하면서 1년 동안 참구하며 선시를 읽고 또 읽으면서 선화로 새롭게 탄생시켰다. 마침내 선화와 선시, 이 환상적 만남을 통해 선의 세계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선화시집이 탄생된 것이다.

한편 이 책에 수록한 선화의 원본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선화 전시회가 서울 경복궁 옆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10월 28일까지 열린다.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던가? 급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느림의 철학과 명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 느림의 철학을 그림으로 풀어낸 책이 바로 〈선화와 선시〉이다.

▲석지현 스님은?

13세 때 충남 부여 고란사로 출가했다. 196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詩) 부문에 당선돼 승려시인으로서 명성을 떨쳤다. 1973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후 명상에 심취해 인도 네팔 미국 티베트 등지를 오랫동안 방랑했다. 미국에서는 5년 동안 살면서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필라델피아서 만난 이슬람 수피의 가르침도 인상적이었고, 다람살라에서 만난 달라이 라마의 소탈함과 따스한 자비심에 큰 감동을 받았다. 이 과정서 수행과 글쓰기에 필요한 자양분을 얻을 수 있어 귀국 후 불교 경전과 힌두교, 티베트 불교, 선어록 등을 망라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편 · 저 · 역서로는 〈선시 감상사전〉(전 2권), 〈종용록,(전 5권)〉, 〈불교를 찾아서〉, 〈선으로 가는 길〉, 〈행복한 마음 휴식〉 등 다수가 있다.

▲김양수 화백은?

1960년 전남 진도의 한 작은 산골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에게 있어 자연은 결국 자신이 추구하는 동시에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요체(要諦)이자 동체(同體)이다. 인연 있는 이들과 작업의 결정체를 공유하는 일이 중요하기에 그동안 중국과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개인전과 초대전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에서 신문과 잡지 등에 글과 그림을 연재하거나 지인들의 책에 마음 담아 삽화를 그렸다. 저서로는 〈내 속뜰에도 상사화가 피고 진다〉 〈고요를 본다〉 〈함께 걸어요, 그 꽃길〉 등의 시화집이 있다. 현재는 진도의 적염산방(寂拈山房)서 그림과 글쓰기에 정진중이다.

서양철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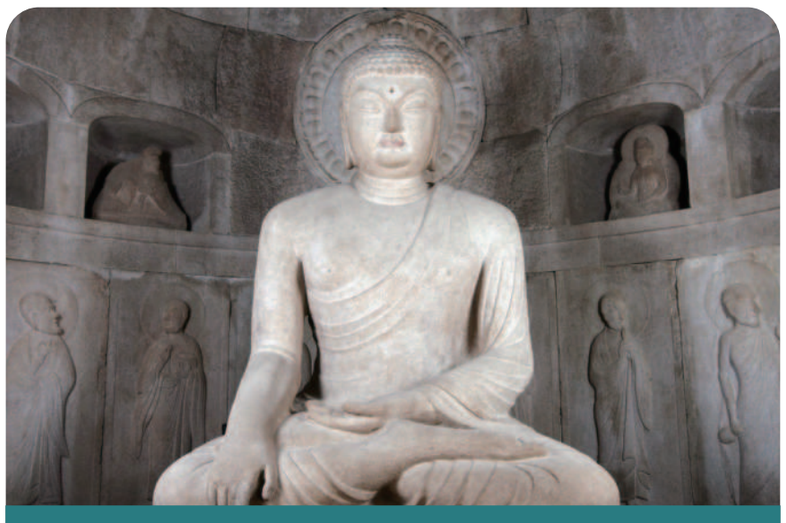


대원불교학술총서 • 4

에리히 프롬과 불교

쇼펜하우어, 하이데거, 니체, 프롬은 왜 불교를 가장 훌륭한 종교라고 보았는가? 프롬은 왜 그렇게 불교에 심취했고, 불교는 그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박찬국 지음/신국판/316쪽/값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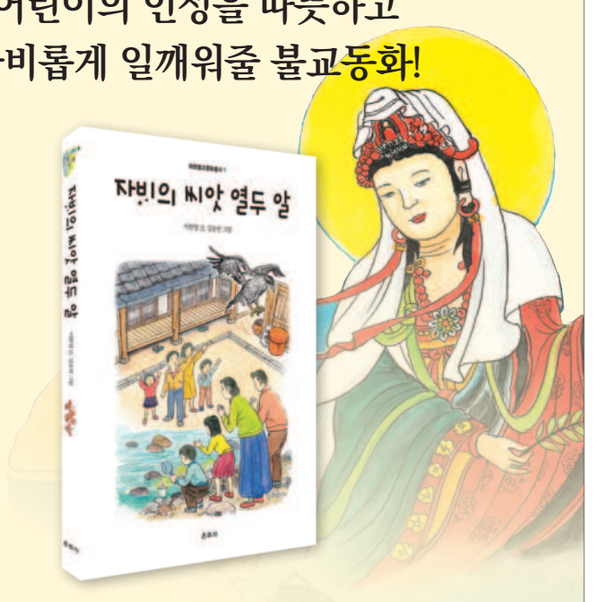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담마빠다

『법구경』으로 널리 알려진 담마빠다는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어 곁에 두고 읽으며 되새기면 '삶의 지남'이 되고 '인생의 지혜'를 일깨우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화령 역주/국판/192쪽/값 14,000원

어린이의 인성을 따뜻하고
자비롭게 일깨워줄 불교동화!



자비의 씨앗 열두 알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자비와 보시 사상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삽화와 함께 재미있는 동화로 엮었다.

이한영 글/김승연 그림/컬러/208쪽/값 14,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흙 속에 담긴 백제인 지혜…불상대좌, 연꽃수막새

국립부여博 '백제 기술, 흙에 담다' 展
2023년 1월 29일까지 기획전시관서

'백제의 돌'에 이은 시즌 2 '백제 흙' 주제
흙 다루는 기술 · 소조상의 예술성 조명
본의리 가마터 출토 '소조 불상대좌' 백미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청양 본의리 가마터 출토 소조 불상 대좌.

국립부여박물관은 1월 29일까지 특별전 '백제 기술, 흙에 담다'를 개최한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백제 기술(技術, Technology)을 조명하는 연속 작업으로, 지난 해 시즌 1 '백제의 돌' 전시에 이은 시즌 2 '백제 흙' 주제의 전시다. 전시에서는 백제인의 흙을 다루는 기술과 흙으로 만든 소조상의 예술성, 그리고 흙을 다루는 기술을 매개로했던 백제와 주변 국가와의 교류를 조명한다.

청야 본의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소조불상대좌' 등 250여 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는 백제인이 흙을 다룬 기술과 그 기술을 예술의 경지까지 승화시킨 백제 소조상의 예술성에 대해 소개한다. 세부 주제에 대해 살펴보면 1부 '흙에 아름다움을 담다', 2부 '흙에 지혜를 담다', 3부 '흙에 그림을 담다', 4부 '흙에 기술을 담다', 5부 '흙에 시간을 담다'로 구성되어 있다.

△1부 '흙에 아름다움을 담다'에서는 도자기라고 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백제 최상급 토기와 함께 익살스러운 호랑이를 연상시키는 호자(虎子), 굴뚝(煙家) 등을 소개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흙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백제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2부 '흙에 지혜를 담다'에서는 백제시대 사찰에서 발견된 소조상을 보여준다. 컴퓨터 단층촬영(CT)과 X선 투과촬영, 전자현미경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그동안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소조상의 내부 구조를 디지털로 선보인다. 또한 청야 본의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소조 불상대좌'는 이번 특별전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1986년 발견 이후 대좌 내부를 최초로 공개하여 두드린 흔적, 손가락으로 누른 흔적, 글자새김 흔적 등 다양한 제작기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소조불상대좌는 1986년 청양군 본의리에 있는 백제시대 가마터에서 파편 상태로 수습됐으며, 복원을 통해 높이 100cm, 폭 280cm의 초대형 불상받침으로 밝혀졌다. 좌우대칭의 옷자락이 가지런한 아름다움을 보이며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주름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법륭사 금당석가삼존 등 일본의 불상받침에 전승된 것으로, 당시 백제 불교미술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작 시기는 백제 말기인 7세기경으로 추정된다.

백제는 침류왕 원년(384) 중국 동진에서 온 승려 마라난타에 의해 불교를 수용했다. 웅진백제기(475~538)에는 대통사, 수원사 등의 큰 사찰이 조성됐다. 사비백제기(538~660)에는 불교문화가 꽃을 피웠다. 백제 특유의 우아하고 세련된 양식이 성립됐고,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다. 옛 백제지역인 연기를 중심으로 불비상(佛碑像)이라는 독특한 형식의 불상도 제작됐다. 서혈사지, 주미사지에서 발견된 불교미술품으로 남북국시대에도 불교가 융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3부 '흙에 그림을 담다'에서는 건물 내부를 장식한 벽화와 벽돌을 소개한다. 특히 부여 외리(外里) 유적지에서 출토된 백제 무늬 벽돌(百濟 文樣塼)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식 벽돌'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4부 '흑에 기술을 담다'에서는 백제가 중국 남조 양나라와의 기술 교류 경험을 살려 적극적으로 주변 나라에 문화를 전달한 대외교류에 대해 조명한다. 백제식으로 해석한 연꽃무늬 수막새 등의 기술 전파 과정을 화려한 디지털 영상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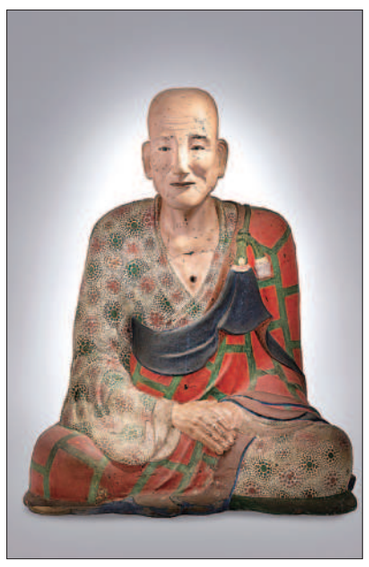
막새기와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수막새는 목조건축물 지붕의 기왓골 끝에 사용됐던 기와로, 기와의 기능에 염원과 예술성까지 담고 있는 특별한 기와라고 할 수 있다. 백제 기와의 출현은 3세기 후반경으로 고구려와 낙랑,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한성도읍기(B.C18~475)에는 연꽃, 동전, 풀꽃, 도깨비 얼굴 등 다양한 문양의 수막새가 사용되다가 웅진도읍기(475~538)부터 연꽃무늬 수막새가 주류를 차지하면서 백제의 독자적인 형식이 본격적으로 성립됐다. 백제 연꽃무늬 수막새의 가장 큰 특징은 꽃잎의 끝부분을 다양한 기법으로 장식했다는 점이다. 백제 연꽃무늬 수막새는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단아해 세련미가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5부 '흙에 시간을 담다'에서는 백제 소조상의 특징인 사실적인 표현과 골조가 확인되는 백제 이후의 소조상을 소개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백제인이 흙을 다룬 기술 전통을 살펴본다.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인들은 흙의 특징을 누구보다 잘 이해가고 있었으며, 흙에 지혜와 노력을 담아 다양한 형태의 문화유산을 만들어냈다. 이번 특별전에서 흙으로 빚은 백제의 문화유산을 감상하며, 백제 사람들이 흙을 다룬 최고의 기술과 예술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41)833-8562.

해인사, 승보 건칠희랑대사좌상 친견 전시

쌍둥이 목조비로자나불좌상 국보지정기념
11월 30일까지 해인사 성보博 특별전시실
현존 最古 목불상 역사적 학술적 가치 커
문화재청, 9월 1일 국보로 지정예고 밝혀


건칠희랑대사좌상(고려, 10세기, 건칠과 나무에 채색, 높이 82.4cm.

개산 1220주년을 맞아 10월 한 달 동안 기념법회와 각종 문화행사를 열고 있는 해인사(주지 현응)가 대비로전 쌍둥이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국보 승격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해인사는 10월 21일 오후 3시 30분 대비로전 앞마당에서 대비로전 쌍둥이 목조비로자나불좌상 국보 지정 축하 다례 행사를 개최했으며, 11월 30일까지 해인사성보박물관(관장 적광) 특별전시실에서 승보 건칠희랑대사좌상 친견 전시를 개최한다.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우리나라 목조불상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완성도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조각기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불상내부에서 발견된 묵서 기록에 의하면 불상은 중화(中和) 3년(883년)에 조성된 것으로, 현존 최고(最古) 목조불상으로서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 문화재청이 지난 9월 1일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건칠희랑대사좌상 역시 2020년에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됐다. 희랑대사는 화엄학에 조예가 깊었던 학승으로, 해인사 희랑대에 머물며 정진했다고 전하며, 태조 왕건의 스승이자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10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희랑대사상은 실제 생존했던 고승의 모습을 재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유일한 초상조각상이다.

해인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비로전 쌍둥이 목조비로자나불좌상[佛]과 고려대장경판[法], 건칠희랑대사좌상[僧]이 모두 국보로 승격됨으로써 해인사는 불 · 법 · 승 삼보(三寶)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국보를 모두 보유한 대가람으로 거듭나게 됐다.

박재완 기자

'동아시아 민화의 뿌리-중국 년화' 展

십일면관세음보살 등 70여 점


십일면관음(석판화,중화민국).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은 12월 31일까지 한 · 중 수교 30주년 특별전 '동아시아 민화의 뿌리-중국 년화'를 개최한다. 원주세계고판화문화제의 특별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고판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중국 년화 2000여 점 중에서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을 중심으로 7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작품은 텐진 양류청에서 청나라 초기에 제작된 화조도 6곡병풍이다. 판화로 제작된 가장 아름다운 화조도로 손꼽히는 작품으로, 지금까지 세계에 소개된 작품도 총 10여 점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서양의 동판화기법이 가미된 청나라 중기 소주 도하오에서 생산된 세계적 판화 소주 년화 중 '수' 문자도와 유명희곡인 호접배 년화, 담랑(사마귀), 삼동도 등이 소개되며, 양류청의 고사년화인 진시황, 희곡년화인 삼국지의 토형주, 동자도년화, 목판년화를 대신하여 서양에서 전래된 새로운 인쇄방법인 석년판화가 도입되면서 만들어진 고사년화 삼국지 장판파 석판년화와 신상지 마류인 십일면관세음보살 석판화도 소개된다. (033)761-78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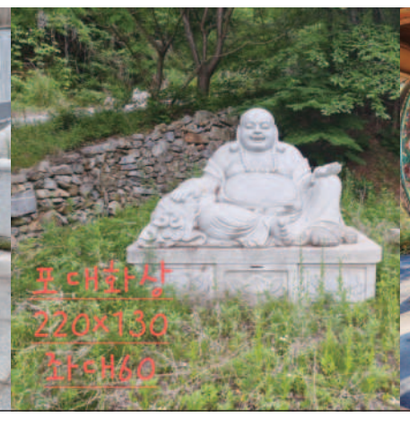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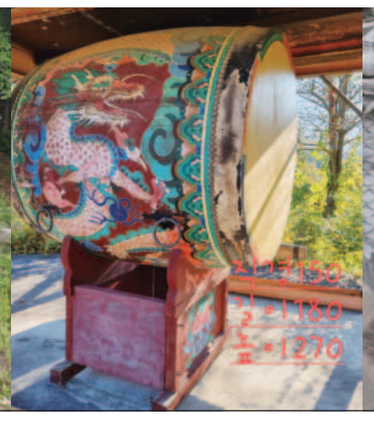
















임법당 불단 / 석물일체 저렴하게 드립니다.
신화불사 010-6545-2020

- 경기도 가평 사찰부지 28,768평 양도가 35억원 부지 구입후 분할하여 생수공장 유치가능
- 동두천시 전철역 10분거리 사찰부지 350평 양도가 3억9천만원(조금절충가능)
- 서울도봉구 도봉동 사찰부지 1,800평 양도가 24억원 전철역 10분거리 위치좋음

“벽암각성, 호국으로 불교 업그레이드”

정운 스님, 10월 21일 보조사상硏 학술대회서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벽암 각성(1574~1659)은 평생동안 불사에 힘을 기울여 문화 · 미술사에 큰 영향을 미쳤고, 호국을 통해 조선 역사에 불교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킨 선지식입니다.”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은 10월 21일 열린 보조사상연구원 제30차 국내학술대회에서 ‘벽암 각성의 행적과 사상’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운 스님은 벽암 각성의 시대적 상황과 그에 따른 활동과 사상의 저변을 살폈다. 벽암 각성은 14세에 스승 부휴를 만났고, 26세에 전강을 받았다. 부휴가 송광사와 인연이 되면서 송광사는 부휴계 사찰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후 호남 · 경상도 지역 일대에 각성의 문파들이 활동했다. 벽암 각성은 임진왜란 때 스승 대신 전쟁에 참여했고, 조정의 부탁으로 남한산성을 축성했다. 병자호란 때는 항마군을 조직해 의승군 활동을 했으며, 무주 적상산성을 관리했다.

특히 정운 스님은 벽암 각성의 의승군 활동에 주목했다. 정운 스님에 따르면 벽암 각성은 평생에 걸쳐 도총섭(都摠攝) 칭호를 3번 받았다. 당시 조정에서는 전쟁 중에 의승군을 조직적으로 통솔하기 위해 승장에게 직책을 수여했는데, 처음에는 최고위직을 선교양종판사(禪敎兩宗判事)로 명했다. 하지만 승려의 위상이 높아지고 불교의 입지가 강화될 조짐이 있자, 대신 도총섭의 직책을 내렸다. 전쟁에서 전체 의승군을 통솔한 도총섭은 ‘승병의 공훈을 평가 · 보고하고 승군 활동의 대가로 발급된 선과첩을 직접 배급’하는 중요한 권한을 가졌다.

정운 스님은 “승려들이 승병으로 활동함은 불교 교단과 집권층 사대부와의 이념 및 실제적인 마찰을 피함으로써 교단 유지에 기여코자 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왜란과 호란으로 승려들이 의승군을 자처했던 것은 단순히 근왕(勤王)과 호국만은 아니었다. 의승군 승려들은 호국이 곧 호법(護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벽암 각성의 저서와 비문, 각종 자료에 드러난 선사상에 대해서도 살폈다. 특히 법주사와 화엄사 비문, 〈대각등계집〉, 〈송광사지〉에 확인되는 벽암 각성의 행적에서 그의 선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해인사 국일암의 벽암 각성 선사의 진영.

도총섭 칭호만 3번 받은 선사
“의승군 호국, 호법에 가까워”
임제사상 바탕 무자 화두 중시
수선사 정신 조명 논문들 발표

〈대각등계집〉에는 “부휴는 벽암 각성을 불러 법을 부촉하고 임제종의 교리를 크게 떨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운 스님은 “부휴의 사상이 임제선풍의 종지를 선양했고, 각성 또한 임제선풍의 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선은 이론적으로는 조사선이고, 실천행적인 측면에서는 간화선이다. 임제를 거론함은 조사선 사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벽암 각성은 임제 사상을 바탕으로 한 ‘무자’ 화두를 중시한 선수행자였다”고 강조했다.

‘조선후기 수선사 정신의 계승’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부휴선수를 비롯한 선지식들의 사상을 연구한 논문들이 발표됐다.

주요 발표로는 △‘조선중기 이후 한국불교의 특징과 부휴선수(박재현, 동명대)’ △‘조선후기 송광사 중흥과 백암성총(오경후, 동국대)’ △‘회암정혜의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에 대한 관점(이병욱, 고려대)’ △‘금명보정의 전통인식과 교화활동(김경집, 한국전통문화대)’이 발표됐다.

논평자로는 마해륜(고려대), 최연식(동국대), 최성렬(조선대), 김용태(동국대) 등이 참여했다.

“십계탑으로 불교 교리 현대적 구현을”

불교학림 10월 14일 학술세미나
불교중흥 방안으로 십계탑 제안
관련 콘텐츠 활용 방안들 논의

불교 중흥을 위한 방안으로 십계탑 조성이 제안됐다.

불교학림은 10월 14일 동국대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말과 글에 갇힌 불교,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불교학림은 지창규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와 신성현 교수가 중심이 돼 동국대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수학한 구성원들로 구성됐다.

지창규 교수는 ‘불교중흥을 위한 한 가지 제언 · 불교교리의 현대적 구현 방안’을 통해 십계탑 조성을 통한 불교교리 구현을 제안했다.

지 교수는 “경설의 구송(口誦)과 문자화는 불법(佛法) 전통의 계승과 중생교화 측면에서 이뤄진 것으로, 현대에서 불교는 문자화 이상의 또 다른 발전을 이뤄야 한다”면서 “21세기 4차산업혁명이라는 절체절명의 현실 앞에 불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승이며,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불교학림은 10월 14일 동국대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말과 글에 갇힌 불교,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창규 교수는 “대변신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상과 문화의 표현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완전히 쇄신해야 한다”면서 “변신만 한다면 불교가 가진 가능성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는 십계를 탑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 교수에 따르면 십계의 불계는 심우도와 영산회상도, 보살계는 선재동자와 싯다르타, 연각계는 달마 대사, 성문계는 삼장법사로 대표될 수 있다. 천상계는 명상의 공간이며, 인간계는 생로병사와 우비뇌고의 터이다. 수라계는 투쟁과 대립의 싸움터이며, 아귀계는 욕망과 탐심의 소굴이다. 축생계는 본능의 세계이고 식욕과 지배욕과 성욕이외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며, 지옥계는 그대로가 고통의 세계다. 지 교수는 “십계탑은 십계를 지옥부터 부처까지 경험토록 하는 것이다. 십계 경험을 통해 나의 마음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 교수는 십계탑이 불교교육의 체험적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말이나 글만 가지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어려운 과정도 체험을 통하여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면서 “십계탑을 통한 체험으로 큰 어려움 없이 십계에 다가설 수 있고, 그 세계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성구 前 이화여대 대학원장이 ‘십계호구와 일념삼천에 대한 현대 과학적 고찰’을, 황신모 前 청주대 총장이 ‘탑의 변천사와 천태적 해석’을,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지옥계 연구’를, 고성은 불교미술 작가가 ‘십계도’를, 서정원 동국대 불교학부 강사가 ‘십계탑, 간경에서 견성으로’ 등을 주제발표했다.

신성현 교수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금강대 교수 광도 스님, 김용환 한마음선원 실장, 허남결 동국대 교수, 구광국 아제여행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삼척 천은사 불교문화유산 면면 살핀다

불교문화재연구소 · 삼척시 10월 28일 학술대회

삼척 천은사가 소장한 불교문화유산의 면면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삼척시는 오는 10월 28일 오후 1시30분 삼척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삼척 천은사의 역사와 불교문화유산’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삼척지역 불교문화와 천은사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천은사 소장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기획됐다.

총3부로 진행되는 학술대회는 천은사 역사를 기록한 〈두타산천은사기실비〉를 중심으로 1부 ‘삼척 불교문화와 천은사의 역사’를 살펴보고, 천은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복장유물을 주제로 2부 ‘삼척 불교조각과 천은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가치’가 진행된다. 3부에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주요 논문으로는 △홍영호 하슬라문화재연구소장의 ‘삼척 지역 불교문화의 전개 과정’ △김도현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의 ‘삼척 천은사의 역사와 〈두타산천은사기실비〉’ △유근자 동국대 초빙교수의 ‘삼척의 불교조각과 천은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복장 기록 분석’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의 ‘삼척 천은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연구’가 발표된다.

차장섭 강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종합토론에서는 발표자와 함께 이서현 용인시청 학예연구사, 심현용 울진봉평리신라비전시관장, 정성권 단국대 학술연구교수, 조태건 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사 등이 참여한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학술대회는 삼척의 불교문화와 천은사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두타산천은사기실비〉와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대학원, ‘뉴미디어창작 전공’ 신설

문예창작학과에 국내 최초로
정윤정 등 스타 강사진 초빙해
11월 9~26일 내년 석사과정 모집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에 뉴미디어창작 전공이 신설됐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원장 정달영)은 “문예창작학과에 ‘뉴미디어 창작’ 전공을 신설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26일까지 2023년 전기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학원 최초로 개설한 ‘뉴미디어창작 전공’은 웹드라마, 웹소설 등 인터넷 시대의 문학 장르를 다룬다. K-컬쳐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작가와 각색자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문인의 산실인 동국대의 ‘뉴미디어창작 전공’ 신설은 더욱 주목된다.

이번 뉴미디어창작 전공 신설로 뉴미디어 산업에 명성이 높은 강사진도 초빙됐다. △드라마 ‘미생’ 작가인 정윤정(웹드라마), 김종방 작가컴퍼니 이사(웹소설), 오영진 문화평론가(AI와 창작) 등 대표적인 작가들을 강사로 영입했다.

한만수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책임교수는 “신경림, 조정래 등 걸출한 작가들을 배출한 동국대는 이번 뉴미디어창작 전공 신설을 계기로, 인터넷과 AI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문학으로 저변을 넓히고 있다”며 “웹소설, 웹드라마 등 뉴미디어창작 영역은 단지 변방 문학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학의 한 가운데로 지평을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전공별 약간 명이며, 세부 내용은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02)2260-3606, 3608

신성민 기자

中석굴사원 불교미술 알고 싶다면

불교중앙박물관 문화강좌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미등)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중국 석굴사원에서 만나는 불교미술’을 주제로 불교문화강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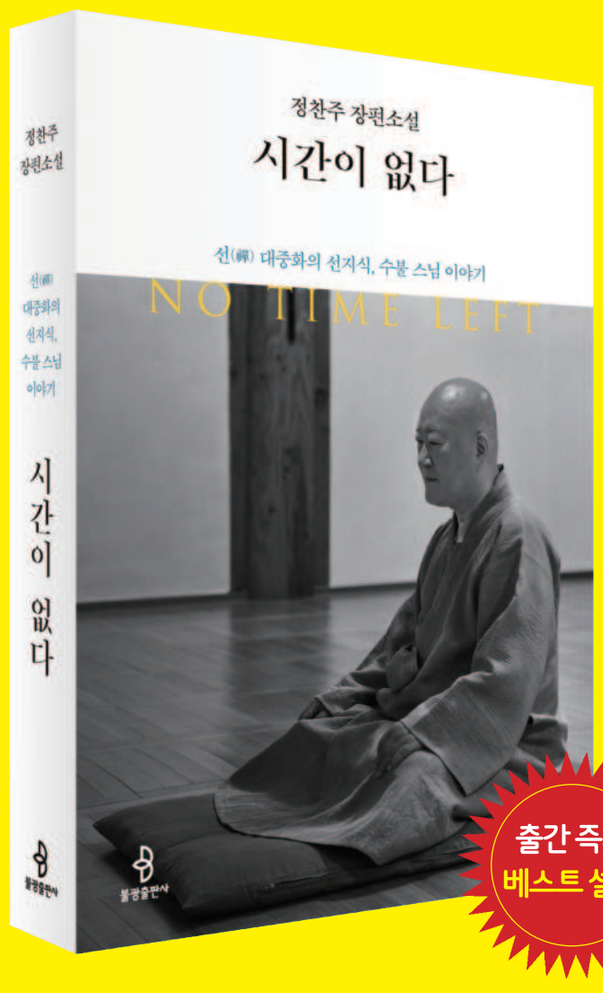
강연은 돈황석굴부터 운강, 용문석굴까지 중국을 대표하는 석굴사원의 불교미술 전반을 살피며, 강사로는 임영애 동국대 문화재학과 교수가 나선다. 강연 일정은 10월 24일, 11월 7일, 11월 14일, 11월 21일 오후 2~4시이다.

신성민 기자

온몸으로
의심하라!

7일 안에
체험할 수 있다!

간화선 현대화의 선구자이자 한국불교 대표 선지식
수불 스님의 삶과 수행을 통해 배우는 간화선의 맛!



출간 즉시 베스트 셀러

“심오한 정신세계를
흥미진진한 소설로 풀어내는
최고의 이야기꾼”

글 짓는 수행자 정찬주 작가의 내공으로 빚어낸 역작
수불 스님의 간화선 대중화 대원력을 소설로 만나다!

“수불은 단호하게 결심했다. 일상생활이 바쁜 신도들에게 일주일 안으로 화두 체험을 시키지 못할 실력이라면 포교당을 접어야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신도를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포교당 운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수불은 옛 조사들의 공안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활구를 제시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_본문 중에서

정찬주 장편소설
시간이 없다
선(禪) 대중화의 선지식, 수불 스님 이야기
정찬주 지음 | 416쪽 | 18,000원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87



▶ 88회 예고
아쇼까왕은 즉위 12년부터 석주나 바위에 담마칙령을 새긴다. 그 내용은 백성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이다. 자신이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는데, 백성들이 담마를 알고 실천하여 살생금지와 선행을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아쇼까왕, 석주에 담마 칙령 새기다

담마 칙령을 새길 거대한 석주를 옮기기 위해서는 많은 군사와 백성들을 동원해야 했다. 즉위 10년에 빠딸리뿌뜨라에서 보드가야까지 석주를 운반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아쇼까왕은 거리와 석질을 고려한 최적의 사암 채석장을 찾아야겠다고 판단했다. 아쇼까왕이 어느새 왕사 대접을 받고 있는 우빠굽따에게 말했다.“장로시여, 지난번에 우리 군사와 백성들이 석주를 옮기느라고 너무 고생했소.”

“대왕님이시여, 군사와 백성들이 고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석주는 빠딸리뿌뜨라 근교 어디에서 캔 사암이었소?”

“아닙니다. 바라나시 부근 추나르 채석장에서 가져온 사암이었습니다.”

추나르(Chunar) 사암 채석장은 바라나시 근교 강가강 강변에 있었다. 우빠굽따가 품속에서 손거울을 꺼냈다. 지난번에 석주를 만들고 난 뒤 손바닥만 한 둥그런 사암조각을 다듬어서 만든 손거울이었다. 아쇼까왕이 물었다.

“무엇이오?”

“손거울입니다. 대왕님께 드리려고 석공에게 부탁해서 사암조각으로 만든 손거울입니다.”

“사암으로도 거울을 만들 수 있소?”

“질이 좋은 추나르 사암은 가능합니다.”

아쇼까왕은 추나르 사암조각을 가공해서 만들었다는 우빠굽따의 말에 놀랐다. 석재인데도 균열이나 흠이 없고 유리알같이 맑았다. 담홍색 빛깔은 구리거울처럼 광택이 났다.

“돌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신기하오.”

“추나르 사암 석질은 잠부띠바에서 최고입니다. 질은 단단하고 결은 섬세합니다. 그곳이 어디든 추나르 사암으로 석주를 세운다면 대왕님의 위엄이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추나르가 바라나시 근교에 있다니 강가강을 이용하면 나라 어디든 석주를 운반할 때 좋겠소. 앞으로는 사암을 빠딸리뿌뜨라로 가져오지 말고 최고의 석공들을 추나르로 보내어 그곳에서 만들도록 하시오.”

“대왕님이시여, 그렇게 조치하시면 군사와 백성들의 고생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아쇼까왕이 석주에 관심을 보이는 까닭은 바위에 칙령을 새겨 왔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는 인적이 뜸한 천연의 바위에 칙령을 새겨 왔는데, 그 내용이 백성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칙령을 새긴 바위들이 대부분 가파른 언덕이나 산자락 같은 곳에 있었으므로 사람들 눈에 쉽게 띄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아쇼까왕이 바위 칙령 대안으로 석주를 생각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전의 어떤 왕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석주 조성이었다.

“바위에 칙령을 새기기는 했지만 그것은 우리 마우리아국 영토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소. 붓다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미 조성한 불탑에 칙령을 새기는 것도 어색한 일이오. 그래서 석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오. 담마 칙령이 새겨질 석주는 가능한 한 붓다 성지나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세우는 것이 좋겠소. 우리 백성들이 보아야 하니까”

“대왕님이시여, 대장 신하들에게 지시를 내리소서,”

“그렇게 하겠소. 석주의 크기는 얼마만한 것이 좋겠소?”

“대왕님 걸음으로 20보에서 30보 정도면 장대하여 위엄이 생길 것입니다.”

“알았소. 장로께 또 하나 묻겠소.”

“보드가야 석주 위에는 코끼리를 조각하라고 명했소. 또 사르나트로 간 석주 위에 얹힐 조각은 네 마리 사자였소. 또 다른 곳의 석주에는 무엇을 조각해야 좋겠소?”

우빠굽따는 아쇼까왕이 석주 위에 얹힐 조각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경외심을 느꼈다. 우빠굽따는 대답하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붓다를 상징하는 상서로운 동물들이 있습니다. 보드가야에 세울 석주에 얹히는 동물은 이미 코끼리로 결정되었습니다. 코끼리는 붓다께서 태어나실 때 마야부인의 꿈속에서 나타난 동물입니다.”

“내가 호위대장에게 큰 코끼리상을 조각하라고 지시했소. 삡팔라나무 옆의 불탑도 두 배로 증축하라고 명했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붓다를 상징하는 또 다른 동물로는 황소가 있습니다. 싯다르타 태자는 아기 때부터 황소와 같이 튼튼하였고 늠름하였습니다. 〈숫따니빠따〉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존재 중에서 견줄 바 없는 분,
가장 높은 분, 황소 같은 분,
모든 존재 중에서 으뜸입니다.

아시따 선인은 사꺄족의 황소를 팔에 안고
아기의 상호를 살폈다.
그리고 기쁨에 넘쳐서
“이 아기는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인간 중에 가장 으뜸입니다.”라고 환호성을 질렀다.

우빠굽따는 설법을 하듯 길게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또 말이 있습니다. 태자는 말을 타고 성을 나와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있습니다. 붓다의 설법은 사자의 포효와 같아 어느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석주에 얹히는 사자상을 우리가 보드가야에 갔을 때 사르나트로 보냈는데 잘 된 일이오?”

“보드가야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신 붓다께서 사르나트로 가시어 고행림에서 함께 수행했던 다섯 비구에게 처음으로 설법했으므로 사자상이 그곳으로 간 것은 매우 합당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곳에 석주를 두 개 세울 수는 없소?”

“왜 그러십니까?”

“붓다께서 처음으로 설법한 사르나트에 사자상 석주는 이미 보내졌고, 붓다께서 처음으로 설법하셨다니 담마의 수레바퀴를 조각한 석주까지 세워진다면 어떠하겠소?”

“담마의 수레바퀴로 세상을 정복하시겠다는 대왕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쇼까왕은 왕궁에서 대기하고 있던 호위대장을 불렀다. 그가 집무실로 들어오자 즉시 담마의 수레바퀴, 즉 법륜을 조각하도록 지시했다.

“내년에나 늦어도 내후년에는 사르나트로 순례할 것이오. 그러니 법륜상 석주를 만들도록 추나르에 나가 있는 호위부대 조장에게 지시하시오.”

“예, 대왕님. 그런데 석주에는 어떤 문자를 새겨야 합니까?”

“나는 왕자 시절에 브라흐미, 카로시티 등 63개의 언어를 배웠소. 그 중에서도 나는 옛 마가다국과 사끼야족, 붓다께서 사용했던 브라흐미 문자를 잠부띠바 전역에 세울 석주에 새기겠소.”

“붓다께서 사용했던 문자로 새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동스럽습니다.”

“나는 붓다께서 사용했던 문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담마의 실천자가 되겠다고 맹세했으니 당연한 일이오.”

이처럼 아쇼까왕은 잠부띠바 전역의 붓다 성지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교통 요충지에 석주를 세우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석주만 세우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전에 해왔던 바위에 칙령을 새기는 작업도 아주 없애지는 않았다. 즉위 12년 이후에도 바위에 담마 칙령 뿐만 아니라 때로는 코끼리 등을 조각했다. 문자도 마우리아국 서북쪽 변경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맞게 그리스문자, 아람어문자, 카로스티문자 등을 사용했다.



아쇼까왕이 즉위 12년에 마우리아국 서북쪽 끝인 칸다하르 지역을 순행하면서 남긴 바위 담마 칙령인데 다음과 같이 음각을 했던 것이다.

〈우리의 군주이신 삐야다시 왕은 왕위에 오른 지 10년 후에 사람들에게 담마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셨다.〉

문자는 브라흐미 문자가 아닌 그리스 문자와 아람어문자를 사용했다. 같은 바위에 두 가지 문자를 사용한 것은 이곳에 알렉산더 동방원정 이후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쇼까왕이 서북쪽 변경지방을 먼저 순행한 까닭은 말이 통하지 않는 그곳의 사람들을 먼저 돌보려는 마음과 왕자시절에 탁실라의 반란을 진압하러 갔던 기억이 선명해서였다. 칸다하르와 가까운 변경 사바즈 가르히(Shahbaz Garhi)라는 곳의 바위에는 카로시티문자로 칙령을 새겼다.

아쇼까왕은 칸다하르 순행을 서둘러 마치고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왔다. 병석에 오랫동안 누워 있던 다르마 대비가 숨을 거두었기 때문이었다. 아쇼까왕은 예를 갖추어 강가강에서 화장한 뒤 강물에 재를 뿌렸다. 불제자로서 담마의 실천자가 된 아쇼까왕이었지만 아지비까 교단에는 호의적이었다. 어머니 다르마를 추모하는 뜻에서 아지비까 교단에 가야(Gaya) 북쪽 깔라띠까 언덕의 동굴법당 두 개를 기증했다. 불교로 귀의했던 자애로운 다르마 대비가 항상 자신의 고향 짬빠성에서 만났던 아지비까 교단의 지도자 자나사나 구루를 얘기하곤 했었기에 그랬다.

한편, 아쇼까왕은 즉위 13년 이후부터 다시 석주를 세우고 담마 칙령을 새기기 시작했다. 보드가야에 불탑이 증축되었다는 보고를 받고서 코끼리상 석주를 세웠고, 사르나트에는 기존의 사자상 석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륜상 석주를 또 세우라고 지시했다. 아쇼까왕은 사르나트를 순례하는 동안 우빠굽따의 설법을 들었다. 우빠굽따는 사르나트에서 다음과 같은 붓다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이다.

이분은 선인들의 숲(녹야원)에서
짐승들의 왕인 사자가 포효하듯이
진리의 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붓다는 이와 같이 바라나시의 이시빠따나의 사슴동산에서
다섯 명의 비구들에게 첫 번째 담마의 바퀴를 굴리셨다.

나는 담마의 바퀴를 굴리네.
그 바퀴는 아무도 멈출 수 없네.

아쇼까왕은 우빠굽따의 설법을 들은 뒤 사자상 석주에는 ‘붓다께서 다섯 명의 비구들에게 첫 번째 담마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는 내용을 브라흐미 문자로 새기게 했고, 당시 사르나트 승원에는 수많은 비구와 비구니들이 살고 있었으므로 법륜상 석주에 승가의 화합과 재가신도들의 포살법회 참석과 법대관인 마하마따들의 책임을 당부하는 칙령을 남겼다.

〈어떤 누구에 의해서도 승가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비구든 비구니이든 승가를 분열하는 사람은 누구나 흰 옷을 입혀서 승원이 아닌 곳에 살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명령은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에 잘 전달되어야 한다.

재가신도들은 바로 이 칙령에 의해 신심을 북돋우기 위해 우뽀사타(포살법회)에 참석해야 한다. 모든 마하마따들도 반드시 우뽀사타에 참석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칙령에 의해 그대들의 신심을 북돋우고 이 칙령을 그대들이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더욱이 이 칙령의 명령대로 행하도록 그대들의 관할 지역을 순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다른 마하마따들도 요새 지역을 순방하여 이 칙령의 명령대로 행하도독 해야 한다.〉

물론 바위나 석주에 새기는 칙령이 위와 같은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담마를 권장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케 하는 칙령들이 아쇼까왕의 명으로 돌에 새겨졌다.〈계속〉



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20 신라 선승의 구도수행 1



▶한줄요약
신라 선승들은 수행이 일정한 궤도에 올랐다고 은사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다른 선지식을 찾아갔다.

선지식 찾아 중국까지 간 신라 선승들

1. 수행법의 혁신

불교 수행법에 대한 견해와 실천은 다양하게 전개됐다. 출발점인 부처님 깨달음의 방법과 과정은 니까야 계통 경전에 고스란히 담겼다. 안이비설신의 등을 통해 지각을 하되, 있는 그대로 지각함으로써 육근, 육경, 육식에 애착하지 않고, 촉(觸)에 애착하지 않으며, 수(受)에 애착하지 않는다. 환락과 탐욕을 여의고 갈애를 버린다. 나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여 정견(正見)을 이루고 8정도를 완성한다. 4념처(四念處), 4정근(四正勤) 등이 포함된 37도품(三十七道品)을 수행한다. 색계 사선정(四禪定) 무색계 사선정과 상수멸정(想受滅定)을 이룬다. 이것이 수행의 완성이다. 달마전법에 의해 시작됐다는 중국선불교는 이런 수행법을 혁신했다. 혁신은 단순화였다.

2. 당으로 간 신라 선승들

선불교 수행자는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 수행하고 선지식의 점검을 받았다. 신라 선승들은 수행이 일정한 궤도에 올랐다고 은사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다른 선지식을 찾아갔다. 선지식과의 선문답을 깨달음으로 가는 자량으로 삼아 더 치열하게 수행했다.

중국 선지식을 만나기 위한 구법 여행을 떠났다. 당의 선지식은 먼 신라로부터 찾아온 제자를 제접하며 행동 하나 말투 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가 한 마디 말 한순간 몸짓으로 깨달음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신라 선승은 인가를 받고 법인을 계승한 이후에도 중국의 명산과 유서 깊은 수행처를 찾아가서 수행했다. 이 운수행각(雲水行脚)의 길을 따라가면 그들이 어떤 수행을 했는지 엿볼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막연한 암시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다. "마른 쑥이 흩날리듯 떠돌아다니며 발길을 맡기니, 산 넘고 물 건너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는 일을 수고롭게 여기지 않았다. 곧 순례하는 일을 일삼아 이름난 산을 찾아 높은 산을 우러러보았다."(창원 봉림사 진경(眞鏡審希, 855~923)대사 탑비문)는 식이다.

대부분 인도 구법승이 그랬듯, 중국 구법승 중에는 중국서 입적한 경우가 있었다. 원측(圓測, 613~696), 무루(無漏), 무상(無相, 684~762) 등이다. 나머지 대부분 중국 구법승은 큰 뜻을 품고 신라로 돌아왔다.

3. 남종선과 북종선

신라 선승들이 중국으로 간 때는 조사선[남종선]이 불교 수행을 주도하고 있었다. 도신(道信, 580~651)과 홍인(弘忍, 601~674)은 사제 간 법의 계승을 강조하는 '동산법문(東山法門)'을 이루어 선종의 모태가 되게 했다. 탁발 대신 집단 농업생산 활동을 했다. 혜능(惠能, 638~713)은 본래 마음 그대로가 곧 부처임을 보이는 돈오 남종선을 성립시켰다. 신수(神秀, 606~706)는 황실의 적극적 지원 하에 점수설을 근간으로 한 북종선을 이끌었다. 동산법문의 남종선과 신수의 북종선의 양립 상황에서 하택 신회(何澤神會, 684~758)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회는 5조 홍인의 참된 후계자는 자신의 스승인 혜능이고 신수는 방계일 뿐이라 주장했다. 신회는 선정과 지혜를 함께하는 선 수행법도 정립했다. 선정이 많고 지혜가 적으면 무명(無明)이 증장되고, 지혜가 많고 선정이 적으면 사견(邪見)이 증장되는 바, 선정과 지혜가 균형을 이룰 때 불성을 본다고 가르쳤다.

4. 신라 무상 중국을 가르치다

무상(無相, 684~762)은 성덕왕의 셋째 아들이었다. 혼인을 강요당한 막내 누이동생이 출가를 실행하기 위해 자기 얼굴을 칼로 자해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자기도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었다. 중국에 가서는 손가락을 태우는 정성으로 처적(處寂, 669~736)의 가르침을 받는다. 2년간 처적의 법을 전수받고 처적이 입적하자 사천성 천곡산(天谷山)으로 들어가 처절한 고행을 감내하며 수행한다. 공부가 깊어지자 사천성 안으로 들어가 낮에는 무덤 옆에서 밤에는 나무 밑에서 수행했다. 소유와 집착을 최소화하고 인욕을 체득하는 철저한 두타행을 실천했다. 그를 우러러본

신라 선승, 인가 후 중국 유학
무상 두타행, 청규 전통 탄생
도의, 37년 구법 남종선 원력

사천성 사람들이 정중사(淨衆寺)를 지어 주석하게 했다. 무상의 두타행 실천은 마조 도일-백장 회해 등으로 이어지면서 '청규'(淸規)의 전통을 만들어냈다.

무상은 '나무아미타불'을 길게 염송하는 인성염불(引聲念佛)을 수행의 출발과 바탕으로 삼았다. 인성염불 끝에 한 기운의 숨을 다 내 쉬어[盡一氣] 소리를 끊고[絶聲] 부름을 멈추었을 때[停念] 무억, 무념, 막망의 삼구를 설하고 염했다. 삼구는 무억(無憶, 과거 바깥일에 대한 기억에 얽매이지 않는 것), 무념(無念, 미래의 일에 대해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 막망(莫妄, 지금 이 순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게 살 것)이다.

인성염불은 오경전(五更轉)으로 발전됐다. 초경(저녁 7~9시)에 '얕은 염불'로 시작하여 이경(9~11시)에 '깊은 염불', 삼경(11~1시)에 '얕지도 깊지도 않은[半] 염불', 사경(1~3시)에 '힘찬[遒] 염불', 오경(3~5시)에 '빠른[催] 염불'로 '전환[轉]'하며 나아가게 했다. 오경의 한 마디가 끝나고 다음 마디로 들어가기 전에 삼구를 염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미래를 상상하지 말고 오직 현재의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오경전 수행이 포섭한 것이다.

무상은 수계의식이 끝나면 대중들에 7일 혹은



도의(道義, 750무렵~825)는 37년간 구법여행을 끝내고 귀국했다. 그리고 무위임운(無爲任運)의 남종선[조사선]을 펴고자 했다. 사진은 도의 스님 진영.

14일간 좌선을 하게 했다. 인성(引聲, 소리를 끌어당김)하고 염불(念佛, 부처님 명호를 부름)하고 좌선(坐禪)하는 것은 '소리' - '명호' - '실참'으로 이어지는 무상의 독창적 '인성염불선'이었다.

무상은 스스로도 치열한 수행을 계속하여, 좌선을 시작하면 5일, 7일, 14일 동안 계속했다. 중국에서 28년을 머문 무상은 정중사에서 77세로 입적했다. 무상에 의해 성립된 정중종(淨衆宗)은 혜능이나 신수의 선풍과 대등한 역할을 하여 티베트까지 알려졌다. 홍인(弘忍)-지선(智詵)-처적(處寂)으로 이어진 법맥을 받아, 하택 신회(何澤神會), 마조 도일(馬祖道一, 709~788), 서당 지장(地藏, 735~814)에게 전했다. 신라 구산선문의 개조자(開祖者)인 도의, 홍척, 혜철, 범일, 무염, 현욱 등이 서당을 비롯한 마조 계통의 법맥을 받아온 것은 그 법계가 신라 출신 무상에서 비롯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무상이 운남성 공죽사(笻竹寺)와 강서성 동림사(東林寺) 등의 나한당 속에 '무상공존자'(無相空尊者, 455번째)란 존호로서 모셔진 것도 우연이 아니다. 여섯 조사[六祖] 중 달마와 무상만이 500 나한상으로 모셔진 것이다.

5. 때 아닌 선종 수용

법랑(法朗, ?~755)은 중국으로 갔다가 4조 도신(道信, 580~651)의 법인을 받고 귀국하여 신라에 선을 전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신행(神行, 704~779)에게 법을 전했다. 신행은 호거산에서 법랑을 섬기면서 선 수행에 전념했지만 법랑이 3년 만에 입적하자 중국으로 떠났다. 신행은 북종선의 3대인 지공(志空) 문하로 들어가 3년 만에 도력을 인정받았다. 신행은 법랑(法朗, ?~755)을 통해 4조 도신(道信)의 법맥을 이었고, 5조 홍인(弘忍)에서 신수(神秀)-보적(普寂)-지공(志空)으로 이어진 북종선의 법맥도 함께 이은 것이다. 신행이 신라로 돌아와 북종선을 펴고자 했지만 역시 여의치 않았다. 신행의 선이 중앙으로 진출한 것은 제자 삼륜(三輪)에 의해서였다.

6. 도의의 은둔과 추존

중국으로 간 도의(道義, 750무렵~825)는 784년 오대산으로 가서 문수보살의 감응을 받았다. 혜능(惠能)을 모신 조계산 조사당을 참배했을 때는 조사당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이적을 보았다. 서당지장(智藏)의 가르침을 받고 심인을 받았다. 백장 회해(懷海)를 찾아가니 회해는 "강서의 선맥(禪脈)이 모두 동국승(東國僧)에게 속하게 되었구나."라며 축원했다.

도의는 우연하게도 진감 혜소(慧昭, 774~850)를 만난다. 도의와 혜소는 장차 신라로 돌아가 남종선을 일으키자고 다짐하며 도반이 되었다. 도의는 귀국하지만 혜소는 3년을 더 체류한다.

도의는 821년 37년간 구법여행을 끝내고 귀국했다. 도의는 무위임운(無爲任運)의 남종선[조사선]을 펴고자 했다. 무위임운이란 사량분별의 조작을 멀리하고 생사의 법을 초월하여 걸림과 집착이 없는 본래심으로 살아가려는 것이다. 도의는 이런 남종선의 가르침을 본래성불의 전제에서 펼치려 했지만, 이 무렵 신라불교의 분위기는 경전의 교설을 따르는 것이 대세였고, 화엄관법(華嚴觀法)과 〈관무량수경〉을 근거로 한 16관법(觀法)이 유행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 익숙한 신라 사람들은 무위임운(無爲任運)의 종지를 배우려 하지 않았다. 도의를 마구니의 말[魔語]을 퍼뜨리는 자라 의심하고 비웃었다.

도의는 이국생활 37년 내내 당당한 남종선을 신라에 펼치려는 일념만을 가졌다. 그러나 돌아오자마자 마구니로 몰리는 푸대접과 봉변을 당하면서 남종선의 때가 아직 아님을 확인했다. 미련 없이 머나먼 설악산 진전사(陳田寺)로 가 운둔했다. 40년 더 수행자로 살아가며 염거(廉居, ?~844)에게 법을 전하고 입적했다.

보조 체징(體澄, 804~880)이 염거를 스승으로 모셨다. 체징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몸을 자기의 몸으로 여기지 않으며 수행했다. 체징의 뜻과 기개에 짝할 이가 없다고 본 염거는 체징에게 법인을 전했다. 중국으로 건너가 선지식을 찾던 체징은 온 누리의 성상(性相)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구법의 발길을 돌려 돌아왔다. 장흥 가지산 가지산사[오늘날 보림사]에 가지산파(迦智山派)를 열고 선풍을 크게 떨쳤다. 체징은 자신을 가지산파 제3조로, 스승 염거를 제2조로 하고, 도의를 가지산파의 제1조 개산조의 자리에 앉혔다. 도의의 못다 이룬 뜻이 3대 만에 이뤄진 것이다. 도의의 선법이 법손 체징에 의해 꽃을 피웠다. 선종에 대한 마구니의 저주가 풀리는 데 40년 시간이 걸린 셈이다.

체징의 법맥은 선각 형미(先覺逈微, 864~917)에게 계승되고, 형미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소백산사 진공0운(眞空0運)은 도의를 사숙한 제자로 인정됐다. 체징은 형미를 보자마자 "옛적에 우리 이별한 것이 좀 오래된 성싶은데 이제서야 찾아오니 어찌 그리 늦었는가?"라며 반갑게 제자로서 받아들였다. 조은사(祖恩師)의 마음을 받들어 간절히 보은한 체징은 제자를 받아들일 때도 이처럼 전생의 인연을 끌어와서 따뜻한 운명의 힘을 실어 주었다.

〈연세대 객원교수〉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금송
T.055)747-1300 F. 055)747-1307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293번길 7, 301호(유니언빌딩, 신안동)


정성윤 변호사 민사/가사 전문


정동윤 변호사 형사/부동산 전문


박상희 변호사 이혼/형사 전문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종도를 위한 고문변호사"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서울 총무원 : 전화 02)739-4780

2022
사람과 자연에 休(휴식)를 주다
내소사 산사음악회
2022년 11월 5일(토) 오후2시 / 부안 능가산 내소사

프로그램
· 산사음악회:오후2시
· 불교문화체험:오전11시-오후5시
· 부안군민공예체험:오전11시-오후5시
내소사홍보
· 내소사템플스테이:오전11시-오후5시

불교문화체험프로그램
· 전통차 체험
· 소원컵 연등 만들기
· 페이스 페인팅 체험
문의 063.583.7281

함께하는 아티스트


World Of Crown 국제 댄스대회 1위
미스몰리


대한민국 최고 트로트 아이돌 가수
박현빈


MBN 조선판스타(2021.10.30.) 우승자
김산옥과 도드리 국악단


원광대학교 대학원 문화음악학과
교수장소현 교수김문희 김고은 신민경

이안의 Media In Buddha ❷ 애니메이션 영화 '태일이'



▶한줄요약
국내 최대 제빵 업체인 SPC그룹 계열사 평택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슬픈 외침은 현재에도 그대로 통용된다. 애니메이션 영화 〈태일이〉는 그의 삶을 담담히 재현한 작품이다.

"노동하며 깨달음 얻은 전태일…수행자 같아"

'빵과 장미'라는 말이 있다. 20세기 초인 1908년 3월 8일 미국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에 나서면서 '우리는 빵을 원한다. 그리고 장미도'라는 구호를 들고 행진하면서 비롯된 말이다. 이 두 낱말 안에는 생존권 뿐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가 담겨 있다. 그로부터 100년도 더 지난 21세기가 한참 지나도록 여전히 노동자는 장미는 커녕 자기 몫의 빵도 누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구나 빵을 만드는 노동자는 목숨조차 위태로운 작업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최대의 제빵 업체인 SPC그룹 계열사 평택 공장에서 20대 여성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올해 초, 동국제강 비정규직이었던 故이동우 노동자가 공장에서 천장 보수작업을 하러 크레인에 올랐다가 기계 오작동으로 사망했을 때 당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는 노동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간절한 외침"이라며 "이동우 노동자의 죽임이 헛되지 않게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 만들어 나가는데 사노위도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말 뿐이 아니라 동국제강 본사 앞에 분향소에서 이동우 노동자 49재를 봉행하고 이후 매일 유족들과 함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봉행하며 힘을 보태 사망 후 88일 만에 비로소 사과를 받기까지 유가족의 곁을 지켰다.

그러나 수많은 일터는 법을 가벼이 여기고 안전수칙을 저버리며 더 많은 이윤만을 위해 사람의 안전과 목숨을 여전히 위험하기 짝이 없는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1995년, 박광수 감독) 〈미싱타는 여자들〉(2020년, 김정영 · 이혁래 감독) 〈태일이〉(2021년, 홍준표 감독)는 전태일에 대해 각각 극영화로, 함께 한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다. 겨우 22살에 세상을 뜬 청년에 대한 영화가 이렇게 여러 편 만들어진 까닭은 아직도 현실이 위태롭기 때문이고, 전태일의 목소리가 사무치기 때문일 것이다.

〈태일이〉는 애니메이션 영화제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권위를 인정받는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에서 콩트르샹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할 정도로 빼어난 작품이다.

〈태일이〉는 가난한 집안에서 방 한 칸도 없어 주인집 툇마루 아래에서 자야 하면서도 엄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꺼워했던 14살 소년 전태일이 어머니가 수제비라도 하루 세 끼를 꼭 드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터에 나가면서 더 많은 가족을 마음에 품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전태일은 어려운 집안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닌 게 정규 교육의 전부였고, 16살 때부터 평화시장 봉제 공장에서 일했다. 시다에서 시작해서, 다음 해 미싱사가 되고 바로 또 재봉사가 되었으니 성실하고, 일도 잘했고, 고용주 눈에도 들었을 것이다.



홍준표 감독의 2021년 작품 애니메이션 영화 〈태일이〉의 한 장면.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하루 14시간이 넘게 일한 삯이 50원. 딱 커피 한 잔 값이었다. 미싱사가 되고 재단사가 되어 조금 더 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도 않았지만 전태일은 수돗물로 고픈 배를 채우는 어린 여공들에게 집에 가야할 차비로 풀빵을 사주고 동대문에서 창동까지 먼 길을 걸어가는 마음 고운 청년이었다.

미싱 기계가 다닥다닥 놓여있는 공장 천정 쪽으로 제대로 된 방도 아닌 가설 2층을 만들어 낮에는 아래에서 14시간 넘게 먼지 날리는 봉제 일을 하다 밤에는 바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 이불 펴고 눕는 공간이 일터였다.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여공이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폐병 3기 판정을 받은 여공이 가차없이 해고당하는 것을 본 충격으로 이상적인 노동 환경을 꿈꾸기 시작한 전태일은 낮에는 공장에서 옷을 재단하고 밤에는 판자집에서 근로기준법 해설서를 읽었다. 뜻을 같이할 이들을 모아 '삼동회', '바보회' 등을 조직해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힘썼으나 그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에서 22살 청년 전태일은 자신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며 외쳤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재봉틀이 아니다!"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1970년 11월 13일 분신했던 전태일 삶의 궤적들 담아내
>
> SPC 노동자 끼임 사고사 등 그의 절규, 현재에서도 통용

〈태일이〉를 만든 홍준표 감독은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전태일의 삶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애니메이션이 가진 힘이 있다. 기본적으로 세대의 벽이 많이 허물어지는 것 같고, 무거운 소재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태일이〉는 가난하고 어렵던 시대, 가장 낮은 곳에서 살던 현장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애니메이션 특유의 자유로운 표현력 덕분에 전태일이라는 청년이 세상에 대해 품었던 꿈과 희망이 따스하게 담겨있다.

골목의 풍경들, 가난한 가정집, 평화시장 봉제 공장 같은 삶의 현장도 그저 구질구질하고 암담하게 그려진 것이 아니라 아주 사실적으로 섬세하게 그림으로 재현되면서도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믿었던 청년의 마음과 눈을 거친 아름다운 화면으로 소환된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전태일재단과 공동으로 '전태일 정신과 불교'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을 외치며 스스로 몸을 불살라 노동운동의 서막을 열었던 전태일 열사의 일생에서 대승보살의 자비를 읽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태일의 외침이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처의 말씀처럼 혁명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라는 유서의 글귀는 불교의 연기 사상과 맞닿아 있음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문맹이었던 육조 혜능이 방아찧고 장작 패면서 수행했듯이 전태일은 평화시장에서, 삼각산의 공사판에서, 즉 삶의 밑바닥에서 노동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며 전태일의 삶이 수행하는 선사와도 같았다고 돌이켰다.

'전태일 정신과 불교' 토론회에서 '한국불교는 전태일 정신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불교의 화쟁은 투쟁이 아닌 변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최근 전태일 평전을 읽으면서 노동과 투쟁의 이미지에 가려진 그의 인간에 대한 탁월한 안목을 볼 수 있었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인간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고통 받는 사람을 구하려 했던 전태일의 헌신성이 새롭게 조명됐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여전히 공장에서 홀로 일하다 죽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흘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던 소녀 가장이었던 평택 여성 노동자의 산재사고에 대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을 인용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노동자 작업 현장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거의 매일 일어나는 실정이다. 태안화력 김용균 발전 노동자의 죽음으로,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죽음을 막기 위하여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국회 본관 앞 단식을 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 어렵게 제정되었다.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22년 1월 27일부터 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9월 말까지 446명의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산재사고로 돌아가셨다. 산업 현장은 여전히 노동자 죽음에 대하여 과거와 같이 안전 문제와 생명에 대하여 타성에 젖어 있음이 분명하다,

회사 현장의 사람들에게 예방과 안전을 외친다고 산재사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회사의 제품 모든 공정에 노동자의 육체가 없이는 어떤 것도 생산할 수 없다. 육체의 안전을 제품 생산의 이윤에 앞서서 생각하는 기업이 되지 않고는 산재사고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제품 생산에 무오류, 무결점을 끊임없이 외치는 회사 방침에 앞서 '노동자들의 육체 안전사고 제로'의 정신을 으뜸으로 하여야 한다. 노동자 죽음의 현장을 천막으로 가려놓고 노동자들에게 일을 하게 하는 SPC의 이윤을 제일로하는 섬뜩함을, 모든 기업들의 경영 자세에서 완전히 걷어내지 않고서는 산재사고를 방지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당장 멈추고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죽음을 국가의 책임이요, 부끄러움으로 알고 철저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정부는 생명을 외면, 무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존재의 이유를 물을 정도로 가혹하게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업주도 본인이나 가족들의 생명만큼 노동자의 생명에 무한 책임과 존귀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발원에 마음을 보태며 〈태일이〉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그리고 〈미싱타는 여자들〉이 왜 꼭 봐야할 영화인지를 다시금 되새긴다.

〈영화평론가〉

법인등록번호 284121-0003832

(사)해동불교 약사종

약사신앙으로 한국불교를 중흥시킬 구도자를 찾습니다.

1. 약사경을 소의 경전으로 종단 운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
2. 약사신앙을 연구하며 공부하고자 하는 분
3.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
4. 현시대에 약사신앙의 필연성을 인식하시는 분
5. 종단에 소속되어 보호받고자 하시는 분

현시대에 걸맞은 약사기도 수련법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사) 해동불교약사종 총무원장 원담 일광

종무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16-1 전화 031)585-8064 팩스 031)584-8063
총무원장 010-8228-7908

제10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공모

고(故) 세주 묘엄 명사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공모기간 2022년 8월 22일(월) ~ 11월 7일(금)

시상내역 2명(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1.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 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수상한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단체는 설립된 지 5년 이상이고,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돼야 한다.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 (http: //cafe.daum.net/myoeom.org)
- 접 수 처 : 46292 부산시 금정구 금정로 42(장전동) 문화공간 봄(BOMM) 2층 윤종갑 교수
- 문 의 : 사무국장 윤종갑 010-2314-2722 greencw@hanmail.net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후 재단 카페에 공지
- 시 상 식 : 2022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 수원 봉녕사 대법당 세주 묘엄 스님 제11주기 추모다례재일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

Monthly Bultube

가을은 축제의 시즌이다. 추석을 전후 하여 불교계에서는 개산대재를 중심으로 각종 산사음악회, 문화제, 전시전 등이 열린다. 10월 불교 유튜브에서는 이러한 문화 축제의 현장을 전하는 소식, 그리고 후일담 등이 높은 조회를 얻었다. 특히 트로트 열풍과 산사음악회의 조합은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킨다. 단풍 구경을 겸해 산사로 향하고 싶은 수많은 이들은 유튜브를 보며 온라인으로도 불교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ROCK MUSIC

청송 주왕산 산사음악회

youtu.be/0JtHMBml7PQ

SCAN ME

역시 이찬원이 출연한 청송 주왕산 산사음악회는 17만 3000여회의 조회수를 자랑한다. K팝과 트로트 등 여러 장르의 종합음악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Rock Music' 채널은 9월 21일 청송군이 주왕산 대전사에서 개최한 산사음악회 현장 영상을 업로드 했다. '주왕산 시와 국악의 만남'을 주제로 9월 17일 열린 이날 산사음악회에는 3년 만에 마련돼 1만명이 넘는 이들이 운집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음악회는 청송문화원합창단의 경복궁타령을 시작으로 관현악과 민요, 국악, 트로트 등 다채롭게 구성돼 관광객 및 지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트로트 가수 이찬원과 김다현의 출연으로 전국에서 몰려든 팬클럽 회원들이 몰려들며 대성황을 이뤘다. 여기서 무반주메들리를 비롯해 10여곡이 넘는 노래를 불러 팬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영상은 좋아요 3400여 회에 91개의 댓글이 달렸다.

BBS불교방송

예천 용문사 대장전 · 윤장대 국보승격 축하음악회

youtu.be/IhMa1RRO00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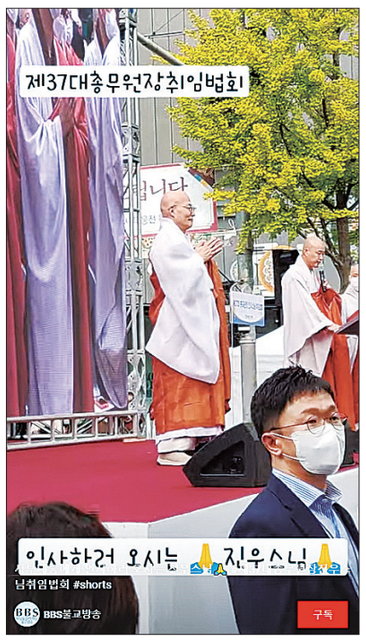
SCAN ME

경북 예천 소백산 자락에 위치한 용문사(주지 청안)는 10월 2일 경내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대장전과 윤장대의 국보 승격을 축하하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일상의 회복을 기원하는 의미까지 담은 이날 음악회에는 4000여 관객이 운집해 눈길을 끌었다.

예천 용문사 윤장대와 대장전은 용문사 창건 당시의 불교 경장 건축의 특성과 특징이 잘 남아 있는 문화유산으로 높게 평가받아 2019년 12월 국보로 승격했다. 특히 윤장대는 정교한 꽃살문이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동아시아에서 전례가 없는 국내 유일의 희소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용문사 주지 청안 스님은 "대장전과 윤장대의 국보승격을 축하하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과 함께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원하며 음악회를 준비했다"고 음악회 개최 의미를 전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인기 트롯가수 별사랑, 이찬원, 김다현, 조명섭, 김연자 등이 대거 출연해 가을 산사를 수놓는 아름다운 음악을 선보였다.











BBS불교방송이 10월 2일 업로드한 라이브 영상은 총 10만회의 조회수를 자랑한다. 좋아요 3900회에 152개의 댓글이 달렸다. 특히 트로트가수들의 출연에 대한 댓글이 많았다. 이찬원, 김다현 등에 대한 팬들이 높은 호응을 보냈다. 댓글에는 "울가수 찬원님 덕분에 윤장대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네요" "여러 가수들이 나왔지만 조명섭 가수의 산유화 최고로 기억에 남는 노래였습니다. 너무 좋은 곡을 산사음악회에서 들을 수 있어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등이 달렸다.

BTN불교티비

영천 은해사 2022은빛음악회

youtu.be/jCXGVCFupsk

SCAN ME

인플루언서들이 활약하는 사찰 문화축제는 팬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갤러리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특징이다.

개산 1213년을 맞아 천년고찰 영천 은해사에서 열린 2022은빛음악회에는 불자 트로트 가수인 이찬원 출연이 큰 화제를 모았다. 은빛문화제 첫날인 8일에는 경상북도 청소년 노래와 댄스 경연대회와 개막공연 등이 열렸으며, 9일에는 개산대재, 영천 시민 산사 노래자랑에 이어 국내 최정상 트로트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9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이 개막공연에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출연한 것이다. 이찬원은 특히 대구 출신으로 대구 선원초등학교 6학년 재학 시절 최초로 KBS 전국 노래자랑에 출전해 대구 중구편 우수상을 받으며 가수의 꿈을 키운 것으로 유명하다.

이날 무대에서도 은해사에 부모님과 함께 방문했던 기억 등을 털어놓으며 불자관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BTN불교티비가 유튜브에 업로드한 2022 영천은해사 은빛음악회 영상은 9만 8000회 조회수와 4300여회 좋아요, 113개 댓글이 달렸다. 댓글에는 "모든 가수분들을 골고루 응원하는 이찬원 팬분들 감사합니다", "최고의 가수 이찬원, 은해사 아름다운 밤을 빛내주네요" 등이 남겨졌다.

계피생강의 지식탐구

'선문답의 왕, 조주'

youtu.be/_1mh_N59Dj0

SCAN ME

'계피생강의 지식탐구'는 구독자 1만 6500명 수준의 동양사 탐구 채널이다. 유불도를 넘나드는 인물사 탐구를 진행하는 이 채널에서는 10월 4일 '조주, 그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조주 선사와 선종의 선사들, 선문답과 화두 등에 대하여 콘텐츠를 만들었다.

특히 이 영상에서는 무문관 제14칙인 남전참묘에 대한 내용이 소개된다. 남전 스님이 고양이 한 마리를 두고 동당과 서당의 스님들이 나누어져 서로 자기들 것이라고 다투는 것을 보고는 전체 대중들에게 "한마디 이르면 고양이를 살려주겠지만, 이르지 못하면 이놈의 목을 베겠다"고 했다.

그런데 대중 가운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였고 남전 스님은 곧바로 고양이의 목을 베었다. 조주 스님이 볼 일차 밖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자, 남전 스님은 낮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면서 한마디 일러보라고 하자 조주 스님이 신고 있던 짚신을 벗어 머리에 이고는 문밖으로 나가버렸고 이에 남전 스님이 "그대가 낮에 있었더라면 고양이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였다.

영상에서는 임제 선사의 일화도 전하며 조주 선사의 경우 할과 방보다는 부드러운 방법으로 불법을 전하였고, 특히 '끽다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도는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금 여기 차 한잔이 바로 평상심이고 도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댓글에서는 "조주 선사의 사상에는 큰 장점이 있다. 누구나 불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화두는 말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도를 전하는 도구"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번 영상은 5만 5000여회의 조회수와 1000여회의 좋아요, 73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앞서 같은 채널에서 8월 28일 업로드한 '임제, 그는 누구인가?' 영상은 11만 2000여회 조회수에 1600여 회 좋아요와 293개의 댓글이 달렸다. 두영상을 함께 보는 것도 선불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길이 되지 않을까.

쇼 츠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법회

www.youtube.com/shorts/ivbSOJ7Oi_4

SCAN ME

10월 5일 진행된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법회는 많은 미디어를 통하여 생중계됐다. 특히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는 특설무대가 마련돼 식전문화공연이 눈길을 끌었다. 또 특설무대에 취임 이후 방문한 진우 스님을 보기 위한 많은 관중들이 몰렸다. 취임법회 구석구석에서는 핸드폰 영상 촬영을 통한 현장 쇼츠 영상이 업로드되어 행사 소식을 보다 현장감 느껴지게 전달했다.

특히 BBS불교방송이 현장쇼츠로 올린 '사부대중에게 인사하러 오시는 진우 스님' 영상은 취임법회 후 깜짝 행보로 일반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나선 총무원장 스님의 모습을 담아 1만 9000여회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BBS불교방송이 진행한 특별중계방송 취임대법회 조회수가 1만 3000여회 수준임을 감안하면 짧은 쇼츠영상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이다.

쇼츠 영상 댓글에는 진우 스님의 취임에 대한 축하 댓글과 함께 "종지를 바로 세워 바른 불교, 세상에 빛이되게 하소서" 등의 바람을 담은 내용이 많이 실렸다.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경남 고성 대명사,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불지정론 유식품
佛智正論 唯識品
완전한 성불지혜 10종현상을 모두 밝힌 불지증입佛智證入 지혜총론이다.
• 오류잡설, 대승유식론 왜곡을 밝혔다.
• 무착보살, 세친, 원측 오류와 6조단경지혜를 점검했다.
• 정定과 혜慧의 지혜상승성불과정세계를 모두 밝혔다.
• 이입과 행입, 일상삼매와 일행삼매 지혜세계를 모두 밝혔다.
• 성불의 보살지혜상승과정 실증세계를 모두 밝혔다.
• 아함경 불설 6식, 7식, 8식, 9식을 모두 밝혔다.
• 심관, 법성관, 본성관, 성시선 수행세계를 밝혔다.
•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부동열반지, 불지佛智의 실증지혜 세계를 밝혔다.
세웅스님 역저 / 1권 1204쪽 / 2권 1176쪽
신국변형판 / 정가 각 85,000원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천상·인간서 자유로운 왕 될 것"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㊵ 수기

〈원문〉 "그대는 여래의 진실한 공덕을 찬탄하였으니 이 공덕으로 한량없는 아승지겁 동안에 마땅히 천상과 인간에서 자유로운 왕이 될 것이다. 태어나는 곳 어디에서나 항상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며, 내 앞에서 찬탄하기를 지금과 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량없는 아승지 부처님을 공양하기를 2만 아승지겁 동안을 하여 마땅히 보광 여래·응공·정변지가 될 것이다. 그 부처님 나라에는 나쁜 과보를 받는 일이 없으며, 늙고, 병들고, 쇠하여 귀찮은 뜻에 맞지 않는 괴로움이 없다. 또한 좋지 못한 악업의 이름마저 없다. 그 나라의 중생들은 몸과 힘과 수명과 다섯 가지 욕락이 모두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다 즐겁기만 하여 타화자재천의 천상세계보다 나을 것이다. 그 세계의 중생들은 순수하고 한결같은 대승에서 온갖 선근을 닦아 익힌 이들만이 모여 사는 곳이니라. 승만 부인이 수기(授記)를 받았을 때 한량없는 중생들과 천상의 사람들이 그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였다. 세존께서는 모두 왕생하게 될 것이라고 수기하였다.

〈강설〉 부처님이 승만 부인에게 수기를 주면서 하신 말씀이다. 수기(授記)란 범어 비야카라나(毘耶佉梨那 : Vyakarana)를 번역한 말로 불법을 수행하는 이에게 부처님이 미래 어느 때에 부처가 될 것이라고 미리 보장해 주는 말, 곧 예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원래는 구별(區別)·분석(分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교설에 대한 분석, 문답 방식으로 전하는 교리해설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나중에는 뜻이 바뀌어 미래세에 성불한 뒤 얻을 명호를 예언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수기설은 〈아함경〉에서도 설해져 있고 또 〈수기경(授記經)〉이라 하여 9부경 혹은 12부경으로 분류한 그 가운데의 한 부류를 〈수기경〉이라 하였다. 그러나 성불에 관한 수기는 대승경전에 보편적으로 설해져 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수기를 주는 장면이 여러 품에 걸쳐서 나온다. 28품 가운데 '수기품', '오백제자수기품', '수학무학수기품'의 세 품이 모두 수기를 주는 내용이다. 이 밖에 〈무량수경〉에도 법장비구가 세자재왕불(世自在王佛)로부터 수기를 받고 아미타불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 수기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인차별수기(人差別授記)와 때에 따라 달라지는 시차별수기(時差別授記)가 있다. 또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주는 현전수기(現前授記)와 면전에 없는 사람에게 주는 불현전수기(不現前授記)로 구분하기도 한다. 아무튼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되고자 하는 불교에 있어서 성불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더없이 영광스럽고 지극한 일이다. 병을 앓는 환자에게 병이 나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결정적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야 말로 최대의 희망이 되는 것처럼 성불을 보장받는 것 이상의 가치는 없는 것이다.

아승지는 대수(代數)로 쓰이는 용어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화엄경〉 '아승지품'에 124개의 대수 용어가 설해져 있다. 겁(劫)이란 말은 가장 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인데 찰나(刹那)와 상대되는 말이다. 부처님을 찬탄한 공덕으로 아승지겁을 인간과 천상의 왕이 되었다가 2만 아승지겁 동안 한량없는 부처님을 공양하여 보광여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준 내용이다. 고도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이야기로 씨앗 하나가 수많은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 그 양(量)이 점점 증가하여 무한대로 이어지듯이 작은 인연에서 시작하여 성불을 기약하는 큰 인연이 오게 되는 미묘한 이치를 설하고 있다.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은 욕계의 가장 높은 천상세계이다. 변화가 자재하여 온갖 즐거움을 마음대로 누리는 천상이라 한다. 승만 부인이 성불할 때 보광여래의 세계에 가서 태어나기를 원한 중생들과 천상인에게도 왕생을 보장해 주는 수기를 주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자성불 깨닫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㊸ 중생심 바로 알고 자성불 깨닫자

무명 제거하려면…

무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알아야 할 것 중에 그 첫째는 마음이다.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서는 무명을 제거할 수 없다. 그리고 왜 내가 중생이 되었는지 그 이유도 알아야 한다. 또한 부처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첫째는 '분별'이다. 내 마음이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별하지 말아야 한다.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알려고 하는 한 생각을 없애야 한다.

한 생각, 즉 일념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은 분별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끝없는 구원겁(久遠劫) 이전부터 윤회의 삶 속에서 중생의 삶으로 무명심을 계속 키워왔고, 그 무명심으로 인한 생명체의 활동에서 훈습이 되어 왔고, 그 훈습으로 인하여 또 마음을 오염시키고 이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여기서 우리 마음 바탕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나의 본성의 참 부처님, '참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분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요동치지 않게, 한 생각을 멈추어야 하는 것이다. 찾으려고 하는 생각도 없이, 구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이, 한 생각이 그대로 멈추었을 때 그 자리는 바로 영겁 동안에 쌓아온 무명이 모두 제거된 진여본성의 반야지혜((般若智慧)가 그대로 온 우주법궤(宇宙法軌)를 비추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믿고 따라서 실천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분별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중생이다'라는 생각도, 들면 들수록, 알면 알수록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6. 결론

우리의 진실한 의지처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진여본성 뿐이다. 부처님은 〈대반열반경〉에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여기에 스스로를 주(洲)로 하며 스스로를 의지할 곳(依所)으로 삼아라. 다른 사람을 의지할 곳으로 삼지 말며 법(法)을 주(洲)로 하며 법을 의지할 곳으로 삼아 다른 이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주(洲)'는 '강변', 또는 '뭍'을 말한다. 즉 모든 것이 변해가는 세상에서도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뭍은 언제나 그곳에 있듯이 변함없이 영원한 삶의 발판이 주(洲)인 것이다.

〈법구경〉 380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을 일러 주셨다. "진실로 자기는 자기의 주인(主)이며 자기는 자기가 의지할 곳(依所)이다. 그런고로 자기를 잘 다스려라. 마치 상인이 양마를 길들이듯이."

또 〈법구경〉 23권에서 이르기를 "자기가 의지할 곳은 자기뿐이로다. 다른 곳 어디에 의지할 곳이 있을 것인가. 자기가 잘 조어되었을 때 사람들은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곳은 사람, 돈, 권력, 명예 같이 무상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 속에서도 흐르지 않는 주(洲)와 같이 자기 자신의 참 본성인 진여본성과 영원한 진리에 의지해야 한다.

△스스로의 참 마음이 곧 부처

지혜로운 자는 자기 스스로의 참 마음이 부처요, 진리요,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우주의 근본주체임을 믿는다. 그래서 망상분별을 일으키는 중생의 마음을 걷어내고 진여본성을 드러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정화시켜 본래 모습을 발현시키고자 노력한다.

구름에 의해 가려진 태양일지라도 그 빛은 항상 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비록 무명에 가려져 중생심이 되었지만 무량한 공덕을 갖춘 진여본성인 자성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반야의 빛을 놓으며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괴로움을 없애고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중생의 마음을 바로 깨쳐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가 본래부터 구함 없이 스스로 갖추고 있는 본래 부처임을 믿고 자성불을 깨닫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㊵ 불의 비유와 밧차곳따의 경 1

스스로는 존재 방법 없어

"그러므로 여래는 모든 환상, 모든 혼란, 모든 '나[我]'를 만드는 것, 모든 '나[我]'의 것을 만드는 것, 자만의 잠재의식을 부수고, 사라지게 하고, 버려 버리고, 놓아 버려서, 집착 없이 해탈한다고 '나[無]'는 말합니다."

단편적인 태어남의 뿌리에서 생겨난 견해는, 좋고 나쁜 대상과 편안하고 불편한 대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견해의 본질을 보게 되면 아지랑이 같아 출발한 곳이 없다. 순간적으로 결합된 인연과 조건이 잠깐 모여 나타난 신기루 같은 모습들인데, 뭇 삶은 견해의 옳고 그름의 뿌리를 찾고자 한다. 그러나 그 견해라는 것은 환상에 의한 이미지의 표현들이지 사실적인 모습으로 보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사실적인 모습이 아닌데 왜 속고 있는 것인가? 속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일반적인 사고(思考)로는 모양을 가지고 모양이 아닌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였지만, 마지막에 남은 나의 존재를 의심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그는 그 생각을 하는 주체인 '나라는 것'이 있다고 보았다. 수행자들도 여기에 봉착하게 되면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곳에 도달하게 되면 관념을 정립해야 하기 때문에 나름의 결론을 내게 된다. 감각 기능의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그 감각 기관을 가지고 있는 '나[我]'에 대한 오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 거창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지게 한다. 왜냐하면 항상 본질에 대한 진실보다는 개체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을 사실처럼 확신하여 주장하기 때문이다.

의식 속에 '텅 빈, 만들 수 없는'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그 주체를 온전히 버리지 않으면 '나[我]'와 '나[無]'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환상의 존재로서 존재 아닌 존재를 표현하고 나타낸다는 것은 사슴을 가리켜 말[馬]이라 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닌 것을 그것이라 하여 사람을 농락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본질을 안다는 것은 '나[無]가 아닌 것'과 '나[無]인 것'이 분명해져야만 모든 환상에서 집착 없이 해탈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무엇을 부수고, 사라지게 하고, 버리고, 놓아 버려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그럼 '나[無]'를 어떻게 아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참으로 '나[我]'를 인식하지 않는 순간이 아주 많이 일어나지만, 밖으로 들리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질문에 답을 찾는 일이 아닌 답을 찾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

삶에서 항상 누군가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움직이는 첫 생각을 바르게 보라. 그것이 누구의 움직임인가를.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듣고 알려고 하는 첫 생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면, '나[無]'를 찾아 헤매던 것이 그림자가 주인이 되려고 발버둥치는 꼴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참으로 오랫동안 그림자와 동행하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만들고, 부수고, 버리고, 주워가며 어느 때는 '나'가 되었다가 어느 때는 '너'가 되었다가를 반복하였다. 종잡을 수 없이 변하는 마음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웃고 울고 하였던 세월이 모두 그릴 수 없는 그림이라는 말이 들릴 때, 어디에도 흔적 없는 '나[無]'를 대면하게 된다.

그러고 나니 환상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알아야 할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모른다고 할 것도 없다. 일체는 저절로 부수어지고, 저절로 사라지고, 저절로 버려지고, 저절로 놓게 된다. 다시 더 나타나고 사라짐이 없어 견해를 그려야 하는 물감이 없으니, 그림을 의뢰하는 오온이 주연의 역할을 잃어버린다. 주연 역할이 없어지면, 혼란에서 벗어나 사실적인 것이 확연하므로, 모든 '나[我]'를 만드는 것, 모든 '나[我]'의 것을 만드는 것, 자만의 잠재의식이 텅 비어 사라져버린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금강경한문+법화경강좌

부산

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장소 : 부산역 앞 광장호텔 뒤 참맛집 5층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200-13)

대구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장소 : 이시아 폴리스 태왕아너스타워 상가1층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41)

- 동참자격 : 불교정법 공부를 서원 하신 분
- 수강회비 : 무료 (단, 교재비 3만원 자부담)
- 교육기간 : 1년 2학기 (수시모집)
- 문의전화 : 010-4501-8711

嶺南僧伽大學 總長 崔 空 德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4만원/회 ◆가로 8㎝: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09호 | 17 | 전면광고

원하건대 부디 법우(法雨)를 내리시어
법의 싹이 널리 돋아나 자라나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읽기 - 《마하마야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계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울산태화영산회 회원모집

❖ 제1기생 학인모집 00명
❖ 수료후 영산회 회원 가입 자격 부여
❖ 작법무 천수바라 서울 소리 범음 범패
❖ 각종 사찰 행사 전담 문의
❖ 승속 종단 불문 가입, 재가불자 가입가능
❖ 교육기간 6개월 교육비 무료

010-9190-5896
010-4147-1999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영통철학 1개월 완성

◈ 1주일에 1회 개별 책임교육
◈ 불교 비급전수
◈ 3주후부터 상담가능

정 광 합장
(동국대 대학원 석사졸업)

전화 010-3936-2295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지역
• • •
010-8721-2198



추천 - 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

• • •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
행자 하실 분
모십니다.
• • •
010-2078-9595

• • •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시 강서구
보시는 상담후 결정
• • •
010-3570-0144

"영험약수"로 힐링(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 식약청 46가지 검증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33-336-2309 / 010-4804-2309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땅 양도 안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사주명리, 상담 가능한 "비구니스님 및 보살님" 특별대우로 모십니다.

대전시내 중심 원광사 ◈ 출가자 상담환영 ◈

042)252-2034, 010-3422-3232

관상(손금) 성철 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묘터 물 찬곳, 암,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상, 배우자가 일찍 죽을상
- 스님, 무속인, 법사, 무당, 공무원, 일반인 특별개인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구성학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빙의로 몸이 항상 아프신 분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 특별 비법 지도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상술 비법 전문지도

- 장기간 공양주 하실 분, 부부 환영
- 충청북도와 강원도 경계에 공기 좋고 경치, 교통 좋은 사찰내에서 요양원 운영할 분
- 장기간 부전이나 절을 운영할 스님

연락처 010-8945-1424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전생에 "도선국사"

샛별을 보고 득력, 1년에 햇무리 무지개가 30일 이상 뜹니다. 음택, 양택, 명당 한자리를 찾아주면 햇무리 무지개가 뜹니다. 마곡사, 보리암, 연주암 같은 명당은 전국에 80여 군데나 비어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충남 계룡산 신도안으로 이전하면 국운상승, 남북통일이 2030년 안으로 됩니다.

기축생 경력 35년 관상 이무기상 청룡당 남 원명스님 합장

(부산) 전화 : 010-4413-3377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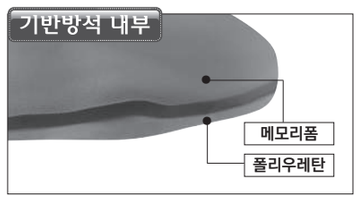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09호 | 18 | 전면광고

깊은 바다는 파도가 없으며 늘 고요하고 잔잔하다. 마음에 평정을 이룬 사람도 마찬가지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가액 : 25억원

◎ 위치 : 부산
◎ 부지 : 110평
◎ 건평 : 약100평
◎ 산 및, 주차가능
◎ 가액 : 8억 5천만원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터 다량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경남 사천 넓은 도량 사찰입니다.
- 부지 총면적 : 54,944㎡(16,620평)
- 건물 총면적 : 269.95㎡(81평)
- 가액 : 15억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양도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 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2천5백만원(조정 가능)
- 노스님 몸 아픈 관계로 급 양도
- 가전제품 보시 ●당일법회 가능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카페, 공양간 30평/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앞산(큰도로변 2층)
- 사찰 이전관계로 급 임대
- 보증금 : 3천만원
  월 : 110만원(부가세포함)
- 시설비 상담후 조정

010-6302-382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시내에서10분거리)
- 대지 : 종교부지 500평, 밭포함, 약 1000평
- 건물, 법당, 산신각, 요사채 (현대식건물), 법당 집기 일체 포함
- 가액 : 4억5천만원

010-5581-3081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 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603번지) ●대지 : 700평 외 전(실사용 천평) ●건물 : 법당, 산신각, 칠성각, 용왕당 ●요사채 : 황토방 2동, 슬라브 2동, 헤우소 1동(문 5개) ●유실수 다량 ●따뜻한 남향, 도로 포장, 차량진입, 주차장(10대), 주변에 개발지역 ●가액 : 5억원

010-9203-1165
010-9564-1165

지리산 명당터 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소재
- 대지 종교부지 전 임야 총 16,000평 택지개발 3,000평 분할매도 가능
- 건물 36평 2동, 8평 2동, 지리산 웅석봉 아래 백두대간 정혈 큰터, 청계호수를 바라보는 정남향 절경
- 답사 상담 협의 후 가격 결정

010-4752-0459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 물금신도시
- 사용대지 : 250평 중 개인땅 93평
- 산속에 아담한 암자
- 가액 : 3억5천만원

010-3497-1471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지60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2동,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 스님 노환으로 급 양도
- 시내 인접, 집기 무료 제공
- 가액은 상담 후 결정

010-2366-2821

사찰(3,4복층)안내

- 위치 : 김해시 내외로11번길 3-19
- 3층 : 넓은 법당(옥향로, 촛대, 공양기) 시설완벽, 스님방, 넓은주방, 화장실
- 4층 : 아주 큰방1, 작은방2(살림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법당 시설비 일체 : 1천5백만원
- 비품 일체(5백만원상당) 무료제공
- 스님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

010-5458-2955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7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임법당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 대지 : 326평, 본채40평, 별채40평, 공양간10평, 큰창고 2개, 방7, 욕실3, 화장실4, 산신각, 지장전
- 가액 : 4억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008-03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상대동 3층중 2층
- 법당34평, 삼존불, 신중탱화, 산신당, 방1개, 화장실
- 보증금 5백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됨

010-7476-9002

멋진사찰(급급)안내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지 : 약 173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5평
- 요사채 : 1동 약 23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액 : 3억2천만원에서 5천만원 빼드림

010-4999-5622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50평(방, 친견실)
- 시설비 3천2백만원 (2개월전 완전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5511-7000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소재
- 대지 1600평
- 건평 100평(대웅전, 요사채, 사무실)
- 산세 수려한 청정지역
- 주차장 완비
- 가액 : 12억원(절충가능)

010-2857-2811

월출산 절터 안내

① 위치 : 전남 영암군 미암면 남산리 40, (답 197평), 21년 10월 진입로 포장(폭4m) : 건축가능, 연중 마르지않는 산 샘 : 단독사용
② 남산리내(전512평) : 청정계곡, 주변마을 없음
③ 합계 : 6천만원

010-3921-7590

포 교 원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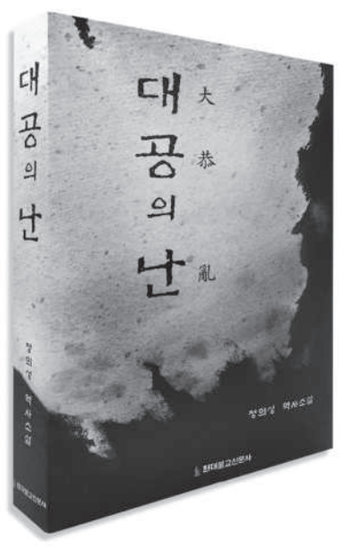
- 위치 : 대구시내 지하철 역세권(150m)
- 3층 건물에 3층 약50평, 옥상 사용가능
- 10년 이상 운영(타지역 이주 관계)
- 도시가스 난방,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집기 일체)
- 방편있는 스님 유리,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백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5백만원

010-9231-6825

사찰·암자안내

- 위치 : 부안 개암사 ~ 청자박물관, 바닷가 5분거리(3천평 개발가능)
- 토지 5만평, 한옥 1채
- 가액 5억원(일시불 3억원) 급 양도, 나머지는 5년간 분할상환
- 자연원시림 보존 잘됨, 계곡, 기암절벽, 야생 차나무, 100년 이상된 홍송 수천그루, 부귀 풍수 대명당

010-9647-0723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 ⇨19,8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 -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배철완	T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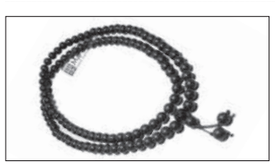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⑳ 속리산 법주사 전나무

돌아가도 빨리 가도 단풍은 든다

네비게이션을 켜지 않은 차는 10년 전 기억을 더듬어 말티재로 들어선다. 청주에서 법주사까지 빨리 가려면 고속도로를 타야 하는데, IC까지 멀어 국도로 간단다.

높다는 마루의 준말 '말'과 고개라는 '티'를 합한 말티재 길이 난 건, 신라 진흥왕 14년(553년) 인도에 다녀온 의신조사가 법주사를 세우기 위해 우거진 산림을 헤치고 걸었기 때문이었을까? 이후 속세와 분리되었다는 속리산 안에 항시 법이 머물러 있다는 사찰을 찾아가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길은 넓어지고 단단해졌을까?

박석재라고도 불리는 꼬부랑길은 고려 태조 왕건이 법주사로 행차하면서 얇은 돌 즉 박석을 깔았기 때문인데, 그 시기 천년 고찰은 더 크게 중창이 되었단다, 조선 초 세조가 신미대사를 찾아가면서 더 좋아졌을지도 모르지만, 조선 중기를 거치면서 60여 동의 전각과 70여 개의 암자를 거느린 대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모두 소실되었고, 사명대사께서 팔상전을 중건한 뒤 벽암 스님이 다시 중창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졌고, 2018년 6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다.

차로 넘어가는 도로가 건설되기 전, 새끼 꼬듯 심하게 뒤틀린 길은 아니었겠지만,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걷고 걸어 분지에 자리 잡은 법주사에 다다르면, 속세에서 덕지덕지 붙은 욕망의 때가 충분히 벗겨질 거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다. 그 마음으로 말티재를 벗어나면서도 분명 직선에 가까운 국도가 생겼을 거라는 질문을 가졌지만, 은거하듯 사는 차주에게 차마 말을 꺼낼 수는 없다.

평지에서 산을 넘고 다시 평지로 오니 속세가 펼쳐지는 듯했지만, 고고하게 위풍당당한 정이품송을 보니 오르락내리락하는 고갯길보다 못하게 분란하는 마음이 부끄러워진다. 수령 600살로 추정되는 벼슬 소나무의 높이는 14.5m, 가슴높이의 줄기 둘레는 4.7m란다. 1993년 서쪽 가지가 강풍으로 부러져 균형을 잃은 듯하지만, 살짝 걸음을 옮기면 원추형으로 온전해 보인다. 그래도 아쉬운 건 그 오랜 세월에도 소나무 최대 높이인 35m까지 자라지 못한 연유가 혹 주변을 많은 사람들이 밟아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땅도 숨을 쉬어야 그 사이로 뿌리가 뻗어가며 쭉쭉 생장을 해나갈 텐데, 답압 정도가 심하면 숨통이 막혀 지장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매표소 지나 세조길 자연관찰로는 평탄해 걷기가 좋다. 그런데 계수나무, 까치박달, 고로쇠나무



천왕문 앞 전나무 사이로 금동미륵대불이 보인다.

들이 짙은 그늘을 드리울 뿐 소나무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정이품송 기세에 눌려서 숨어 있나 싶었는데, 일주문에 들어서니 길 옆 숲에 소나무가 무리지어 자라고 있다. '호서제일가람'에 이어 '속리산대법주사' 현판까지 눈으로 보고난 뒤 다시 살피니 일주문을 훌쩍 뛰어넘는 높이에 큰 기대를 안아본다. 속세의 벼슬이 무용지물이 되는 평등의 공간에 하늘을 찌를 듯한 소나무가 있을 것 같다.

속리산 입산만으로도 속세와 이별한 듯한데 계곡 위에 놓여 있는 수정교까지 건너니 굳이 애쓰지 않아도 깨끗한 마음이 몸 안 가득 번져 모든 시름이 사라질 것 같다. 하지만 금강문 지나 전봇대보다 높은 크기로 꼿꼿하게 서 있는 두 그루의 전나무를 마주하니 소나무가 아닌 것에 섭섭하면서도 언뜻 전나무 최대 높이인 40m에 육박하는 듯 보여 감탄이 툭툭 튀어 오른다. 생각이 사라질 틈도 없이 왜 이곳에 전나무라는 궁금증이 요동을 친다.

소나무과 상록교목인 전나무는 구불하게 자라기도 하는 소나무와 달리 곧게 자라고 재질도 좋아 기둥재로 적합하다. 집단으로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편백나무 다음으로 피톤치드가 많아 벌레에도 강하다. 그래서 깊은 사찰 주위에 많이 심었다고 하는데, 곧게 자라면 나무 사이로 멀리 내다볼 수 있어 위험 요소 대비가 쉽다. 피톤치드가 많으면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어 수행하기에 좋은 여건이 된다. 상록침엽수이기에 눈이 많이 와도 잎 때문에 덜 싸여 이동하기가 조금은 자유롭다.

더는 전나무 존재 이유에 대해 파고들 게 없다. 베지 않고 살아 있어 천왕문 사천왕을 압도하는 듯한 위엄에서 나무가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생명체라는 걸 실감하게 한다. 그런데 전나무 사이로 33m 높이의 금동미륵대불이 보인다. 눈대중으로 자세히 보니 인공물이 자연물보다 조금 높은 것 같다. 만일 그곳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112.6m의 '자이언트 세쿼이아'가 있었다면 시선은 달라졌을 것이지만, 굳이 엮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금동미륵대불을 지나니 두 그루의 보리자나무가 단풍이 들 준비를 한다. 그곳을 지나 전나무가 이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법주사 대웅보전을 참배한 뒤, 현존하는 목조 건물로 가장 높다는 국내 단 하나의 5층 목탑 팔상전을 둘러본다. 그리고 밟아도 밟아도 높디높게 자란 전나무에 인사하고는 청주로 돌아가는데 잘못 들어선 길이 직선 국도다. 앞으로 이 길로 오면 더 빨리 법을 마주할 수 있으려나. 곧 속세에도 속리산에도 단풍이 곱게 들겠지.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⑲ 이성선의 '구도'

순결하고 간결한 삶 위한 블루스

구도(求道)/ 이성선

세상에 대하여
할 말이 줄어들면서
그는 차츰 자신을 줄여갔다.

꽃이 떨어진 후의 꽃나무처럼
침묵으로 몸을 줄였다.

하나의 빈 그릇으로
세상을 흘러갔다.
빈 등잔에는
하늘의 기름만 고였다.

하늘에 달이 가듯
세상에 선연히 떠서
그는 홀로 걸어갔다.

–이성선 시인 20주기 추모 시선집 〈고향의 천정〉, 서정시학, 2021–

순연해진다. 이성선 시인 자신이 이 시처럼 순연한 시인이다. 짧고 맑은 시인이다. 시인의 그 간결을 위해, 시정(詩情)을 위해 시 몇 편 더 맛보고 가자.

"나뭇잎 하나가/ 아무 기척도 없이 어깨에/ 툭 내려 앉는다// 내 몸에 우주가 손을 얹었다// 너무 가볍다" –같은 시집, 〈미시령 노을〉 전문

"저무는 들판에/ 소가/ 풀을 베어 먹는다.// 풀잎 끝/ 초승달을 베어 먹는다.// 물가에서 소는/ 놀란다./ 그가 먹은 달이/ 물 속 그의 뿔에 걸려 있다.// 어둠 속에/ 뿔로 달을 받치고/ 하늘을 헤엄치고 있는 제 모습 보고/ 더 놀란다." –같은 시집, 〈달을 먹은 소〉 전문

"내설악에서 밤에/ 우주 전체가/ 계곡 물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길을 따라 들어간다// 아무리 찾아도/ 절이 없다." –같은 시집, 〈오세암〉 전문

이번에는 위 시들보다 '쬐끔' 더 긴 시 한 편만 더 읽어보자. '쬐끔' 더 긴 시에서는 어떤 시정을 보여줄까.

"내 몸이 다 비어지면/그대 곁에 가리라./ 겸허한 손 깨끗한 발로/ 그대에게 가서/ 쉬리라./ 잠들리라./ 그대 영혼의 맑은 사랑을/ 내 빈 그릇에 담고/ 내 꿈을 그대 가슴에 담아서/ 잠 속에 눈부신 나비가 되리라./ 금빛 침묵의 땅에/ 꽃처럼 떨며 열려서/ 사랑을 고백하리라./ 티 없는 눈빛으로/ 그대와 함께 걸어 강에 가서/ 엎드려 물을 마시리라./ 노래 부르리라./ 다 비우고 빈 몸으로 깨어나/ 새 악기가 되어서." –같은 시집, 〈내 몸이 비어지면〉 전문

그래. 이성선 시인은 2001년 위의 시처럼 60세의 나이에 그 "몸"을 "다 비우"고 "그대"(우주, 소, 달, 부처) "곁"으로 갔다.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했다. 그렇게 가서 지금 "쉬"고 있다. 그리고 이따금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고, "새 악기"가 되어 "노래 부르"고 있다.

이처럼 '쬐끔' 긴 시에도 잡티가 하나도 없다. 이처럼 순결하고 순연한 시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떤 시정으로, 어떤 우주로 태어났기에 이처럼 맑고 정결할까. 고형렬 시인은 이를 일러 "세상에 시인이 별처럼 많지만 끝까지 시인인 사람은 드물고 죽어서도 시인인 사람은 더 드물다. 또 그리워지는 시인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은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시간은 기억을 폐쇄회로 안에 전자 암호로 가둔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희석(稀釋)시키고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사람도 풍경도 역사도 선별적인 이름이나 형용사로 남는다. 그(이성선 시인)를 해석할 수 있는 적합한 비평의 버전이 없지만 그가 지녔던 혼돈과 정갈함, 치열함, 언어의 파도를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다. 그것은 그가 나에게 규정되지 않은 한 줄기의 강한 소나기처럼 살아 있다는 뜻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실 필자가 출가하기 전, 이성선 시인의 시를 읽으며 '좀 가볍고 노장(老莊) 세계에 너무 함몰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런데 그가 작고한 뒤, 그리고 필자가 출가한 뒤 그의 시(시집)을 다시 읽으며 필자는 필자가 이성선 시인의 시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성선 시인의 시는 '노장의 세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러나 노장적 색채가 가미된) 불교적 (그리고 우주적)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이성선의 시에서 '자연은 단순한 주객일치나 조화의 대상을 넘어서, 종교적 구도와 합일의 대상'(최동호의 〈한국적 전통과 현대 불교시의 전개〉에서 인용)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성선 시인이 생전에 펴낸 12권의 시집(〈시인의 병풍〉, 〈하늘문을 두드리며〉, 〈몸은 지상에 묶여도〉, 〈나의 나무가 너의 나무에게〉, 〈별이 비치는 지붕〉, 〈별까지 가면 된다〉, 〈새벽 꽃향기〉, 〈향기나는 밤〉, 〈절정의 노래〉, 〈벌레 시인〉, 〈산시〉, 〈내 몸에 우주가 손을 얹었다〉)은 모두 '불교적(불교 우주적) 세계'가 관통하고 있다. 이성선 시인은 그 속내를 〈나의 시세계〉라는 산문을 통해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나의 시는 나에게로 가는 문이다. 나의 시는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찾아가는 고행의 발걸음이며 하늘로 가는 문이고 지옥으로 향하는 몸짓이며 동시에 지옥과 천당을 한 몸에 지니고 가는 자의 노래이다. (……) 자기를 상실한 인간은 끝내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또 다른 자기를 찾아 헤매야 했고, 인간으로 태어나 함께 길들여져 온 나 또한 이 잃어버린 나를 찾아 헤매게 되었으니 이 고통 속의 헤맴이 내 시작업의 길이다."

그의 간결이, 고통이, 순결이, 순정이, 순연이 느껴지는 커밍아웃(coming out)이다.

"해골 파먹어 들어가는 벌레처럼/ 산에 달이 지고 있다./ 하늘은 어둡고 땅은 깜깜해/ 산은 허깨비 같은 큰 키로 일어나/ 그림자로 나를 덮는다./ 나는 그것을 덮고 잔다./ 이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나는 다시 혼자 깨어/ 불을 켜고 일기를 쓰다가/ 시를 쓰다가 멍하니 앉았다가/ 낙엽 지는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가 본다./ 내 몸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난다./ 달은 나를 뚫고 내려가 이미 폐를 파먹고/ 산이 벌레를 숨겨 기른다./ 그 신음이 대지에 풀잎을 흔들고/ 들을 깨우고 개울을 건너/ 내게로 온다./ 내 속에서 바람이 자랐다./ 그때부터 내 속에서 슬픈/ 벌레 시인이 자랐다." -같은 시집, '벌레 시인' 전문

이제, 이성선 시인의 순정을, 고통을, 순연을, 우주를 조금은 알겠다. 이 시인이 왜 불교와 불교적 우주관에 천착하고, 삶에, 시에 얼마나 도통한 시인이었는지 '쬐끔'은 알겠다. 이성선 시인은 시작부터 그런 시인이었던 것이다.

〈불교문학연구소장〉



김병전 대표의 지금, 명상의 시간 ⑩ 평정심의 활용



▶한줄요약
갈수록 치열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마음챙김 효과에 주목하는 직군이 증가하고 있다.

명상, 변호사들을 구원하다



일류 기업 간의 법적 분쟁은 그야말로 돈 싸움이다. 경영권이든 특허권이든, 천문학적인 액수의 이익을 두고 공방을 벌인다. 그리고 세계적인 법률 회사들이 이들의 소송을 대리한다. 글로벌 로펌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능한 변호사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이들은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이고 일반인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래서 얼핏 하늘 위를 걷는 사람들로 보이지만, 사실 이들의 마음속은 지옥에 가깝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엄청난 부와 명성만큼이나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갖고 사는 경우가 많다. 최근 법조계에서 마음챙김 명상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미국의 변호사 중 상당수가 알코올이나 마약에 의존하고 있다. 수면장애는 물론 대인관계에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가 부지기수다. 1990년 워싱턴과 애리조나에 있는 1,148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우울증 환자가 일반인 평균인 3~9%를 훨씬 상회하는 19%로 나타났다. 또한 18%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다. 2016년에는 미국 내 12,000명의 변호사를 상대로 스트레스, 불안, 우울, 약물 남용의 정도 등을 조사했는데, 이들 중 20%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수치를 기록했다. 의뢰인에게 수조 원의 돈을 벌어다 주려면 응당 수조 원짜리 스트레스를 짊어져야 하는 법이다.

변호사들의 아픔은 변호사들이 가장 잘 아는 법이다. 동병상련이다. 뉴욕,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메사추세츠, 콜로라도, 덴버, 플로리다 등 미국 10여 개 주(州) 지역 변호사 협회에서는 소속 변호사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마음을 치유해줄 강연회도 자주 개최한다. 또한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변호사 명상 그룹(Contemplative Lawyers Group)도 활동 중이다. 협회의 산하 단체 또는 비공식적 모임 형태로 마음챙김 명상을 수행하는 그룹이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명상을 하거나 명상 수련회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는 변호사를 위해 명상의 가치와 방법을 소개하는 책자를 출판하고 있기도 하다. 정신건강과 사고력 증진, 의뢰인에 대한 친절, 공동체에 대한 관심 등을 위한 실용적인 수단으로 마음챙김 명상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명상을 장려하는 협회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일과 삶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보다 넓은 시야와 열린 가슴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이애미대학교 법대에서 법조인을 위한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개발한 스콧 로저스(Scott L. Rogers) 교수는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법조인에게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마음챙김은 인지능력, 정서지능,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는 멘탈 훈련 프로그램이다. 유능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고객 중심 자문 역량, 심도 깊은 사고력,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창의적인 법률 해석과 문제 해결력을 강화시킨다." 마음챙김 훈련은 우리의 생각, 느낌, 몸의 감각 등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재판 현장이든 고객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든,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의를 집중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즉 편견을 가지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얻는 것이다.

미국변호사협회서 적극 도입
높은 스트레스와 불안심리에
마음챙김 명상 효과 발휘해
한국 법조계에서도 관심 증대

최근에는 변호사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추세다. 변호사 출신인 카렌 기포드(Karen Gifford)와 지나 조(Jeena Cho)는 〈불안한 변호사(The Anxious Lawyer)〉라는 자신들의 저서를 통해 변호사들을 위한 8주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법조형' 마음챙김 명상이다. 이 프로그램은 바디스캔, 호흡 집중 명상, 자신과 타인을 위한 연민, 만트라 명상, 감사 명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책을 기본 교재로 하며 웨비나(Webinar), 페이스북 커뮤니티, 동영상 학습 자료, 인사이트 타이머(무료 명상 앱) 등을 가미해 학습 커뮤니티로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영국계 허버트 스미스와 호주계 프리힐즈가 합병되면서 탄생한 다국적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SF, Herbert Smith Freehills)도 주목받고 있다. 국제 중재와 자원 개발 분야가 강점인 이 로펌은 서울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17개 국가에 24개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소속 변호사 수만 약 2,800명에 이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로펌이다. HSF 호주 사무소에서 새로 합병된 조직과의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연결성을 확보하고, 업무 전반에 걸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써 구성원들의 집중력과 명확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호주 법조계 최초로 기업 기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Corporate Based Mindfulness Training Program)을 내부 지도자 육성 방식을 통해 도입했다. 마음챙김 명상을 지속적으로 훈련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내외부 고객의 니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성장과 번영을 리드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믿음은 현실이 됐다. 프로그램 실행 후 구성원의 집중력이 45%, 몰입도는 17%, 일과 삶의 균형은 34%, 업무 효율성은 35% 상승했다. 반면에 업무 중에 받는 스트레스는 35%, 멀티태스킹은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가자 전원이 자신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을 동료들에게 추천했다. 고객이 직면한 독특하고 난해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해결하는 데 마음챙김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식품회사 제너럴 밀스의 변호사겸 법무책임자에서 현재 마음챙김 리더십 전문가로 변신한 제니스 마투라노(Janice Marturano)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녀는 직장과 개인사에서 전쟁과 같은 어려움을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극복을 했다. 그녀는 매일 명상을 했고, 현재에 머물러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터득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가 공동 번역한 〈생각의 판을 뒤집어라〉라는 책을 통해 마음챙김 명상의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효과 네 가지 강조했다.

가장 먼저 집중력(Focus)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 마음이 현재를 떠나 다른 곳으로 배회하는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쓸데없는 잡념과 고민으로 방황하는 마음이 현재로 되돌아온다. 목표를 명확하게 세울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꾸준히 집중하는 힘이 길러진다. 둘째, 명료성(Clarity)이 증가된다. 마음챙김 훈련은 현재의 문제를 또렷이 직시하는 능력과 기존의 습관적 시각에서 벗어난 혁신과 도전적 관점을 길러준다. 셋째는 창의성(Creativity)이 잘 발현된다. 마음챙김 훈련은 기존의 통념과 관성으로부터 의식을 해방시킨다. 과거의 생각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훈련을 지소가면 창의성을 위한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연민심(Compassion)이 드러난다. 마음챙김 훈련의 가장 큰 의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것이다.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

한편, 변호사들을 양성하는 로스쿨에서도 마음챙김은 인기다. 2000년 중반 이후 미국 내 10여 개 로스쿨에서는 마음챙김 명상 수업을 정식 교과 과정으로 신설했다. 기존 교과 과정과 통합해서 운영하기도 한다. 이 분야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쿨의 론다 메기(Rhonda V. Magee) 교수가 선두주자다. 그녀는 과거에는 법학이 외부 관찰과 추론에 전적으로 근거했다면, 미래는 과거 모델에서 벗어나 내적 관찰과 성찰을 포함하는 새로운 모델로 패러다임을 옮겨가야 한다고 말한다. 로스쿨 학생들과 법률가들에게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사고 그 자체를 사고하는 '메타인지(Metacognition)'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래야만 더욱 명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그녀는 명상을 법학 교육의 중심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현재 미국의 로스쿨 중에서는 마이애미 로스쿨이 가장 적극적으로 마음챙김을 활용하고 있다. 〈법에서의 마음챙김(Mindfulness in Law)〉, 〈마음챙김과 전문가 책임(Mindful Ethic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for Lawyers in the Digital Age)〉, 〈마음챙김과 리더십(Mindfulness & Leadership)〉 등이 정식 교과목으로 운영 중이다.

이제는 국내 법조인들도 명상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서울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현재와 같은 1,500명으로 가정하고 변호사의 은퇴 시점을 75세로 잡았을 때 2050년에 변호사 수가 7만 2,952명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한다. 변호사 1인당 연간 수임 건수와 연간 수익은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고수익 전문직을 대표했던 변호사라는 직업의 매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법률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로펌의 국내시장 진출까지 감안하면, 국내 법률 시장은 그야말로 제 살 깎아먹기의 전쟁터가 될지도 모른다. 이처럼 치열해지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아직은 법조인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전문 직업군 대접을 받고 있지만, 그 위상이 점차 낮아지고 경쟁 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전보다 훨씬 힘들어졌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다. 이제 국내 법률 시장에서도 명상이 필요해 보인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판단력 등 업무 능력 강화를 위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법조인으로서 윤리 강화를 위해, 전문가로서 자존감 회복을 위해, 로스쿨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 로펌의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변호사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일까? 그렇지 않다. 어느 분야에서든 최고의 경쟁력은 '멘탈'을 잡는 것이다. 멘탈을 잡는다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삶에 대한 긍정이 선행될 때 노동의 긍정이 가능해진다. 스스로를 부처라 여기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부처의 일로 여길 때, 비로소 깨달음을 이룰 수 있고 참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

불교 디자인 현수막 및 각종 불교 용품 판매

원하시는 크기, 내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2023 불교카렌다 주문 받습니다
카다로그가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도서출판 다연기획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4길 14 (조계사 옆) Tel 02)723-4301 Fax 723-4303 lotus4301@daum.net 농협 053-12-162413 (남정숙)



대행 스님

어떤 죽을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주인공에 되돌려 놓아야 한다

지난 호에 이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한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높은 것도 높고 낮은 것도 높고, 풀포기는 풀포기대로 높고, 높지 않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독존이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 당신만이 높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광대하고 심오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길이 바로 불교던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부부가 싸우는데 울화가 치밀면, 겉으로는 말 못 하고 속으로만 '어유, 나한테 그래 봐. 뭐, 저한테 좋은 일이 생기나? 인제 저러다가 큰코다치지.' 하는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코다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식들이든 누구든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죽을 일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거를 자기 주인공에다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주인공은 둘이 아니에요. 전구는 이렇게 많지만 스위치는 하나이듯이 모두가 모습은 다를지언정 마음이야 어떻게 둘이겠습니까. 전력을 크게 쓰고 작게 쓸 뿐이지 어떻게 전력이 따로따로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애나 어른에게 말이나 생각을 함부로 하게 되면 그냥 입력이 됨으로써 그대로 반영이 되어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용광로에 헌쇠들이 모두 들어가서 저절로 재생이 돼서 나오듯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 놓고 지켜보고 관한다면, 바로 용광로에다가 헌것들을 다 넣으니까 저절로 재생이 돼서 나오듯 나옵니다. 그냥 넣는 작업만 하면 재생되는 거는 자동적이죠.

아무리 자기한테 악하게 하고 아무리 죽을 짓을,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거기다 맡기고 돌려놓고 지켜보면서 상대에게는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을 해 주고 부드러운 뜻을 가져야 됩니다. 원망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바로 저 상대가 없을 것이다. 내가 있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상대가 있는 것이니 내 잘못이 아니겠는가.' 하고 돌린다면 바로 환하게 불이 들어오니까 저쪽의 전구에도 환하게 불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 마음은 서로가 밝아서, 한 사람이 밝게 쓰니까 다른 한 사람마저 밝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내가 이럭하면 안 되는 건데…. 아이구, 내가 그렇게 했어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선 후회를 하고 다시금 마음이 밝아져서 둘이 밝고 정답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화목해지니 좋고 애고가 없어지니 좋고 병고가 없어지니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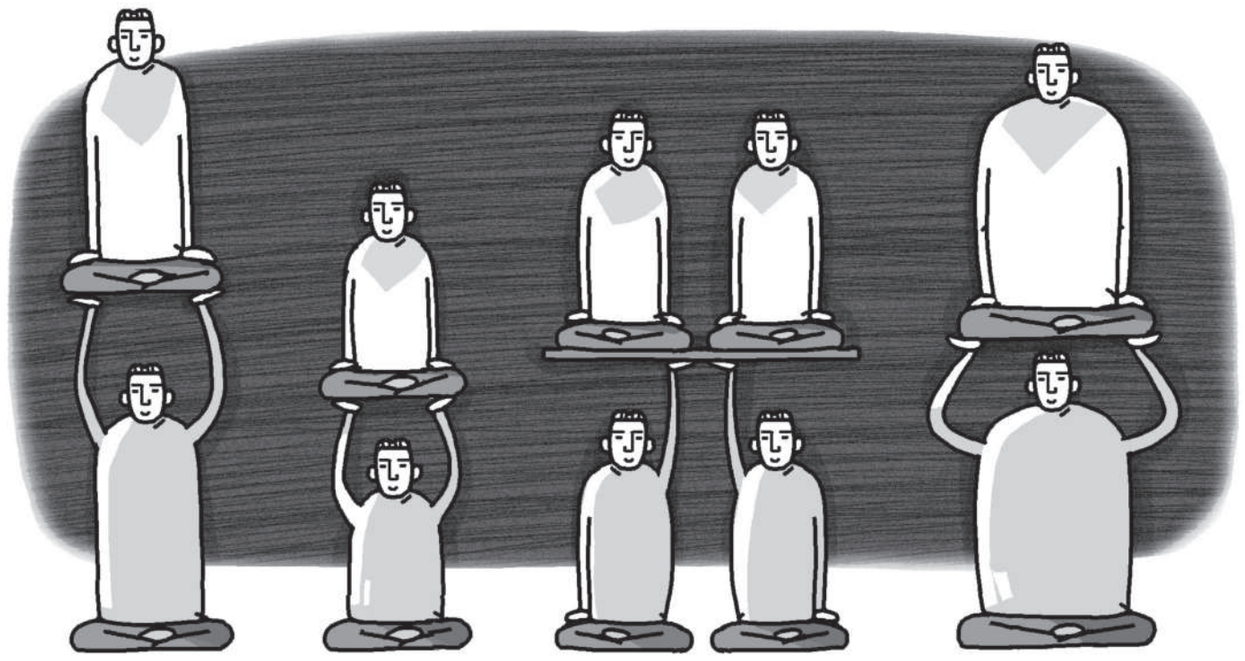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유마힐 거사가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 몸이 낫는다' 고 한 그 뜻을 한번 새겨 보십시오.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위장 공장, 간장 공장, 척수 공장, 척추 공장, 방광 공장, 콩팥 공장, 심장 공장 할 것 없이 어떤 공장에서든 파워가 일어나면 그 사람의 집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모든 걸 이끌어 가는 내 마음이 한마음으로 다스린다면 일체가 작용을 해 줘요. 그래서 그 모든 중생들이 건강해지고 파워를 일으키지 않으니 중생들이 있는 이 집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질 수밖에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해서 헛되게 떨어뜨리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살아나가는 것이 전부 과학 아닌 것이 없는데 물질과학으로 가기 때문에, 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50%밖에 모르는 거지요. 보여 주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과학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생각을 하면 설계가 나오고 설계가 나왔으면 집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집부터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포함해서 과학이라고 한다면 심성 과학이라고 해야 될 일이지 심성을 빼놓고는 과학이고 뭐고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은 한결같이 "너 나가 따로 없고, 네 국토 내 국토가 따로 없고, 여자 남자가 따로 없고, 길고 짧음이 따로 없고, 더럽고 깨끗한 게 따로 없고 모두가 찰나에 화해서 돌아가니 몰락 놓게 되면 그 도리를 몰락 얻으리라. 버릴 게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오셨는데도 여직껏 상대를 놓고 온통 바깥으로 끄달립니다.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불교든 전부 기복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자기 몸뚱이 돌아가는 도리부터 알고 자기 몸뚱이 속의 중생들부터 제도해서 삽십이응신의 그 도리를, 천백억화신이 내 몸뚱이 속에서 털구멍을 통해서 들고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부처님의 마음도 가늠할 수 있죠.

이 세상이 말을 안 하면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다 놓고 가야 되죠. 제 몸을 아무리 아꼈다 하더라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집이 훌륭하고 권세가 좋다 하더라도, 자식 부부가 다 있다 하더라도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말해 보세요. 일체 만물만생이 다 자기같이 살라고 가르쳤어요. 모두가 서로 주고받고 먹고 살듯이, 공생 공심 공체 공용 하듯이 모두 서로 가르치고 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나무들을 봐도, 바람에 쓸려서 그냥 뿌리가 뽑힐 듯 말 듯 해도 그 나무는 바람 부는 대로 삽니다. "물이 파도냐, 파도가 물이냐?" 이러는 사람도 있지마는, 물고기들이 다 물속에서 살아야 되듯이 우리 인간들도 다 공기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작용이 없으면 우린 멸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 물속에는 태양열이 절반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용돌이를 쳐서 모두 굴려줘야 그 생명들이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도도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 순응치 않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살 양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면 그걸 어떻게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미국에 갔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 신부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네들이 그렇게 공부한다면서 한국에서는 왜 스님들이 그렇게 싸우고 치고 박고 그러느냐?"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화산이 터져서 과학자들이나 인류가 얼마나 발전이 됐느냐. 그와 같이 발전을 시키기 위한 작용이지 싸움이 아니다. 너희들 눈이 장님이 돼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무 소리 못 하더군요.

그리고 "너희 나라에 있는 케네디 대통령 묘지에 가 보니까 불을 훨훨 날리게 해 놓았던데 그렇게 밤낮없이 불이 나오게 한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도리야. 그거는 더하고 덜함도 없이 항상 밝다는 뜻이야. 당신네들도 그렇게 해 놓고 가면서 그 뜻을 모르느냐. 모든 종교가 불교 주먹에, 한 주먹에 있다." 하고 말했죠. 거기 가면요, 신부나 목사님 또는 이름 있는 분들이 초청을 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럽니다. 또 독일에 가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지마는 모가 나야 걸릴 텐데 모가 나지 않으니까 걸리지 않습디다. 하하하. 그래서 그 사람네들이 손을 번쩍번쩍 들었죠.

하여튼 우리 부처님이 얼마나 장하시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예수님도 보살이 되려다 말아서 그렇지, 왜 몸뚱이로 그렇게 돌아다녔느냐. 그러니 그 사대가 그냥 못에 박히지 않았느냐. 부처님은 앉아서 천백억화신으로 제도하셨다. 천백억화신만 되겠느냐. 일체 중생이 자기 아님이 하나도 없이 마음으로 마음을 전달했다면 당시에 그렇게 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겠느냐. 즉 천백억화신으로서 화했더라면 그 많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자기 몸뚱이, 자기 집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요.

☞ 22면으로 계속

개정판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우리가 지금 살림하는 게 그대로 놓고 가는 것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집이 있으면서 열반을 해야 진짜 열반인 것이지 그냥 집이 없어지고 죽는 것은 열반이 아니거든요, 네? 사람이 살아 있으면서 구경의 경지까지 이르러야, 즉 나를 죽여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둘이 아니게 더불어 죽어서 또 둘 아닌 도리를 알고, 또 더불어 같이 나투는 도리를 알아야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열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인지라 무슨 소용이 있겠소마는 여러분과 같이 질서를 지키면서 배우고 나가려면 이름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이름을 지어 놓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살아서 열반이지 죽으면 열반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살아서 못한 거를 죽어서 어떻게 하겠소? 더하고 덜함도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간에 살면서 속세 따로 부처님 법당 따로 생각해서 둘로 보신다면 항상 선은 끊어질 것입니다. 일체 모든 것이 다 둘 아닌 도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풀 한 포기, 벌레 하나도 나 아님이 없어서 내 아픔이고 내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평등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부처님께서 뼈무더기에다가 절을 해 보인 것도 역시 그러한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공동묘지에 가 보니까 애나 어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늙었습디다. 그냥 늙었어요. 그러니 어찌 부처님의 그 심오한 뜻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습이 없다고 해서 삼천 년 전에 부처님이 계셨지 지금은 안 계시다고 하지 마세요. 삼천 년 전도 오늘이요 삼천 년 후도 오늘이에요. 부처님은 지금도 계시고 이렇게 만물만생으로 나투면서 설해 주시면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지마는 여러분이 맛있게 잡숫고 안 잡숫는 거야 어찌해 볼 수 없는 거니까요. 허허, 그거야 어쩔 수가 없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남) 오늘 큰스님 법문 중에 다 들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질문을 또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이미 질문을 하려고 생각했던 거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까 정말 참 가슴 벅차게 기쁩니다.

저는 큰스님의 법문을 직접 들으면서, 또 책과 테이프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큰스님께서 중생 제도의 방편으로 삼으시는 것은 바로 주인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스님께서 "주인공에 모든 것을 믿고 맡겨라." 하고 가르치시는 도리는 방편설인지 아니면 주인공이 실체로서 정말 있어서 믿고 맡겨야 한다고 하시는지 저의 주변에서 언쟁이 많았습니다. 오늘 법문에 충분히 있지만 다시 이것을 정립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짧은 가르침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허허허.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말하고 행동하고, 자동적으로 나오셨죠. 그리고 운전수가 차를 끌고 다니지 차가 운전수 끌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그죠? 사람도 자기 운전수가 바로 몸뚱이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운전수와 차가 둘이 아니죠?

질문자1(남) 예.

큰스님 운전수가 위로는 기름을 넣고 아래로는 차를 끌고 다니는 바로 주인이죠. 그러니까 말도 하게 하고 이리로 가게 하고 저리로 가게 하고 화도 나게 하고 즐겁게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섣불리 어디서 신이 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실상 자체, 돌아가는 자체, 자기를 스스로 끌고 다니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주인공인 것입니다. 주인공이라 하는 것은 화해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이름마저도 없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보십시오.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질문자2(남) 오늘날 우리 불자들이 신심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윤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스님께서는 백 년 전에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계셨으며 오늘 법문하시고 계시는 스님은 백 년 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큰스님 하하하, 백 년 전이든 백 년 후든, 지금조차도 없어요! 하하하. 그런데 지금조차 없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이 살려니까 질서를 지키고 백 년 전이니 백 년 후니 하지, 이거는 백 년도 없고 천 년도 없고, 후도 없고 전도 없어요. 시발점도 종점도 없어요!

질문자3(남)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수행하여 가는 중에 저의 내면을 관찰해 보면 수많은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 있을 때 이런 의식들이 육신이 죽고 난 후에는 업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떤 것이며 불성, 참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큰스님 생각을 내면 모두 망상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을 진짜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소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소, 즉 생각을 해내는 그 자체가 영혼입니다. 맷돌로 비유한다면 맷돌 추는 바로 불성이요, 즉 맷돌이 돌아가게 하는 그 자체는 그냥 힘을 내 주기나 했지 움죽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성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것은 바로 영혼의 장난입니다. 그러나 영혼과 불성이 다르지 않고 바로 육신까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삼라만상의 일체가 다 같이 혼연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각 보시지 마세요.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질문자4(남)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이천오백 년이 지난 지금을 흔히 저희들은 말법시대니 혼돈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태어난 저희 중생들은 부처님과 인연이 멀고 또 사법과 사교가 활개 치는 세상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정법 만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이 정법을 만났고 또 배우고 수행하여 참자유인이 되도록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주위에는 아직까지도 이런 법을 모르고 사법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분들에게 스님께서는 어떻게 포교하고 계시며, 그리고 스님을 대신해서 이 법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불교 교육대학 포교사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큰스님 이 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아이구, 이사를 가야 하는데 가서 날짜를 물어보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탈이 생긴다.' 이렇게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의해서 살아요. 그 한 예만 봐도 살아나가는 게 모두 그렇게 관습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나가는 게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권리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그 권리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유전되어 와서 그냥 머리에 배었죠.

지금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도 틀리지 않고 배우는 사람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게 부처님 법 그대로라는 걸 백지 한 장 사이인데도 모르고 있지만 그것만 알아채면 이 세상을 그대로 여여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아주 그렇게 간단하죠.

그런데 생각들에 젖어 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 줘도 "아이고, 그렇게 다 놓으라니 다 놓고 어떻게 삽니까?" 이러는 거예요, 허허. 그러니 내가 그런 말을 하죠. "당신이 걸어올 때 한 발 들고 한 발 놓고, 한 발 들고 한 발 놓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건 짊어지고 다니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살림하는 게 그렇게 놓고 가는 겁니다, 그대로. 붙들고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대로 그냥 순응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지어 가지고 그렇게 온통 붙들고 만날 걸리는 거죠. 그게 자기가 마음으로 지어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고 나오지 못해서 자유스럽지 못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러 주세요. 배우는 사람에게도 '이게 뭣고?' 하지 말고 "네가 너를 끌고 다니니까 그대로 거기다 맡기고 그대로 지켜봐라. 못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잘 굴리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고, 잘됐으면 감사하게 놓고 거기에다 맡겨라. 주인의 그 구멍은 한 구멍밖엔 없다." 하고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고 나면서 당신을 끌고 다니는 자체를 주인 삼아서 꼭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스스로 깨치게 되어 고삐도 없어지고 소도 없어지듯이 자기 주인이라는 이름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가 서로 100% 작용할 줄 알아야 에너지를 바로 자기 자신들이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4(남) 알겠습니다.

질문자5(남) 스님께서 불이(不二)의 법문을 해 주시면서 둘로 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짐작은 갑니다만 평소에 의심나는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계 가운데 불살생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 것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에 음식을 먹으면서 육식도 하고 채식도 하고 그럽니다. 육식 생활을 함에 있어서 늘 그 불살생계에 걸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연하게 깨달음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죠. "손님들이 와서 닭 30마리를 잡아야 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나한테 물으러 왔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30마리를 잡아서 서른 사람을 대접을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하고, 만약에 하지 말자고 우긴다면 집안에 큰 싸움이 날 테니 스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했습니다. 그거를 살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백지장 하나를 넘지 못해서 모르니 살생이 될 것이고, 백지장을 뚫은 사람은 그것이 살생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생각을 이렇게 해라. 닭의 살은 네 살이고, 닭의 생명도 네 생명이고, 닭의 마음을 네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그 닭의 살은 약으로 될 것이고 닭 30마리가 그냥 홀랑 네가 돼 버리고 만다. 그러니 30개를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30개를 꺼내도 줄지 않는 도리니 거기다가 모든 거를 맡기고 그냥 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와서 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꿈을 꾸니까 닭발이 전부 한데 묶여서 천상으로 올라가요." 자기와 그 닭들이 둘이 아니게끔 그냥 자기 몸뚱이로 들어오더니만 자기가 천상으로 올라가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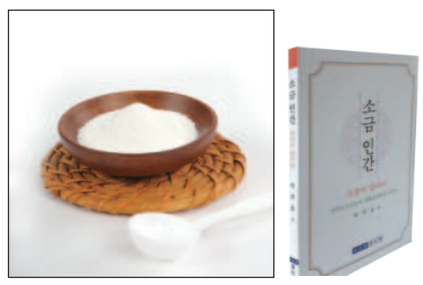
그건 왜? 그 도리가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에게 소고기 한 점이 걸리는 것이 오백 년, 천 년 만에 한 번 인연이 될까 말까 한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백 년도 일 초요 일 초도 오백 년이지, 오백 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 초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오가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봐도 그 소 모두를 내 마음 안에 넣으면 내가 되고 내가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 소가 되고, 소가 돼서 소 무명을 벗기면 그대로 인도환생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사람들은 연쇄적으로 하(下)의 동물을 먹고 그 하의 무명을 벗기고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생한다고 그것을 넘기지 못해서야 어찌 부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며 그 뜻을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살생을 한 바도 없고 안 한 바도 없는 그 가운데 도리를 알 것 같으면 아주 무주상 보시죠. 하하하….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11월 1일 국내 지원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너 나가 따로 없고 더럽고 깨끗한 게 따로 없고
모두가 찰나에 화해서 돌아가니
몰락 놓게 되면 그 도리를 몰락 얻으리라.
버릴 게 없느니라.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현불논단

부처님 행한 인권평등 상기해야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고대 인도 브라만 계급사회 주도해
'아웃카스트' 관습 印발전 저해요소
카스트 제도 반대한 사문이 부처님
"출가자 계급 상관없이 석가 제자"
누구나 승가 속하면 평등함을 강조

아직도 곳곳엔 아직 인권 경시 만연
부처님이 설한 인권사상 돌이켜보길

인도에서는 고대로부터 여러 종교가 발생했는데, 인도를 벗어난 종교는 없다. 불교만이 인도를 넘어선 세계 4대 종교 가운데 하나이다. 불교가 전 세계 종교로 발전한 것은 인도 문화의 색채를 벗어나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과 생명존중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아리아인이 기원전 1500년경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인도에 침입했다. 이들은 직업의 분화를 정립했는데, 신에게 제사 지내는 바라문 · 왕족 · 서민 · 노예 계급이다. 이렇게 네 계급으로 나누어 구별했는데, 이를 카스트(caste) 제도라고 한다. 브라만들은 업과 윤회사상을 토대로 그들의 계급을 정당화하며, 사람들에게 숙명처럼 받아들이도록 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카스트에 들지 못하는 '아웃카스트(out-caste)'이다. 카스트 제도에 의해 신분이 다른 계급 간에 혼인을 금지하며, 식사도 함께 할 수 없다. 현재도 인도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기원전 6세기 바라문교의 카스트 제도를 반대한 사문이 있었는데,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어느 계급일지라도 믿음이 견고해 출가한 사람은 이전의 종족(계급)과 상관없이 석가의 제자"라고 하셨다. 그래서 승가를 큰 바다(大海)에 비유하는데, 물이 어디서 흘러왔든 바다에 들어오면, 함께 섞이듯이 출가 전 어떤 계급이었든 승가에 들어와서는 '똑같이 평등하다' 고 보기 때문이다.

〈숫타니파타〉에는 이렇게 언급돼 있다. "사람은 출신 성분으로 인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되기도 한다."

인간의 가치는 태어날 때의 계급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고 행위가 진리에 정당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존경받아야 한다는 지론이 석가모니 부처님 사상이다.

부처님께서는 당시 천민 출신이어도 왕족 출신과 똑같이 대하였다. 천민 출신의 대표 존자가 계율제일인 우바리존자이다. 우바리는 출가하기 전, 왕족들의 머리를 깎아주던 이발사이다. 왕족 출신 비구들은 우바리를 출가 교단에 받아들이는 것조차 반대하며, 부처님의 사상을 의심하기까지 했다. 우바리 이외에도 천민 출신 승려는 마부였던 챤나가 있고, 분뇨를 청소했던 수니타 등이 있다.

또 부처님께서는 승가에 여성을 출가자로 받아들였다. 당시 여성 출가자 중에서 왕족 · 바라문의 딸도 있지만, 유녀출신 비구니가 있는가 하면, 결혼에 실패한 여인도 많았으며, 천민 계층의 여인도 있었다. 〈장로게〉가 비구의 깨달음을 읊은 게송이라면, 〈장로니게〉는 비구니의 수행 경지나 오도송을 모아놓은 것이다. 〈장로니게〉는 〈장로게〉와 똑같이 결집됐는데, 비구니가 비구와 동등하게 존중받았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부처님의 인간 평등사상을 알 수 있는 경전이 있다. 〈육방예경〉인데, 부처님께서 장자의 아들인 선생에게 동서남북 · 상하 여섯 방향에 예배하라고 하였다. "동방은 부모, 남방은 스승, 서방은 아내, 북방은 친척, 하방은 하인, 상방은 수행자라고 생각하고, 예를 올리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아내와 하인들이다. 여인이 대접받지 못하고, 계급제도가 심각한 인도에서 부처님은 여인과 하인에게도 늘 감사의 예를 올리라고 한 것이다.

현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서 인종 청소가 자행되고,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아시아 노동자들이 차별받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받는다. 또 갑질로 인해 현대판 계급제도가 사회에 만연되어 있으며,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들의 인권이 퇴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니 2600여년 전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장한 인권평등이 재조명돼야 하지 않을까?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나를 변화시키는 명상과 기도

우리는 대체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을 하고, 직장인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자영업자는 사업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의 비결은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지장보살처럼 상대의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일처리를 못해서 답답할 때 불만불평을 하지 말고 그의 모자란 부분을 메워주십시오. 상대의 약점을 메워주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면 자기 능력도 신장되는 것입니다.

직장상사가 일을 미뤄서 힘들어 죽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새로운 일은 뇌파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여행지에서 신선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도 새로운 환경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래 되면 관습에 젖어들어 시들어지고 그만 흥미를 잃게 되고,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대할 때마다 고맙게 반갑게 여기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사람은 늘 생생하고 행복하고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열정적인 삶은 의식을 깨우고 몸도 깨웁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적극적인 생각과 열정적인 삶은 건강과 번영, 행복을 부릅니다. 소극적인 생각과 삶은 우울, 슬픔, 괴로움 등 불행을 불러옵니다.

화분에 심은 꽃나무에 햇빛을 쪼여주면 더 싱싱하게 자랍니다. 밝은 햇빛은 식물에게 초록색을 주고 그 꽃에게 갖가지 색깔을 주며, 그 열매에 고운 빛과 달콤한 맛을 줍니다.

이처럼 마음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빛이 본래 내재되어 있는데, 모를 뿐입니다. 우리에게 내재된 빛을 꺼내 쓰는 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손으로 쓰는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일심으로 할 때 무한한 빛이 솟아납니다.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나는 밝고, 명랑하고, 건강하다. 나에게는 모든 장애가 없다. 나의 생명의 원천인 마음속에 솟아나는 것은 찬란한 기쁨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굳은 신념이 생기고 열정을 낳게 됩니다. 기도로 생긴 열정은 마치 전등을 밝히고, 동력을 만들어내는 발전소처럼 인간의 원초적인 힘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음이 바뀌면 몸이 변화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신념이 생길 때 룰리베린 황체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혈관 속에 흘러들어 와 인체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또한 뇌에서는 페타엔돌핀, 멜라토닌, DMT(디멜틸 트립타민)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정확하게 8헤르츠의 파동으로 심장을 진동시키고, 뇌에서도 8헤르츠의 파동이 일어나서 마음은 계속 환희롭고, 몸 전체의 기능이 활발해져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명상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늘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전국비구니회관 20주년에 부쳐

전국 6000여 비구니 스님들의 총본산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관이 개관 스무돌을 맞았다.

전국비구니회가 10월 18일 회관 3층 만불전에서 봉행한 '전국비구니회관 개관 20주년 기념법회'에는 비구니 원로회의 명사 스님들과 비구니 종회의원, 사찰음식 명장 등 400여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참석, 축하하는 마음을 나눴다.

전국비구니회관 건립이 추진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1980년 '우담바라회'가 '전국비구니회'로 명칭을 개명하고 재발족하면서 비구니스님들은 수행과 포교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및 복지사업을 펼칠 중심도량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건립과정은 험난했다. 부지매입부터 공사완공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전국 비구니스님들과 여성불자들이 발품을 팔고 1만 원, 2만 원, 십시일반 마음이 모아져 마침내 1999년 3월, 첫 삽을 들었고 2002년 5월, 큰법당 불상 점안 봉불식 거행으로 불사를 여법하게 회향했다. 지상3층, 지하2층 연면적 약 8400㎡(2650여 평)에 달하는 비구니회관이 완공된 것이다.

이후 비구니회관은 한국 비구니 수행전통에 대한 세미나 개최는 물론 비구니 수행교육 등을 통해 비구니 스님의 탁마를 유도했고 또 그들의 구심점이 됐다. 또 사찰음식, 다도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통해 도심포교 및 여성불자들의 교육도량 역할을 해왔다.

20살 성인이 된 전국비구니회관은 더 큰 꿈을 꾼다. 바로 지역사회 중심이 되겠다는 발원이다. 전국비구니회관이 부처님 재세시와 같은 화합승가의 정신을 실천하고 사부대중이 힐링하고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장소로 활용, 지역사회 중심 공간이 되길 염원한다.

사노위, 대사회화 문제 해결에 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대사회 현안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보가 눈길을 끈다.

사노위는 10월 17일,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날을 맞아 파주 서울시립승화원 제1묘지 무연고사망자 추모의집에서 '1017 빈곤철폐의날,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기도제'를 봉행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 치러 줄 사람마저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극락왕생 발원과 사회구조 변화의 과제를 알리기 위함이다.

10월 18일에는 평택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근무 중 사고로 숨진 20대 노동자의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 특히 사노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정부에 일침을 가하고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죽음을 국가의 책임이요 부끄러움으로 알고 철저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소외된 사람, 잊힌 현장을 찾아다니며 부처님의 자비와 평등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사노위의 행보는 조계종 총무원 제37대 집행부의 역점 사업인 사회적 약자 등 대사회적 역할 확대에도 그 맥을 함께한다.

실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당선인 신분으로서 첫 행보로 장애작가들의 작품전을 찾았고, 신당동 스토킹피해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사회문제를 향한 실천적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사회적 약자, 빈곤, 노동, 기후환경 문제 등 많은 사회적 현안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어렵고 힘든 중생들을 치유하고 보듬는 것은 불교의 가장 큰 역할이다. 앞으로도 사노위의 대사회 문제해결에 대한 꾸준한 활약을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일일시호일

응급 수술 받았지만
심장 구멍 다시 뚫려 생명 위험

스리랑카에서 온 산지와씨 염색공장에서 10년간 일해
의식 잃고 쓰러져 응급실행…청구된 병원비만 22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법왕과 각국 승왕단이 주관하는 품수의식

국제 합동 보살계 금강계단 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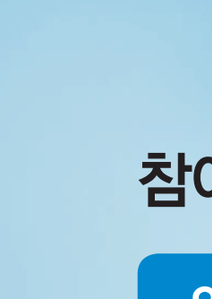
전계대화상 교수아사리 갈마아사리 칠증사 증명단

불조의 법맥 전수 봉행

참여예정국가 : 미얀마,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몽골, 중국, 대만, 일본

일시 : 2022년 11월 12일 (토) 1시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회관 대강당**

상좌부 최고 상가라자님들이 뜻을 같이하여 불조의 법맥을 전해받은 수법제자로서 계유과 전통을 이어받아 교수아사리와 갈마아사리를 통하여 四種教授의 가르침을 수지하고자 합니다 법상좌의 수법제자로 四種鉤印(사종구인)하여 중생의 스승이 되길 기원하는 대설법전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지구촌 어느 곳 어느 장소에도 부처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함께하여 전쟁과 다툼이 없는 세상 고통받는 불우 이웃이 없기를 기원하며 이타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하고 협동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세계 각국 정신적 지도자들이신 법왕과 승왕을 모시고 한국 불교 각종단 큰스님들과 함께 부처님 세상을 열어가는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한국불교를 이끌어 주시는 지도자요, 중생의 지팡이이신
530여 종단 종정 큰스님, 총무원장 스님
성스러운 법석에 정중히 초대하며 불교 포교에 헌신하신 공로로
스님께 공로훈장을 수여합니다.

– 사전 등록해 주시면 정해진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






봉행단 총재 **금당 목탁 대승정** / 봉행추진 위원장 **금강 혜정 대종사** / 조직위원장 **법성, 현담, 대공, 법장** / 심사위원장 **법원, 심오, 법륜, 월산, 월암, 법성, 현경, 송운, 법운, 자운, 정인, 청명, 대도, 백련** / 봉사단장 **박정의, 정영숙, 양미애, 윤서영, 최연호, 박정하, 모미숙, 송윤서, 김명옥, 김경실, 황은지, 윤점심, 김미숙, 김유자, 이양순, 이재옥, 이은송, 김나영** / 경호처장 **고동욱** / 의전봉행위원장 **김재은, 이정희, 김수경**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제2회 세계 붓다 평화 봉사대상

살아있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을 찾습니다.





2023년 한국과 세계 불교를 이끄는 리더,
세계와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을 찾습니다.

법하의 주위에 봉사와 헌신으로 승가 재가자 중
자랑스런 살아있는 보살(봉사대통령)을 추천해 주세요.

*본 협회는 어떤 명목이든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봉사 대상 상패와 훈장 기념품 증정

제출서류 : 봉사자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및 봉사내역, 3개월 미만 여권사진 2매
(정상적으로 촬영되지 않은 사진이나 사진 첨부가 안된 서류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016-0537-91 (예금주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국민** 023501-04-147581 (예금주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국민** 023501-04-214874 (예금주 : 세계불교 법왕청 중앙정부)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대한민국 나라사랑연합협의회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03호) 전화 : 02-733-5665 HP : 010-3618-6061